복음서신학입문

조 동 호 지음

서 진 출 판 사

A STUDY ON FOUR GOSPELS

DONG HO CHO

Seojin Press, 1994, 2004
9-61 Choongdong Dongku Taejon
Korea, 300-160

머리말

사복음서 신학은 성경신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논쟁적인 요소가 많아서 다루기 힘든 분야이다. 사복음서가 누구에 의해서, 언제 기록이 되었으며, 특히, 신앙인들이 구세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말하고 있는지를 이 천년 전에 기록된 고문서를 가지고 연구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학자들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미 방대한 분량의 연구 결과를 저술해 놓았으며,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신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짧은 시간에 소화할 수 있고,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부끄럽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강의했던 '사복음서 연구'의 내용을 『복음서 신학 입문』서로 내놓게 되었다.

이 책은 새로운 연구 서적이 아니며, 출판된 서적들의 부족한 내용을 보충할 목적으로 쓰인 책도 아니다. 이 책은 현재까지 사복음서 신학에서 다루어 왔던 문제들을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의도된 강의 교재 또는 입문서에 불과하다. 읽는 분들에게 사복음서 신학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1994년 7월 27일

조 동 호

차례

제1장 서론/7

제1절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 7
제2절 복음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 11
제3절 복음서는 어떤 종류의 책들인가? ····· 12
제4절 복음서의 장르 ····· 14

제2장 복음서의 비평/19

제1절 성경비평의 사상적 근거 ····· 19
제2절 성경비평사 요약 ····· 23
제3절 비평 방법론 ····· 25
가. 본문비평 ····· 26
나. 언어학적 비평 ····· 31
다. 비교 종교적 비평 ····· 35
라. 양식비평 ····· 41
마. 편집비평 ····· 67
바. 사회학적비평 ····· 69
사. 기타 비평방법론 요약 ····· 70

제3장 공관복음서 문제/79

제1절 공관복음서의 유사점과 차이점 ····· 79
제2절 공관복음서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들 ····· 81
제3절 마가복음 자료 ····· 86
제4절 Q자료 ····· 93

제5절 마태복음의 특수자료 M ····· 95
제6절 누가복음의 특수자료 L ····· 96
제7절 공관복음서 문제 해결 방안 ····· 99

제4장 복음서 구조와 특징/101
제1절 마태복음 ····· 101
제2절 마가복음 ····· 122
제3절 누가복음 ····· 142
제4절 요한복음 ····· 161

제5장 복음서의 기독론/187
제1절 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GOD) ····· 187
제2절 인자(THE SON OF MAN) ····· 188

제6장 복음서의 보도내용/193
제1절 예수의 사역지 ····· 193
제2절 예수의 청중들 ····· 194
제3절 공관복음서의 보도내용 ····· 195
제4절 단위별 공통자료와 특수자료 ····· 197
제5절 공관복음서의 자료비교 ····· 197
제6절 예수의 기적 ····· 198
제7절 예수의 비유 ····· 199
제8절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연대개요 ····· 200
제9절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사건들 ····· 213
제10절 죄목 ····· 215
제11절 예수의 재판과 그 장소들 ····· 217
제12절 십자가 수난의 시각 ····· 218
제13절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들 ····· 219

제1장

서론

제1절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역사는 신의 계시와 관련이 있는가?

역사에는 순수역사(historie)와 해석의 역사(geschichte)가 있다. 순수역사는 사건그대로의 보도 즉 역사적 사건을 있는 그대로 조사탐구해서 보도한 사실적 기록을 말하고, 해석의 역사는 사건이 주는 교훈과 뜻, 또는 의미와 해석을 가미한 기록을 말한다. 일간지에 실리는 사건보도가 순수역사에 해당될 수 있고,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연구』나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가 해석의 역사에 해당될 수 있다.

함석헌은 해석의 역사를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 골라진 사실들에 대한 뜻풀이라고 했고, 그 뜻풀이에 역사는 생명을 갖는다고 했으며, 역사가의 능력은 해석하는 힘에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잘된 역사책은 정신을 밝혀주는 글이요, 잘하는 역사독법(歷史讀法)도 정신을 읽어내는 해석에 있다고 하면서 "이 해석하는 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역사를 아는데 깊고 얕은 차이가 생긴다."[1]고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해석의 역사이다. 성경에 실린 사실들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골라진 사실들이며, 이 사실들이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 즉 하나님의 구원사건이라는 것이 성경저자들의 신앙고백이다. 또 성경은 이들 구원사건들 즉 하나님을 믿고 영생하는

---

1)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한길사, 1997), 38-48쪽.

길을 밝힌 저자들의 해석이자 설교이다.

성경저자들의 해석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경저자들의 해석하는 힘은 소명의식과 역사의식과 영성에서 온다는 것이 그들이 스스로 밝히는 내용이다.

첫째, 소명의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에게 밝히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자의식이요, 이 의식이 강할수록 박해나 불의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된다.

둘째, 역사의식은 과거와 현재적 정황에 대한 철저한 성찰에서 비롯된다. 먼저 자기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역사적 정황에 대한 성찰이다. 현재 겪고 있는 이 사건이 왜 발생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과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어떤 계약을 맺으셨는가? 현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으며, 그들에게 잘못은 없는가?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성경저자들의 역사의식의 전거(典據)는 구약예언자들의 경우 시내산계약, 복음서저자들의 경우 예수의 말씀과 행동에 관한 구전, 바울의 경우 안디옥교회 전통, 계시록저자의 경우 구약성경이라고 말한다. 성경저자들은 이런 전승들에 대한 철저한 해석자들이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역사의식의 전거는 성경저자들이 남긴 성경 66권이다.

셋째, 영성은 성경저자들이 갖는 해석하는 힘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영성의 깊고 얕은 차이는 성령의 영감에 좌우된다는 것이 성경저자들의 주장이다.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성경은 역사적 산물인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으로서 뿐만 아니라, 행동(사건)으로서 역사 속에서 당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나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가 발생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들의 일부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일 수 있다.

계시적인 사건은 그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영감으로 도우신다. 여기에 바로 성경적 계시의 형태가 있다.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행

동하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그 행위를 설명하는 해석의 말씀을 주신다. 즉 하나님은 행동하실 뿐 아니라,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행동을 설명한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행동을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서 형성된다.

제1단계: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 속에서 사건이나 또는 그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타난다.

제2단계: 계시 받은 자를 성령으로 영감 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경형성의 큰손으로 배후에서 작용하신다.

제3단계: 예언자나 주의 종들은 받은바 계시를 해석하여 설교 또는 기록의 수단으로 제삼자에게 전달한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언어로 주어진 하나님의 인류구원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한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에 의해서 보존되고 전달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산물이다. 따라서 성경의 원본과 원뜻을 찾는 학문적인 노력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정신)을 밝혀내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본문(text)을 재해석하고 상황화(contextualization)시키는 주석과 비평작업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성경은 신앙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에 의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었다. 여기에서 필요란 신앙인들의 고난, 배교와 이단의 위협, 신앙공동체의 정체성 확립, 성장에 따른 신앙교육과 질서확립 등을 말한다.

성경은 성령의 도움을 받은 신앙인에 의해서 신앙적 목적으로 기록된 일종의 설교(kerygma)이다. 성경은 신앙적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에 의해서 기록된 신앙체험에 근거한 삶의 고백서이다.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신앙인에 의해서 경험되어 졌을 때에 성령의 감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사건으로 해석되는 수가 종종 있다. 여기에는 사건 발생시의 삶의 정황이 있고, 이 사건을 해석하고 기록하여 전달하는 사람의 삶의 정황이 있다. 사건

의 해석자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 이용하여 편집함으로서 해석의 과정을 거쳐 기록으로나 선포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해석자의 글 속에는 해석자의 신앙적 관점과 의도와 목적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인 동시에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해석의 글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과정이 인간의 단독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이 성경저자들의 고백이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역사적인 사건의 순수한 전달보다는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 이는 성경이 해석된 역사(geschichte)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구원의 행위를 믿음으로 전달한 역사임을 말한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인들의 신앙적 관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신앙이다. 그들은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들은 성자 하나님을 부활의 주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들은 성령을 피조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마누엘)으로 믿었다. 그들은 인간을 부족한 죄인으로 고백하였다.

신앙인들은 창조신앙에서 무엇을 믿었는가?

그들은 이 물질세계가 본래 좋은 것임을 믿었다.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를 계약과 책임에서 보았다. 이 우주와 우주의 역사에 목적과 방향이 있다고 믿었다. 인간의 삶에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믿었다. 과학과 학문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창조는 윤리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믿었다. 인간이 피조물임을 믿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믿었다.

신앙인들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능히 당할 자가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에 대해서 말한다. 고난에서의 승리, 십자가의 죽음에서의 부활을 말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한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말한다. 시련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한다.[2]

제2절 복음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첫째, 예수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으셨다. 그의 제자들도 전도와 선교에만 관심을 가졌지, 기록을 남기는 일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그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문서로 남길 만큼 그렇게 문학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았다. 양피지나 파피루스와 같은 재료를 구입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말씀 전파와 신앙생활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기록 보전에 신경 쓰지 못했으며, 그들의 종말론적 사상 때문에 기록 보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또한 유대인들은 암기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어서 구전으로도 그들의 가르침을 충분히 보존할 수 있었다.

둘째, 구전으로 전해지던 메시지가 기록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점차 죽어가고 있었으며,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가 바뀌게 되면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문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누가, 요한, 바울과 같은 저자들이 지연된 종말을 실현된 종말 또는 종말의 현재화(역사화)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미래종말의 차원인 부활과 우주의 재창조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구원)가 성취되고, 보증되며, 인침되고, 선취된다고 설명하였다.

외부 세력의 위협이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서의 필요성을 가중시켰을 것이다. 박해로 인한 배교의 위협과 내부에서의 이단의 위협으로 인해서 변증적 성격의 책들이 많이 기록되었다. 마태복음이 예수의 말씀의 권위를, 마가와 요한이 예수의 능력 있는 행동의 권위를 강조함으로 기독교 복음과 예수의 권위를 유대교의 율법과 모세의

---

2) G. E. Ladd, 『신약과 비평』(개혁주의신행협회), 21-37쪽; ---------, 『신약신학』(성광문화사), 35-45쪽; 김정준, "기독교의 역사이해," 한신대학교, 『기독교와 문화』(한신대학교출판부) 참고.

권위에 비교하였다. 히브리서 저자도 신약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완벽한 희생을 구약의 율법과 제사에 비교하여 그 월등함을 논증하였다. 누가는 그의 문서들에서 예수와 바울이 정치적으로 무죄함을 변증하였고, 선교교회의 정통성(=사도성)과 기독교의 무흠함을 입증하려 하였다. 그 밖에 많은 저자들도 이단을 막고 기독교 신앙의 정통성을 보존할 뿐 아니라, 배교자를 막고 신앙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다.

기독교가 성장함에 따라서 교육과 선교, 그밖에 예배 예전의 발전에 따라 회람 또는 봉독을 위한 기독교 독자적인 문서의 필요성이 강요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신조, 경전, 성직제도 등을 형성하는 데 온힘을 쏟았다.[3)]

제3절 복음서는 어떤 종류의 책들인가?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복음서는 정확한 예수의 전기를 기록하려고 시도되지 않았고, 그의 생애와 행적을 정확히 역사적으로 보도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초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함이었다.

복음서는 역사적 목적을 가진 정확한 역사 기록이나 전기는 아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복음서 저자들의 자료수집을 통한 편집활동의 결과이다. 독립적으로 전해지던 여러 형태의 자료들, 말하자면, 교회가 보존했던 케뤼그마 형태의 전승, 단편적인 문서자료 등을 수집하여 선별적으로 이용하여 역사적 형태나 연대기적 형태로 또는 지리적인 형태로 연결시켰다. 물론 목적은 예수를 소개하고 신앙공동체를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저자들의 편집 작업은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발생된 순서 그대로 정확하게 전기를 쓰는데 있지 않았고, 수집된 자료들을 통하여 신앙인들을 교육하고 전도하려는 신앙적 교육적 선교적 관심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요 20:31;

3) 김득중, 『신약성서개론』(컨콜디아사), 21-25쪽.

21:2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실제적 사실들에 대한 기록이며 그들의 설교요 신앙간증이다.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상황은 예수의 역사적 상황을 말해 주기도 하지만, 초대교회의 상황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복음서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단계의 역사적 상황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예수의 역사적 상황(Sitz im Leben Jesu). 예수의 역사적 활동과 실제적 사건이 있었던 시기이다. 이 단계가 복음서 자료의 역사적이며 신학적인 원천이다(원자재 단계/A.D. 26~30).

둘째, 구전시대.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까지 목격자들의 증언(설교와 교육을 말함)에 따라 복음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던 시기(가공=의미부여 단계/A.D. 30~70).

셋째, 초기 교회의 역사적 상황(Sitz im Leben der Urkirche). 복음서 저자들이 복음서를 전승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개인적인 신학적 관심을 표시하던 시기(막 8:34; 요 9:22)이다. 그들은 각기 자기가 처해 있던 교회 형편의 요구에 따라 그 지역, 시기, 상황에 가장 알맞은 형태의 복음서를 기록하였으며, 그들의 신학적 관심이나 설교목적을 피력하였다. 그러므로 복음서는 역사적 전기로뿐만 아니라, 복음서 기자의 설교로 또는 신앙간증으로 읽혀질 수 있다(건축 단계/A.D. 70~90).

결론적으로 복음서의 모든 문서는 설교에서 존속하였고, 연속적인 전기이기보다는 단편적인 설화와 교훈의 집성이며, 신앙을 전제한 기록이다. 복음을 전파하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또는 교사들에 의해서 중요한 사건들은 설교 속에서 반복해서 강조되었고, 전파되었으며 이용 빈도수도 높았을 것이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술이며, 액면 그대로의 보도이기보다는 사건의 해석을 통한 신앙 고백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복음서는 역사적 문서이면서 신앙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고문서들과 차이점이 있다. 이 문서가 초대교회 당시 예배 속에서 설교(kerygma) 또는 전승의 형태로 보존되어 오던 것을 당시의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복음서 연구는 신학과 신앙의 학이 되어야 한다. 신학으로서 역사적 문서에 대한 고증과 비평을 가하고 본문의 언어와 개념을 연구하며, 신앙으로서 성서의 중심 사실을 인식하여 복음서 저자들의 증언과 설교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4)]

역사적 사건과 말씀⇒ 전승⇒ 수집⇒ 편집(선별)⇒ 기록(해석 또는 의미부여)

▶전승은 예배 속에서 설교와 교육의 형태로 보전되었다.

▶자료의 편집은 수집된 자료의 선별적인 이용을 말한다.

▶기록은 역사적인 사건과 말씀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을 말하며, 신앙적 교리적 선교적인 목적을 갖는다.

제4절 복음서의 장르(genre)

복음서의 장르는 다음의 몇 가지 견해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정통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복음서를 순수전기(biography) 즉 역사적 전기로 본다. 이를 historie라 할 수 있다.

둘째, 독특한 양식(sui generis/unique)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복음서를 신앙공동체의 산물로 본다.

(1)루돌프 불트만은 복음서와 graeco-roman 전기문학과의 차이점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복음서들은 신화적(mythical)이지만, 전기들은 그렇지 않다. 둘째, 복음서들은 숭배적(cultic)이지만, 전기들은 그렇지 않다. 셋째, 복음서들은 세상을 부정하는 관점, 즉 종말론적(eschatological)인 의식을 가진 공동체의 소산물이지만, 전기들은 세상을 긍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렇듯 불트만은 복음서를 예수의 생애에 대한 전기로 보지

4) 김득중, 『복음서신학』(컨콜디아사), 9-14쪽; ---------, 『신약성서개론』(컨콜디아사), 49-53쪽.

않고 사도적 설교(kerygma)로 본다. 즉 복음서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설교의 확대이며 종교적 목적을 가진 신앙공동체의 신앙고백서로 본다. 이런 점에서 복음서는 고대 graeco-roman 전기형태와 전혀 다른 독특한 문학양식을 이룬다고 말한다.

(2)편집사 비평가들: 불트만의 제자들로서 그들 역시 복음서를 전기 문학으로 보지 아니하고 신앙적 교육적 선교적 목적을 가진 신학서 또는 설교집으로 본다. 즉 복음서는 그것들을 쓴 저자들이나 그들이 속한 신앙 공동체의 신학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의 삶의 빛에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를 해석으로서의 역사(혹은 전기) 즉 geschichte라고 말한다.

(3)카를 루트비히 슈미트(Karl Ludwig Schmidt): 복음서를 신앙공동체의 산물인 고대민속문학(kleinliteratur/cult legends)의 형태로 본다.

셋째, 고대 graeco-roman 전기형태로 보는 견해가 있다. 아래의 네 가지 분류는 표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가 복음서를 고대 그레코 로망 시대의 전기형태로 보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고대 그레코 로망 전기 형태는 오시리스, 헤라클라스, 디오니소스와 같이 인간의 딸과 영원한 존재인 신들과의 사이에서 출생하여 부활 혹은 승천한 불멸의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한다.

(1)르낭(Ernest Renan/1863): 복음서를 전설적 전기(Legendary Biographies)로 본다.

(2)보타우(C. W. Votaw/1915): 복음서를 대중전기(Popular Biographies)로 본다.

(3)쾨스터(Helmut Koester), 헤이더스(Moses Hadas), 스미스(Morton Smith): 복음서를 선전적 혹은 영웅적 전기(Aretalogical Biographies)로 본다.

(4)슐러(Philip Shuler): 복음서를 칭송 혹은 찬양 전기(Laudatory or Encomium Biographies)로 본다.

넷째, 마가복음의 장르적 특성에 주목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가복음의 내용은 독특(sui generis)한 것이지만(불트만),

형태적 유형에 있어서는 graeco-roman 전기형태와 고대 헬라의 비극 구조에 잘 부합된다고 한다(Gilbert G. Bilezikian, S. H. Smith).

다섯째, 탈버트(Talbert)는 누가 문서를 단순한 전기로 보지 않고, 종교적 공동체의 창설자와 그의 계승자들이 연결되어 등장하는 연속적인 전기 형태로 본다. 탈버트는 고대 문학 중에서 이렇게 창설자와 후계자들의 전기 유형에 대한 문학적 전례로 라에르티우스(Diogenes Laertius)의 『저명한 철학자들의 생애』(Lives of Eminent Philosophers)와 아리스토틀(Aristotle)의 전기적 단편들을 제시하고 있다. 『저명한 철학자들의 생애』는 아리스티푸스(Aristippus), 플라토(Plato), 아리스토틀(Aristotle), 안티스테네스(Antisthenes), 제노(Zeno), 피타고라스(Pythagoras), 에피큐루스(Epicurus)와 같은 철학 학파들을 다루고 있는데 형식적인 혹은 구조적인 특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런 철학자들의 생애가 세 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첫째, 창설자의 생애, 둘째, 제자들과 후계자들에 관한 이야기, 셋째, 학파의 가르침에 대한 요약이다.[5]

이상으로 복음서의 문학적 장르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정통신학에서는 아직도 복음서를 예수에 대한 역사적 전기로 인정하고 있으나 편집사 비평가들의 입장인 복음서를 신앙공동체의 산물인 독특한 양식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보충학습]예수는 언제 태어나셨는가?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A.D.(Anno Domini, 우리 주님의 해)와 B.C.(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를 사용하여 연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연도대로라면 예수는 A.D. 1년에 출생하신 것이 된다. 또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의 생일을 12월 25일에 기념한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는 A.D. 1년 12월 25일생이신가? 그렇지 않다.

로마인들은 로마제국건립연도로 시작하는 A.U.C.(Anno Urbis Conditae)를 사용하여 연도를 나타냈고, 1년을 10달로 하는 달력을 사용하였다. B.C. 46년에 율리우스가 로마 달력에 2달을 더 삽입케 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

5) 김득중, 『마가복음연구』(도서출판 나단), 29-39쪽; ---------, 『누가의 신학』(컨콜디아사), 26-30쪽, 211-219쪽.

12달을 갖게 되었다. 이 달력체계를 개선한 사람이 소시게네스(Sosigenes)이다. 참고로 로마에서는 3월 25일에 새해가 시작되었다.

1582년 교황 그레고리 13세는 율리우스력(Julian calendar)이 갖는 오차, 즉 1000년에 8일 정도 늦어지는 오차를 수정하였다. 수정된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에 따르면, 로마의 건립연도는 B.C. 753년이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의 달력은 로마제국이 멸망한 이후 대략 1세기가 지난 뒤부터 셈한 날짜들이다. 이 작업은 A.D. 525년에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Dionysius Exiguus)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디오니시우스는 로마 황제들의 제위기간을 셈하는 방식으로 예수께서 탄생하신 해를 정하였는데, A.D.와 B.C.사이의 0년을 계산에 넣지 않음으로써 1년의 오차를 낳게 하였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으로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4년의 기간을 계산에 넣지 않음으로써 오차를 5년으로 벌려 놓았다. 이 오차가 정확한 것이라면, 예수는 B.C. 5년에 출생하신 것이 된다.

이 연도가 정확한가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첫째가 헤롯대왕의 사망연도이다. 헤롯은 예수께서 출생하시기 전에 살아 있었고, 여리고에서 볼 수 있었던 월식이 일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월절 절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천문학자들은 이 때를 B.C. 4년 3월 말이나 4월 초로 계산한다. 유월절에 근접한 시기에 월식이 있었던 때는 B.C. 4년뿐이고, 그해 3월 12-13일에 월식이 일어났고, 4월 11일에 유월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베들레헴에 별이 출현했던 연도이다. 천문학자 마크 키저(Mark Kidger)는 베들레헴에 별이 출현한 시기와 예수께서 탄생하신 때를 B.C. 5년 3-4월경으로 본다. 키저는 천문학자의 입장에서 베들레헴의 별의 정체는 물론이고, 동방박사들의 정체 및 예수의 탄생시기를 가장 합리적이고 종합적이면서 성서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해 주고 있다.

베들레헴의 별과 관련해서 마크 키저가 제시하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1. 대략적으로 추정되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일치해야 한다.
2. 유일하고 특별하며 인상적인 현상이어야 한다.
3. 드문 현상이어야 한다.
4. 동방박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줄 수 있어야 한다.
5. 동쪽에서 나타나야 한다.
6.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상기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천체현상들이 B.C. 7년에서 B.C. 4년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있었다.

1. B.C. 7년 5월과 12월 사이에 물고기자리에서 일어난 목성(jupiter)과 토성(saturn)의 삼중합<5월 29일, 9월 29일, 12월 4일에 각각 합이 이루어짐>.
2. B.C. 6년 2월에 물고기자리에서 일어난 화성, 목성, 토성의 결집.

추가: B.C. 6년 2월 20일에 달이 목성을 가린 엄폐가 화성과 토성이 결집한 위치보다 약간 동쪽에서 이뤄짐.

3. B.C. 5년 그리고/또는 B.C. 4년 봄에 독수리자리/염소자리에서 나타나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에게 관측된 천체 또는 천체들.

마크 키저는 위의 현상들을 동방박사들이 마침내 유대 땅에 메시아가 났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 일련의 현상들로 해석한다. 또 그는 말하기를 "목성은 왕의 행성이며 동시에 자비로운 행성인 반면, 토성은 사악함을 상징하는 행성이고, 화성은 전쟁을 상징하는 행성이다. 동방박사들은 목성과 토성의 만남을 위대한 지도자(오랫동안 기다려 온 메시아)가 태어나서 사악한 지도자(로마의 황제)를 물리치는 것으로 해석했을 것"이라고 한다. 또 엄폐는 유대에서 한 왕이 태어날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현상으로 동방박사들이 이해했을 것으로 설명한다.

키저는 별자리들과 관련해서 사자자리는 왕, 물고기자리는 유대인과 관련된 별자리이며, 신성이나 초신성은 왕의 탄생과 관련된다고 말한다. 또 키저는 예수는 B.C. 5년 3-4월경에 태어나셨고, 동방의 박사들은 바빌론이나 더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 지방의 점성가들이었으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연관된 자들로 본다.

마크 키저는 전한서와 삼국사기에 실린 글들을 베들레헴의 별의 관측기로 보며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전한서--B.C. 5년 3월 10일과 4월 7일 사이 <건평(建平) 2년 2월>에 혜성 하나가 염소자리의 알파별과 베타별 근처에 나타나서 70일 이상 보였다." 삼국사기--B.C. 4년 3월 31일<혁거세왕 54년 2월 이유(已酉)일>에 견우성 근처에 털이 많은 별 하나가 나타났다." 키저는 이들 두 국가에서 관측된 현상들을 동일한 사건으로 추정하며 신성의 폭발로 본다.

키저는 처음 동쪽에서 보였던 별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무렵, 즉 두 달쯤 지난 시점의 새벽 동틀 무렵에는 거의 정확히 남쪽에 있게 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2주마다 별이 한 시간씩 빨리 뜨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새벽에 여행했다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별을 따라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키저는 B.C. 5년에 나타난 베들레헴의 별은 신성(nova)이었을 것이며, 중국에서 70일 동안과 한국에서 동시에 관측되었고, 독수리자리 D0의 별이라고 추정한다. 이 별이 폭발한 때가 바로 B.C. 5년 3-4월경이기 때문에 이 때 예수께서 출생하신 것으로 본다.

위의 글은 마크 키저(Mark Kidger)가 쓰고, 김상철이 옮긴 『천문학자의 관점에서 본 베들레헴의 별』(*The Star of Bethlehem: An Astronomer's View*) (전파과학사, 2001)을 읽고 간략하게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제2장

복음서의 비평

제1절 성경비평의 사상적 근거

18세기경부터 영국에서는 자연신론이, 독일에서는 계몽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부터 사람들은 신앙보다는 이성을, 성경보다는 과학을 중시하는 합리주의를 시대사조로 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계시와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부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대신 인간의 이성을 떠받들기 시작했다.

17세기말에 영국의 존 로크(John Locke/1632~1704)는 인간을 환경의 산물로 보았고,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구세주의 필요성을 인정치 않았다. 성서가 주장하는 계시와 기적과 교리들을 믿지 않았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의 법칙으로 주셨다고 믿었지만, 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한다고 믿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서 존 로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주의 한 모퉁이에 가두어 버렸던 것이다.[6]

미국의 제 2대 대통령 존 아담스(John Adams),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제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제 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벤자민 프랭클린

---

6) 자연신론은 에드워드 허버트(Edward Herbert/1581-1648)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는 진리의 기준을 개인의 이성에 의한 '보편적인 동의'에서 찾았으며 초이성적인 계시를 배척하였다. 또 인간의 자연적 본능에는 생래적(生來的)인 공통개념이 있다는 '공통관념설'을 근거로 온갖 기성 종교의 공통 본질에서 이성종교(理性宗教) 또는 자연종교를 끌어내어 종교의 합리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Benjamin Franklin)과 같은 사람들이 모두 존 로크에 영향을 받은 자연신론자들이었다. 토마스 제퍼슨은 성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미신이라고 말하면서 미신으로부터의 자유도 독립선언과 함께 주장하였다.[7]

계몽주의자들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경의 영감, 동정녀 탄생, 부활, 그리고 초자연적인 행위들을 미신으로 단정하였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성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계몽주의를 "인간의 능력을 만능으로 믿는 신앙에 기초한 체계다."라고 비판하였다. 임마누엘 칸트는 1793년에 발표한 *Religion Within the Bounds of Reason Only*에서 "계몽주의는 소수라는 자기 부과된 상태에서 인간이 탈출하는 것을 말한다. 소수자란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는 자기가 이해한 것을 십분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 . '당신 자신이 이해한 것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이것이 계몽주의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키워드(keyword)이다."

영국의 자연신론이나 독일의 계몽주의는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살라'는 메시지를 큰 목소리로 전하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성서의 가르침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성서는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인간은 부족하다,' '인간은 헛되다.' 고 가르친다. 그렇다고 성서가 '인간은 무능하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성서는 오히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한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말한다.

자연신론이나 계몽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인간을 높이 평가한다는데 있지 않다. 인간을 높이 평가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자연신론

---

7) Lonni Collins Pratt, "Is the United States a Christian Country?" *The Lookout*. June 30, 1991.

이나 계몽주의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종교의 왜곡된 가르침을 깨우치는 역할도 했다. 인간을 여러 가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역할도 했다. 문제는 이들이 인간이 누구인가를 왜곡시켰다는 점에 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죄인인 인간에게, 부족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뱀의 속삭임으로 인간을 속였다는 점에 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하였으며, 바벨탑을 쌓게 하였던 것이다.

자연신론은 하나님 없는 역사를 강조하였다. 계몽주의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으니, 인간은 홀로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세기에는 자연신론과 계몽주의 위에 진화론이 더해졌다. 헤겔(G. W. F. Hegel/1770~1831)의 변증법적인 철학의 기초 위에서 쓰인 찰스 다윈(Charles Darwin/1809-82)의 『종의 기원』(1859)은 하나님의 창조능력과 형상에 따라 지음 받은 고귀한 인간을 하나님 없는 동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고독한 짐승으로, 죽음을 숙명으로 알고 살아가야 하는 거대한 인간 조직의 톱니바퀴 정도로 인간을 전락시키고 말았다. 인간사회를 동물사회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다윈의 진화론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위한 폭력과 억압과 착취를 정당화시켰고, 하나님의 창조능력과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을 유물론적이고 기계론적이며, 숙명론적이고 인과론적인 동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19세기에는 또 무신론이 더해졌다. 포이에르바하(Ludwig A. Feuerbach/1804~1872)[8]는 종교를 인간의 자기분열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고, 또 자기가 만든 신에게 스스로 지배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종교폐기론을 내세웠다. 유물론자였던 마르크스(K. Marx/1818~1883)는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는 모든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말하면서 종교를 피압박 인민의 한숨이며, 무정한 세계의 감정이며, 영혼 없는 환경세계의 영혼이며, 인민의 아편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1844~1900)는 인간이 신 없이 죽음에 이르는 자

8) 『종교의 본질』을 1848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초청강의.

유 속에서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고 극복해야 하는 '초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로이드(Sigmund Freud/1856~1939)[9]는 종교란 원시시대 인류의 오디푸스 콤플렉스와 관련된 강박관념의 신경증세이며 소원성취 욕망의 객관적 투영이라고 주장했다.

20세기에는 세속인문주의가 더해졌다.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무시하고 인과율만을 인정하는 합리주의와 실용주의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교육철학자인 존 듀이(John Dewey/1859~1952)를 중심으로 세속인문주의를 탄생시켰다. 이들은 신과 종교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이들 세속인문주의자들의 사상은 그들이 1933년과 1973년에 각각 발표한 인문주의자 성명서(Humanist Manifesto)에 매우 잘 요약되어 있다. 이 성명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주는 창조된 것이 아니며 자존한다.
2.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진화에 의해서 발생되었다.
3. 영혼은 육체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4. 인간은 하나님 위에 있다. "계시, 하나님, 의식, 신조를 인간의 욕구나 경험 위에 놓는 전통적인 교조 또는 관료적인 종교들은 인종에게 해를 끼친다."
5.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초월자를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고, 의미도 없으며, 인류의 생존이나 성취 문제도 관련이 없다."
6. 어떠한 神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지만, 인간들은 현재와 미래의 존재상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떠한 신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7. 지옥이나 천국은 없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약속이나 영원한 저주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착각이며 해로운 것이다."
8. 사후의 삶은 없다. "삶이 육체의 죽음 후에도 살아남는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
9. 이성과 지성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성과 지성은 인류가 소유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다. 대용물은 없다. 믿음도 열정도

9)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및 교수.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충분치 않다."

10. "性분야에 있어서 정통 종교나 청교도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 규제적인 태도는 성행위를 지나치게 억압한다고 믿는다. . . . 착취적이고 불명예스런 성적표현 형태를 인정하지 않지만, 피차 동의한 성인들의 성행위가 법이나 사회여론에 의해서 금지되지 않기를 원한다. 다양하고 많은 성개발 자체를 악으로 생각돼서는 안 된다. 남에게 해가 되지 않거나 강요당한 것이 아니라면, 개개인은 그들의 성욕을 표현하며, 그들이 원하는 삶의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11. 인공유산 시킬 권리는 인정되어야 한다.

12. 이혼할 권리는 인정되어야 한다.

13. 안락사로 품위 있게 죽을 개인의 권리는 인정되어야 한다.

14. 유전공학, 시험관 아기와 같은 과학연구는 윤리, 정치,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서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10]

제2절 성경비평사 요약

크리스천 울푸(Christian Wolf/1679~1754)는 계몽주의 신학과 철학의 선구자로서 순수이성으로 절대진리를 추구하였다.

함부르크(Hamburg)의 인문대학원 교수인 라이마루스(Hermann Samuel Reimarus/1694~1768)는 영국의 자연신론에 영향을 받아 실존적 예수와 케뤼그마적 예수를 구분하였다. 계시를 거부하고, 기독교를 기만에 의한 설립이라는 주장과 시체도둑설을 주장하였다.

가불러(J. P. Gabler/1787)는 교리신학을 종교사학적 입장에서 본 성경신학과 구분하였다.

관념론자였던 헤겔(G. W. F. Hegel/1770~1831)은 정신이 물질을 지배한다고 말하면서 변화하는 만물, 곧 역사의 중심에 정신이 놓여 있다고 했다. 헤겔은 이 정신을 '절대정신' 또는 '세계정신'이라고 불

---

10) John Eidsmoe, *God & Caesar: Christian Faith & Political Action*(Westchester, Illinois: Crossway Books, 1984), pp. 131~139.

렀다. 그리고 헤겔은 역사를 이 절대정신의 변증법적 발전과정이라고 불렀다. 헤겔의 변증법은 진화하는 세계의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로써 세 단계로 설명된다. 첫째는 정립(these)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오성(verstand, 대상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능력으로서 모든 인식 작용의 출발점에서 작용함)은 우주의 상황 일부를 요약하거나 판단한다. 둘째는 반정립(antithese)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이성(vernunft)은 오성작용에서 생기는 추상적인 면을 폭로하고 비판한다. 이를 부정적 이성의 단계라 볼 수 있는 데, 여기서 멈추면 회의주의에 빠지게 된다. 셋째는 종합(synthese)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이성은 정립단계의 부분적 이해와 반정립단계의 부정적 비판을 종합하여 세계의 보다 큰 부분을 더욱 올바르게 파악한다. 그리고 정립과 반정립 속의 부분적 진리들은 종합 속에 보존되어 보다 전체적인 진리에로 나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철학이다. 이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철학의 영향을 받아 바우르(Ferdinand Curistian Baur/1792-1860)는 바울적 기독교(反)와 유대적 기독교(正) 사이의 갈등으로 2세기 고대 카톨릭 교회라는 합(合)이 나오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리츨(Albrecht Ritschl/1822-1889)과 그 후계자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순수한 영적 윤리적 종교로 해석하여 사회복음을 주창하였다. 따라서 역사적 예수는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와는 엄격한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윤리적 이상주의로 전락되었다.

성육신화 된 구세주가 전시대적 미신사상으로 전락되면서 성경역사에 진화론적 철학을 적용시킨 종교비평학이 등장하였고, 성경은 더 이상 계시와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 환경에 제한된 종교적 체험담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독일 시트라스부르그에서 신약학 강사(1902~13)를 지낸 앨버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1875-1965)[11]는 예수를 임박한 세계 종말에 대한 단 하나의 메시지를 가진 유대인으로써 묘사하였다. 이 예수는 기독교 신앙에 더 이상 역사적 근거를 갖지 않는다.

---

11) 아프리카 오고웨강가 람바레네에서 선교사로 일하였다.

불트만(Rudolf Karl Bultmann/1884~1976)은 성경적 세계관을 거부하였고, 역사적 예수와 케뤼그마적 예수를 완전히 구분하였다.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계시나 기적은 신화적이며, 역사는 인과원인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지나간 역사적 사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역사성 안에 나의 인간적 실존 안에 있다는 신해석(New Hermeneutics)을 주장하였다. 구 자유주의가 역사적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복음을 찾는 반면, 불트만은 시대적 가르침에 근거를 두고 중생, 영생, 칭의, 구원 등의 기독교적 관념들은 현대 실존철학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로 선포된 예수의 역사적 실존이 기독교적 고백의 의미와 내용인 만큼 그리스도의 사건은 매순간 구원의 사건으로 사건화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교리가 행동화됨을 말한다.[12]

결론적으로 이들 비평가들에 의한 성경관이나 예수관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가 아닌 인간의 종교체험 기록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성경 속에 기록된 기적이나 초자연적 역사들은 철저히 부정되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 예수는 성경에 묘사된 그리스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말해 성경에 묘사된 케뤼그마적 그리스도를 역사적 예수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고 말았다.

제3절 비평 방법론

성경비평방법은 역사비평방법과 문학비평방법으로 나뉘며, 역사와 문학 양편모두에 속하는 비평방법도 있다. 역사와 문학 양편 모두에 속하는 비평방법으로는 사회과학비평, 정경비평, 수사학비평 등이 있고, 그밖에도 성경필사본의 본문(text)을 연구하는 본문비평과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비평도 있다.

---

12) 죠지 래드, 『신약과 비평』 김만우 옮김(개혁주의신행협회), 45-59쪽.

역사비평방법은 본문에 대한 역사적, 고고학적, 혹은 문자적 배경과 그 본문의 기원을 연구하는 방법으로써 자료비평, 양식비평, 편집비평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와 같은 역사비평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본문의 발전을 연구한다고 해서 통시적 연구(diachronic)라고 부른다. 통시적(通時的) 연구의 주된 관심은 본문이 최초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에 있다. 따라서 저자의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문학비평방법은 최종 형태의 본문 자체와 본문에 내재된 다양한 본문적 요소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본문과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 등을 연구하는 방법으로써 구조주의비평, 설화비평, 독자-반응비평, 후기구조주의비평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를 공시적 연구(synchronic)라고 부른다. 공시적(共時的) 연구의 주된 관심은 본문에 대한 문학적 이해에 있다. 따라서 저자와 관련된 가설이나 저자의 의도는 항상 의심스럽기 때문에 의도의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13]

가. 본문비평(Textual Criticism)

본문비평[14]은 성경 텍스트의 여러 가지 상이(相異)한 것들을 연구하고 진본을 찾으려는 노력으로써 이를 하등비평이라고도 한다.

1450년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가 인쇄기술을 발명하기까지는 모든 책이 손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필사본의 단점은 정확도에 있다.

파피루스에 쓴 고문서들은 파손이 쉽기 때문에 이집트의 건조한 모래사장이 아니고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현존하는 신약성서의 파피루스 조각들은 약 76개 정도가 된다. 대표적인 것들로서는 라이랜즈 파피루스(P^{52}John Rylands/117-138년경. 요 18:31-33,37-38),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체스터 비티(P^{45-47}Chester Beatty/200년경), 그리고 보드머 파피루스($P^{66-72,75}$Bodmer Papyri)가 있다.

---

13) 스티븐 헤이네스, 스티븐 매켄지 엮음,『성서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 역사비평에서 사회과학적 비평을 거쳐 해체주의 비평까지』김은규, 김수남 옮김(대한기독교서회, 1997), 12~13쪽.

14) 죠지 래드,『신약과 비평』김만우 옮김(개혁주의신행협회) 참고.

현재 발견된 가장 오래된 성서들은 제본된 사본(Codex)들로서 양피지나 송아지피지에 쓴 것들이다. 대표적인 것들로서 바티칸 사본(B), 시내산 사본(א), 알렉산드리아 사본(A) 등이 있다.

고대 두루마리 책들은 다루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길이가 11미터 정도를 넘지 못했다. 발견된 두루마리로서는 사해사본 두루마리(Scrolls/1947년 발견)가 가장 유명하다.

작품에 사용된 고대 그리스 문체는 영어의 대문자와 비슷하나 띄어쓰기가 없고, 구두점이 없다. 이를 대문자 사본(Uncial)이라고 한다. 소문자 사본(Miniscule)은 9세기경에 쓰이기 시작했다.

장구별은 1228년경 켄터베리(Canterbury)와 랑톤(Stephan Langton) 대주교에 의해서 생겼다고 전하고 있으며, 절구별은 1551년 프랑스의 인쇄공이었던 로버트 스테판누스(Robert Stephanus)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대문자 사본(4-9세기)은 250개정도, 소문자 사본(9-15세기)은 2,800개 정도가 있다. 이 밖에도 고대어로 번역된 개역판 및 성구집들도 많이 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5,000여 개 정도에 이른다.

띄어쓰기의 예:

GODISNOWHERE ➡ God is now here.
God is no where.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 ➡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최초의 본문비평가라고 할 수 있는 학자는 네덜란드의 인문주의자이며, 문예부흥운동의 선구자였던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1466-1536/Free Will을 주장)이다. 그는 헬라어 신약성경을 최초로 1516년에 인쇄출판 하였다. 에라스무스가 주로 사용한 사본은 6개중 정확도가 떨어지는 12세기의 두개의 필사본이었다. 1611년 제임스 왕이 권위를 인정한 흠정역(1758년 요한 웨슬레는 KJV 신약에서만 12,000여 곳을 수정하였다.)은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약성경 즉 다수(Majority) 사본 혹은 비잔틴(Byzantine) 사본을 기초로 한 것이다.

가장 훌륭한 사본으로는 1859년 라이프찌히 대학 교수였던 티센돌

프(Tischendorf)가 시내산 밑 성 캐더린(St. Catherin) 수도원에서 발견한 시내산 사본(340년경/א)과 1475년부터 알려진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된 바티칸 사본이 있다. 웨스트코트(Westcott)와 홀트(Hort)는 1881년 이 두 사본을 중심으로 헬라어 성경을 만들어 냈으며, 영역 개정판(English Revised Version/1881-1885)이나 미국 표준판(American Standard Version/ 1901)은 다 그들의 책에 근거한 것이다.

오늘날 번역에 사용되는 대본(text)성경으로는 구약의 경우 *Biblia Hebraica Kittel*(BHK)과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BHS)가 있고, 신약의 경우 네슬·알란트의 *Novum Testamentum Graece*(NTG)와 세계성서공회연합회(The United Bible Societies)의 *The Greek New Testament*(GNT)가 있다. 위의 각각 두 가지의 구약과 신약의 원문 성경이 달리한 것은 주로 본문 비평장치(난하주)이며, 본문은 거의 동일하다.

발견된 모든 필사본은 사소하기는 하나 복사상의 오류를 가지고 있으며, 원본이 수중에 없다는 점에서 상이한 오류들을 연구하여 원본에 가장 가까운 성경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이 바로 본문 비평가들이 하는 일이다.

필사본의 오류는 주로 베끼는 사람이 본문을 정확히 읽지 않았거나 같은 단어로 끝나는 줄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을 때, 한두 줄 이상을 빠뜨리는 경우, 무의식중에 철자를 바꾸는 경우, 불러주는 글을 잘못 들었을 때, 또는 가장자리 글씨를(각주) 텍스트의 일부분으로 잘못 판단했을 때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나 필사자의 고의적인 오류도 있다. 이들은 필사자가 텍스트에 오류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의로 변경시키는 경우이다. 고의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의미에 별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고의적인 수정은 거친 표현을 훌륭한 문체로 다듬는다든지 복음서의 상이한 점들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구약의 인용구절들을 구약에 맞게 고친다든지 구절의 의미를 완전하게 하려는 노력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 밖에도 교리적인 이유로 고의적인 수정을 가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그 오류의 이유를 캐내는 데는 어

렵지 않기 때문에 본문비평의 문제해결은 비교적 쉽다. 본문비평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비교적 정확한(99.99%) 신약성경을 소유하고 있다. 본문비평에 의하면, 흠정역에 실린 마가복음 16장 9-20절의 말씀이 진본이 아니라는 결론이 지배적이며, 16장 8절로 끝나는 시내산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은 마가복음이 만들어진 후 얼마 안 가서 떨어지기 쉬운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쓰인 16장 8절 이하가 망가져 찢어지고 난 다음 복사된 사본에서 다시 복사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Metzger). 그러나 흠정역에 실린 요한복음 5장 3-4절과 7장 53에서 8장 11절까지가 시내산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에 없는 점에 대해서는 메쩌의 설명방식이 설득력이 없다.

1. 텍스트 계보(Text Type)

약 5,000개(파피루스, 대문자, 소문자, 성구집, 번역서 등을 모두 포함)의 헬라어 사본 대다수 가운데 후기 대문자 사본과 소문자 사본에는 고대 사본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 유사점들이 많은 사본들을 분류하여 그들의 계보를 찾음으로서 원사본을 찾아가는 노력이 텍스트 계보 작업이다. 19세기 말엽 켐브리지 학파의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홀트(F. J. A. Hort)가 이 작업의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가) 시리아 텍스트(Byzantine/395-1453년) 계보

안디옥의 루키안(Lucian/311년) 장로가 원문을 정리하고 편집한 사본으로서 흠정역의 기초가 된 '공인사본'(Textus Receptus)의 선조격이라 할 수 있는 사본을 말한다.

공인사본(TEXTUS RECEPTUS)의 유래는 에라스무스(Erasmus)가 1516년에 헬라어 신약성경을 최초로 인쇄로 출판한데서 시작되었다. 그 후 프랑스의 인쇄공이었던 로버트 스테파누스(Robert Stephanus)가 에라스무스의 성경에다 비판 자료들을 담은 최초의 헬라어 신약성경을 1550년에 인쇄 출판하였고, 데오도르 베자(Theodore Beza)가 에라스무스의 성경을 1565년에 시작해서 10판을 출판하였다. 그후

다시 네덜란드의 엘제비르(Elzevir)는 스테파누스의 성경을 근거로 1624년과 1633년에 헬라어 신약성경을 출판하였다. 엘제비르는 1633년판 서문에서 '공인사본'(Textus Receptus)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본은 비잔틴 사본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흠정역'(King James Version)의 원어성경이 되었다.[15]

나) 서방 텍스트 계보(Western Text Type)

웨스트코트(B. F. Westcott/1825-1901)와 홀트(F. J. A. Hort/1828-1892)는 시리아 텍스트보다 더 초기에 속하는 사본들의 계보를 분류하였는데, 이들에는 '서방 사본'(Western Text), '알렉산드리아 사본'(Alexandrian Text) 그리고 '중립 사본'(Neutral Text)이 있다.

이 가운데 서방텍스트 계보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포함하는 베자 사본(D/Codex Bezae/5c), 고대 라틴어 개역 사본들(Vulgate, 405년 제롬이 번역), 고대 시리아 개역본(160~170년경에 만들어진 Tatian의 종합복음서 Diatessaron과 5세기 공인번역본인 Peshitta) 등의 라틴계열의 서로마제국에서 생긴 사본을 말한다.

다) 알렉산드리아 텍스트 계보(Alexandrian Text Type)

구약과 신약 그리고 클레멘트1,2서와 솔로몬의 시편을 담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사본(A), 이집트(Egyptian/Coptic) 개역 등 헬라 계열의 동로마제국에서 생긴 사본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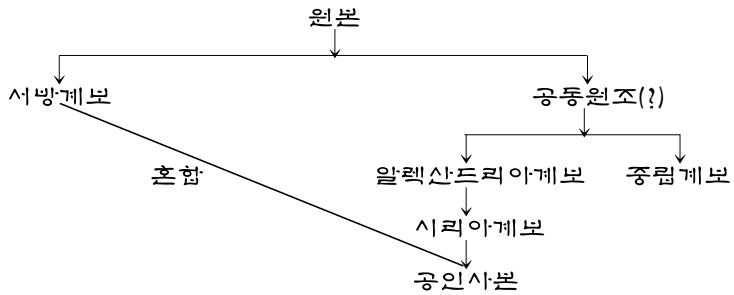
라) 중립 텍스트 계보(Neutral Text Type)

허마스의 목자, 신약 그리고 바나바서를 담고 있는 시내산 사본(א)과 구약과 신약을 담고 있는 바티칸 사본(B)을 말한다. 웨스트코트와 홀트는 이 사본들을 수정, 변경, 혼합과정에서 가장 때 묻지 않은 고

---

15) 흠정역(KJV)은 최초의 공인 영어성경이이긴 하나, 최초의 영어성경은 아니다. 가톨릭은 제롬의 라틴어 성경이외의 것을 금하고 있었지만, 존 위클립프(John Wycliffe/1320?-84),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1492?-1536), 마일즈 커버데일(Miles Coverdale/1488-1569) 등이 번역한 성경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대 사본들로 인정하였다. 또 웨스트코트와 홀트는 알렉산드리아 텍스트 계보와 중립 텍스트 계보는 공동의 원조에서 나온 후계들이지만, 중립 텍스트 계보가 그 원조의 형태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반면, 알렉산드리아 텍스트 계보는 서방 텍스트 계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수정되었다고 믿었다. 또 웨스트코트와 홀트는 1881-1882년에 두 권으로 된 헬라어 신약성경(*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을 발간하였는데, 이 성경에 의해서 1881년에 신약성경이 영어(*English Revised New Testament*)로 번역되었다.



결론적으로 성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이 기록한 해석과 신앙 고백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역사적 차원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평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비평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정확하게 이해코자 함이다.

나. 언어학적 비평(Linguistic Criticism)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의 언어라는 이중적 성질을 갖는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성령의 도우심과 믿음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고백한) 믿음의 글들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성서의 언어는 기록 당시의 역사적 삶의 상황과 사람들에 한정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언어를 현

대인의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16]

신약성서의 언어가 구어체인 코이네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까지는 고대 문어체 헬라어와 다른 성서 헬라어를 학자들은 히브리어의 영향 때문이거나 '성령의 언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성서가 당대의 살아있는 말로써 그 시대에 맞는 언어로써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고대 헬라어로 기록된 성서를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심어주게 되었다.

1. 중요 코이네 헬라어 용어 해설

신약성서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 몇 개를 살펴보고자 한다.

(1)δοχίμιον(시험/약 1:3; 벧전 1:7): 고대 파피루스에 의하면, 이 말은 '시험'이란 일차적인 뜻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결과'라는 이차적인 뜻을 갖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인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에서 '믿음의 시련'은 '믿음의 시련의 결과'임을 알게 되었다.

(2)"저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마 6:2,5,16): 이 말이 일상의 상업용어로써 '전부 갚아버린 빚'이란 뜻임을 알게 되었다.

(3)ἀρραβών(보증/고후 1:22; 5:5; 엡 1:14): 이 말은 '보증'이란 말로써 바울이 성령의 선물을 표현할 때 사용한 말이다. 이 말은 파피루스에 보존되어 있는 사업계약서에 등장하는 말로써 그 의미는 '계약금' 또는 '선금'을 뜻한다. 이는 우리의 구원(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약속', '보증', '인침', 혹은 '선취'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즉 성령의 능력 속에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미 '약속', '보증', 또는 '인침' 받았을 뿐 아니라, 현세에서 그 축복을 미리 맛보고, 체험하고, 누린다는 뜻이다.

(4)παρουσία(재림):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임재' 혹은 '존재'이다(빌 2:12). 이 말은 좁은 의미에서 여행자의 '도착'을 의미하기

16) 죠지 래드, 『신약과 비평』 김만우 옮김(개혁주의신행협회) 참고.

도 한다(고후 7:6). 헬라어 파피루스에 의하면, 이 말은 고위층 인사들, 특히 왕이나 황제가 자기 지방을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방문이 있을 때에는 소요되는 경비와 왕에게 씌울 관을 마련키 위해서 선택받은 그 도시나 지역의 주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관을 씌워 주시려고 출현하실 것이라는 바울의 말은 이해되어야 한다(살전 2:19; 딤후 4:8).

이들 몇 개의 설명들은 1세기의 평범한 헬라어의 진정한 역사적 의미와 성격을 오늘날 발견하게 된 것이 어떻게 신약원어의 뜻에 새로운 빛을 던져 주게 되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학적 비평의 결과로 사전이 편찬되고 신약용어 해설집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게르하르트 키텔(Gerhard Kittel)의『신약신학사전』이다. 구약의 경우 R. Laird Harris, Gleason L. Archer, Jr. Bruce K. Waltke,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Moody Press)가 나와 있다.

2. 아람어가 신약성서에 미친 영향

성경의 언어가 비록 평범한 지방어인 코이네 헬라어였다 하더라도 성경의 언어학적 연구는 팔레스타인의 평민의 언어였던 아람어와 구약 히브리어의 성경의 헬라어 개역인 70인역 성경을 무시할 수 없다. 예수 당시 팔레스타인은 유대와 그리스 문화가 혼합된 것으로써 복음서에도 이런 영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일제 36년의 압제 하에서 우리 민족이 받았던 혼합문화에서도 볼 수 있다. 특히 예수께서는 아람어로 가르치셨으며, 말씀하셨고, 초기 구전의 상태도 아마 아람어였을 것이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아람어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달리다굼(막 5:41, "소녀야 일어나라")

(2)에바다(막 7:34, "열리라")

(3)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막 15:3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4)마라나타(고전 16:22, 계 22:20, "주여, 오시옵소서")

구약의 히브리어의 영향으로는 할렐루야, 밧(눅 16:6, 액체측정단위, 6갤론=22.71리터 정도), 만나, 유월절, 안식일, 사탄, 호산나, 게헨나, 아바, 아멘, 등이 있다.

3. 히브리어가 신약성서에 미친 영향

(1)Χριστός: 구약의 메시아(מָשִׁיחַ)에서 유래.

(2)ψυχή: 헬라어 프쉬케(ψυχή)는 히브리어 네페쉬(נֶפֶשׁ)와 관련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①프쉬케: 영혼. 헬라어 프쉬케는 헬라의 이원론 사상에 따라서 육체에 상반되는 영혼의 뜻으로 쓰였다. 신약성경에서 프쉬케는 '혼', '영', '영혼', '사람(명)'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혼', '영', '영혼'은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뜻하는 다른 말이다. 프쉬케가 "삼천 명이나 늘어났다"(행 2:41)에서 '명'(사람)으로 쓰인 경우는 히브리 사상의 일원론에 영향을 받아서 되어진 것이다.

②네페쉬: 생동의 원리, 육체의 생명(히브리 사상은 일원적이며, 통합적인 인간을 의미한다. 즉 생명, 사람, 인간의 내면생활, 생명의 중심, 영혼 등을 의미한다. 이런 사상이 그대로 신약에 묻어나 있는 말이 헬라어 프쉬케(ψυχή)와 하데스(ᾅδης)이다.

이와 같이 신약의 구원론은 헬라의 이원론적 우주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일원론에 따라서 신약에 적용된 것이다. 신약에서 구원이란, 첫째 육체를 가진 영혼의 구원을 말한다. 둘째 신약에서 육체가 죽은 뒤에 영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점에서 헬라적이지만, 육체 없는 영혼의 구원만이 지복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는 잠정적 축복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구약에서도 이 중간상태를 스올(שְׁאוֹל, שְׁאֹל)이란 말로써 표현하고 있다.

(3)διαθήκη(계약): 이 말은 헬라어로 임종시 내리는 유언장을 의미한다.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은 약속 또는 계약을 말하며, 무조건적이다. 인간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축복을 말한다.

(4)ἱλαστήριον(화목제물): KJV는 '화해', RSV는 '속죄'로 번역하였다. 힐라스테리온은 헬라문학에서 인간이 신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바치는 화목제물(선물)을 말한다(C. H. Dodd).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힐라스테리온은 인간측에서 진노한 하나님에게 바치는 화목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당신의 진노를 푸신 것을 말한다. 따라서 힐라스테리온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말한다.

(5)μορφή와 σχήμα(빌 2:5-8): morphe는 형태(form) 즉 하나님의 본체 혹은 종의 형체와 같이 신성이나 인간성의 근본을 말하는 내적 본질을 나타낸다. schema는 사람의 모양(fashion)과 같이 인간성이 구현되어 있는 외면적 형태를 말한다.

(6)χρόνος와 καιρός: Chronos는 무한정 흘러가는 역사적인 시간을 말하고, kairos는 정한 시간(fixed time)을 나타낸다. 인류의 역사는 무한정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시간 속에서 움직인다. 그러므로 kairos적 시간 개념에서 볼 때, 사탄과 그의 활동은 어항 속의 물고기와 같다.

결론적으로 언어학적 비평은 1세기의 언어를 여러 각도로 연구하여 그 원뜻을 찾고, 그 뜻을 현대인의 감각에 맞도록 재해석하는 학문적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은 성서해석학상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다. 비교종교적 비평(Religionsgeschichte)

1. 주장

이 방법은 성경연구에 자연주의적 역사주의를 적용시키는 방법으로서 기독교나 유대교가 다른 고대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생성과정과 진화과정을 거쳤으며, 이러한 진화과정은 주변 종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히브리 종교는 단순히 고대 근동지방의 많은 종교 중의 하나로 연구되었으며, 그리스도의 교회는 나사

렛 예수의 가르침을 궁극적 근원으로 하며, 1세기 유대종교와 그레코 로망(Graeco-Roman) 종교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빌어다 혼합시켰다고 보았다.[17]

구약의 경우에 있어서 율리우스 벨하우젠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신의 계시의 매체로 보지 않고, 종교역사에 나타나는 진화론적 원리들이 작용한 결과로 보았다.

신약의 경우에 있어서, 불트만은 예루살렘의 초기 유대교회와 안디옥의 이방교회를 통한 예수 자신에서 바울과 요한에 이르기까지 신약에 나타난 예수에 관한 모든 사상은 변천하는 종교적 환경들, 특히 유대세계에서 이방세계로 옮겨간 교회의 움직임에 따라 역사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레코 로망(Graeco-Roman) 세계의 종교의 특색은 신비적이며 개인구원과 부활의 신화 그리고 그 종교의 신들을 주(Lord)라고 부르는 특색이 있었으므로 이방문화에 익숙한 안디옥 교인들은 기독교의 예수의 죽음, 부활, 승천교리를 쉽게 이해하고 믿었다고 불트만은 주장한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 예수는 이교도 배경 속에서 케뤼그마적 예수로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세주 사상도 근동지방의 신화(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신화[18]) 즉 죄지은 인간을 구원했고, 그를 다시 타락하기 이전

---

17) 죠지 래드,『신약과 비평』김만우 옮김(개혁주의신행협회) 참고.

18) 자라투스트라(Zarathushtra, 영어로는 Zoroaster)를 개조(開祖)로 하는 아후라 마즈다를 신앙하는 마즈다예배교(Mazdayasna)이다. 다리우스 1세 이래의 여러 왕의 비문에 아후라 마즈다에 대한 신앙이 표명되고 있다.

태초에 대립하는 두 영(靈)이 있었는데, 아후라 마즈다의 성령인 스펜타 마이뉴는 생명과 빛을, 사악한 영 앙그라 마이뉴는 죽음과 어둠을 택하였다. 우주는 이 양자의 싸움터로 창조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은 선사(善思)·선어(善語)·선행(善行)의 3덕을 쌓아야 하며, 사후에 영혼은 천국의 입구까지 와서 올바로 믿은 자는 그곳에 있는 다리(칼이라고 한다) 위를 안내자의 인도로 무사히 건너 천국에 들어가나, 거짓으로 믿은 자는 발을 헛디뎌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한편 조로아스터가 가고 3,000년이 되면 세상의 종말이 오는데, 이 때 사오슈얀트라고 하는 구세주가 나타나고, 천국과 지옥에서 모든 인간이 부활하며, 산자와 더불어 녹은 금속으로 덮인 대지를 통과하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선한 자들은 새로운 세계에서

의 빛의 세계로 되돌리기 위하여 빛의 세계에서 온다는 하늘의 구원자에 대한 신화에서 유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불트만은 신비적 구원의 신화와 영지주의 신화가 합하여 신약사상의 배경을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즉 죽었다가 살아나는 숭배신(신비종교)의 사상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온다는 하늘의 구원자라는 사상(영지주의)과 혼합되었다는 것이다. 이 양자의 신화는 또 유대의 인자라는 유대신화에 덧붙여져 재림사상으로 발전하였다고 비약한다.[19]

김창길은 유대교회와 헬라교회가 예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신앙을 가졌다고 주장하여 팔레스타인 지방의 나사렛 출신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역사적 예수와 교회에 의해 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인자, 구원자로 선포 당하는 신앙의 그리스도 예수를 구별코자 하였다.

김창길은 유대교회가 예수를 메시아와 인자로 보았고, 예수의 미래를 재림에서 기대함으로서 유대교적 신앙고백을 구체화시켰고, 헬라교회는 예수를 제의(祭儀)를 통해서 예배를 받는 주로 보았고, 예수의 현재를 영의 작용에서 체험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유대교회 신자들은 임박한 세계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메시아 통치를 기대함으로서 종말론적 긴장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비해, 헬라교회 신자들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를 중심으로 하여 제의적 축제의 밀의적 신앙에서 각성되는 경험에서 삶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빌립보서 2장 6-11절의 그리스도 찬가와 고린도전서 11장 23-26절의 성만찬 의식은 헬라교회 예배의식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20]

구 자유주의 신학에서 리츨은 예수상을 재구성하여 그를 위대한 종교적 천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윤리교사로서

영생을 누린다고 한다.

19) Rudolf Bultmann, 『공관 복음서 전승사: 문헌사적 연구』 허 혁 역 (대한기독교서회, 1989).

20) 김 창길 엮음, 『공관 복음서 대조비교』(도서출판 임마누엘, 1988), s.v. "머리말".

묘사하였으나, 앨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를 윤리적 교사와 종교적 천재가 아닌 유대 묵시적 사상에 사로잡힌 보통의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예수는 이 세상에 곧 천지개벽의 종말이 올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묵시적 예언자로서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임박한 이 심판을 대비시키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결코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사건을 외쳤던 유대의 한 묵시적 예언자가 바로 역사적 예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망상에 사로잡힌 유대의 묵시적 예언자는 기독교 신앙의 원천이나 근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서 역사적 예수는 그의 유대 종교적 환경에 비추어서 재해석되고 말았다.

2. 비평

예수를 1세기의 묵시사상에 따라 해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예수는 미래의 계시적 사건을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자신을 통하여 일어난 신적인 사건을 주장하였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며(미래종말), 계시적이면서도 예수의 인물됨과 그의 말씀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시작되었고, 현존해 있다(현재종말)는 것이 성서적 가르침이다. 마태에 의하면, 예수는 왕이셨고, 왕의 현존은 곧 그의 나라의 현존을 의미한다. 그가 왕이셨고, 그의 나라가 현존했다는 증거는 그의 말씀과 행동의 권위에서 나타났다. 그의 권위는 바리새인들과 모세와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것이었다.

인자라는 말은 공관복음에 69회 나오고, 요한복음에 13회 나온다. 반복부분을 제하면 공관복음에 39회가 나온다. 여기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13회를 추가하면, 예수는 자기를 가리켜 52회나 인자라고 하였다.[21]

인자란 아람어 '발 에나쉬'(בַּר אֱנָשׁ)의 직역이며, 인간이란 의미로 사용되었다(민 23:19; 시 144:3). 이 말은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를 부

21) Jeremias, *New Testament Theolog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 1971), pp. 259f.

를 때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신 호칭이었다. 단지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스데반이 한번 예수를 가리켜 인자라는 말을 쓰고 있을 뿐이다. 이는 인자라는 말이 초대교회가 예수에 대해서 사용한 말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사용한 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예수는 인자와 사람을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예수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인자와 사람이 구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수를 주(מָרָא)라고 부른 것이 유대교회에서가 아니라, 단지 헬라교회에서만 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사용된 주(Mar)는 아람어로서 유대교회가 예배문에서 사용했던 말이 아람어 그대로 헬라세계인 그리스 남단의 고린도교회에 전승되었으며, 예수를 주라고 부른 것이 유대교회의 성만찬 기도문에 너무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라는 아람어 명칭이 헬라어를 말하는 회중에게 완전히 종교적 의미를 지닌 채 아람어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에서 사용된 아람어 주라는 말은 '마라나타'(מָרָנָא תָּא/ Μαρανα Θα: Lord, come: Our Lord is come)에서 온 말로써 16장 22절과 『디다케』 10장 6절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아람어이며, 바울이 이 아람어 용어를 쓴 것은 유대교회가 이미 이 용어를 공식용어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22]

'마라나타'는 성서가 보존한 가장 오래된 성만찬 기도문에 포함된 말로서 요한 계시록에서는 헬라어로 번역되어 나타나고 있다. '마라나타'는 성만찬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원함으로써 성만찬을 통해서 미래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미리 앞당겨 그의 임재를 미리 맛보

22) Gerhard Kittel,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s.v. "maranatha".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심판의 계곡"에 있는 일세기 매장굴 내부에서 "주 예수께"와 "승천하신. . . 예수"라고 새긴 글이 이스라엘 고고학자 엘리에제르 L. 수케니크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는 표지로서 설명될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은총과 평화를 비는 인사말(1:5-6)에서부터 '마라나타'라는 끝맺는 기도와 마지막 축사(22:20-21)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의 제의적 관례를 암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6장 20-24절에 나타난 평화의 입맞춤과 마라나타 그리고 축도로 구성된 마지막 인사말을 두고 로빈슨(J. A. T. Robinson), 리츠만(H. Lietzmann), 보른캄(G. Bornkamm), 그리고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같은 학자들은 "최초의 기독교 예배 순서의 흔적" 즉 "서신의 결미를 장식하는 상투적인 용법일 뿐 아니라, 한 예배 공동체가 다른 예배 공동체에 보내는 인사, 즉 성찬을 들기 위해 모인 성도들 간의 대화"라고 주장하고 있다.[23]

기독교 구세주 사상이 영지주의의 산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학자들은 고대 자료 중의 어느 것도 기독교 이전 시대에 하늘의 구원자에 대해서 적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이들 영지주의 신화

---

23) Robert E. Webber, *Worship Old and New*(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2), pp. 50-51.

성찬의 전례

봉헌송→신자들의 봉헌→빵을 바치는 기도→포도주와 물의 혼합→포도주를 바치는 기도→정결의 기도→향을 드림→기도에의 초대→봉헌기도

인사의 교환

사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신자: 또한 사제와 함께.

사제: 마음을 드높이!

신자: 주를 향하여!

사제: 우리 주 천주께 감사합시다.

신자: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감사송 전구

성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천주여,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우리 의무요 구원이로소이다.

감사송: 전례력에 따라 발전된 고유한 기도문이 이어진다.

삼성창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온 누리의 주 천주!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성찬 기도

는 후기독교적 모방품이라고 한다.[24]

결론으로 종교비평가들은 계시 속의 하나님의 행위는 조금도 인정하지 않은 채 종교적 진화설에 근거하고 있으며, 진보적인 독일 비평 그룹 말고는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다.[25]

라. 양식비평(Formgeschichte)

1. 양식비평의 발생이유

자료비평(문서설)의 대상은 입수된 문서자료에 한정된다는 약점 때문에 양식비평가들은 마가복음과 Q자료의 기원을 연구하려고 하였다. 양식비평가들은 예수 승천 후 30-50년간의 공백기간에 있었던 구전시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26]

양식비평은 예수에 관한 마가복음의 기록이 역사성이 없다는 견해로부터 출발하였다. 브레데(W. Wrede)는 마가복음의 '메시아적 비밀'을 마가가 창작해 낸 것으로 주장하였고, 벨하우젠은 초기 전승이 기독교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양식비평가들로 하여금 복음서 기록의 많은 부분들이 기독교 공동체의 조작품으로 보게 하였다. 슈미트(K. L. Schmidt)는 마가복음은 연대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예수의 생애를 전기적으로 재구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예수의 생애의 역사적인 대강의 줄거리는 마가가 별개의 설화들을 수집하여 연결 고리로 꿰어 나간 것이며, 복음서에 나타난 순서, 시간, 장소 등은 전혀 역사적인 것이 아

---

24) R. McL. Wilson, *The Gnostic Problem*; and Hugh Anderson, *Jesus and Christian Origins*.

25) 죠지 래드,『신약과 비평』김만우 옮김(개혁주의신행협회) 참고.

26) 죠지 래드,『신약과 비평』김만우 옮김(개혁주의신행협회) 참고; --------,『신약과 비평』165-199쪽. Donald Guthrie, *New Testament Introduction*, 121-236쪽; s.v. "공관복음서문제"; 루돌프 불트만,『공관복음서 전승사』허 혁 역(대한기독교서회); 샤이먼 키스터메이커,『현대의 복음서 연구』60-77, 96-118쪽; A. M. Hunter,『신약성서 개론』(컨콜디아사), 46-47쪽.

니며 믿을 것이 못된다고 주장하였다(1919년).

양식비평은 복음서를 현대화하려는 욕망에서 출발하였다. 이 방면에서의 불트만의 비신화화와 재해석의 노력은 성서의 권위를 크게 추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양식비평은 복음서의 기사들을 그것들의 역사적 상황 즉 삶의 정황(Sits im Leben) 속에서 평가해 보려는 강한 동기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복음서의 배경을 역사적으로 탐구하려는 노력이었으나 복음서를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경향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역사적 예수에 대한 불가지론을 주장하게 하였고,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복음서의 그리스도와는 별개 인물로 강조하였다.

2. 양식비평의 대표적인 학자들

①카를 루트비히 슈미트(Karl Ludwig Schmidt/1891~1956)--대표작으로『역사적 예수의 구성』(*Der Rahmen der Geschichte Jesu*, 1919)이 있으며, 복음서를 저자들이 제멋대로 꿴 전승 자료들의 수집이란 관점에서 출발하였다(collections of pericopae, units of oral tradition).

②마르틴 디벨리우스(Martin Dibelius/1883~1947)--대표작으로『복음서 양식사』(*Die Formgeschichte des Evangelium*, 1919)가 있으며, 교회와 그 필요에 대한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③루돌프 불트만(Rudolf Bultmann/1884~1976)--대표작으로『공관복음서 전승사』(*Die Geschichte Der Synoptishen Tradition*, 1921)가 있으며, 전승부분의 분석에서 출발하여 '삶의 자리'(Sitz im Leben) 즉 자료의 성립과 개작(改作)의 자리를 교회 안에서 찾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3. 양식비평의 유형들

가) 선교설교이론

마르틴 디벨리우스는 초대교회 전승들은 선교적인 필요성에 따라 설정되었고, 설교 속에 존재하였으며, 후에 발전된 양식에 첨가되었다고 하였다. 다음은 디벨리우스가 말하는 구전으로 보존된 양식의 종류들이다.

(1)예증들(Paradigms): 짧은 기사들로서 끝 부분은 예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중풍병자 치유와 이삭 잘라먹은 이야기가 여기에 속한다. 예증들은 주로 설교자들에 의해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2)설화들(novellen or tales):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서 말씀의 첨가가 없으며 세속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으며, 이야기꾼들에 의해서 창작되었다고 주장한다. 문둥병자 치유와 광풍진압이 여기에 속한다.

(3)어록들(sayings): 교리문답을 목적으로 한 어록을 말한다.

(4)전설들(legends): 최후만찬, 수난사, 부활설화, 소년예수, 베드로의 신앙고백 등을 전설로 구별하였다.

(5)신화들(myths): 예수의 세례, 시험, 변화산 이야기 등을 신화로 구별하였다.

이와 같이 복음서의 내용을 다섯 가지 양식(forms)으로 구별한 디벨리우스는 이들 양식들이 설교자, 교사, 이야기꾼에 의해서 보존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복음서의 내용을 전설이나 신화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역사적 예수의 말씀과 행위들이 구전기간 동안에 설교(Kerygma)와 교육(Didache/학습세례)의 형태로 반복되었을 것이며, 그 내용들이 주로 복음서에 보존되었을 것이다.

나) 기독교 조작(상상)이론

불트만은 1884년 독일 비펠스테트(Wiefelstedt)에서 독일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할아버지의 친가가 다 목사였다. 튜빙겐에 등록한 후 베르린과 말부르크에서 하르낙(A. Harnack)과 홀츠만(H. J. Holtzmann)의 영향하에서 수학하였다. 그러나 그는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고, 하이데거에 깊은 영향을 받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리스도와의 실존적 만

남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역사적 예수는 또는 그에 대한 역사적 증거는 분명 아무 의미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설교 즉 종교적 진리뿐이라고 하였다. 그는 말부르크 대학에서 1921년부터 1951년 그가 은퇴할 때까지 그곳에서 교수하였다.

불트만은 부활사건을 전후해서 역사적 예수와 케뤼그마적 예수를 뚜렷하게 구별하였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생애는 역사적인 보도가 아니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창작 또는 신앙고백이라고 주장하였다.

디벨리우스와의 차이는 불트만이 디벨리우스의 예증과 설화를 아포프테그마와 이적설화로 구분한 점이다. 디벨리우스는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이 예수의 말씀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예수의 말씀들이 공동체에 의해서 임으로 창작되었다기보다는 충실하게 해석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들 두 학자들은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정하였고, 이들에 대한 기록도 역사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예수의 어록 부분에 대해서 불트만은 교회가 세속적인 지혜(Logion)의 말씀들을 사용하여 그것들이 예수의 말씀인 것처럼 기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불트만은 약 40절의 말씀과 예수의 출생,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 등은 사실로 받아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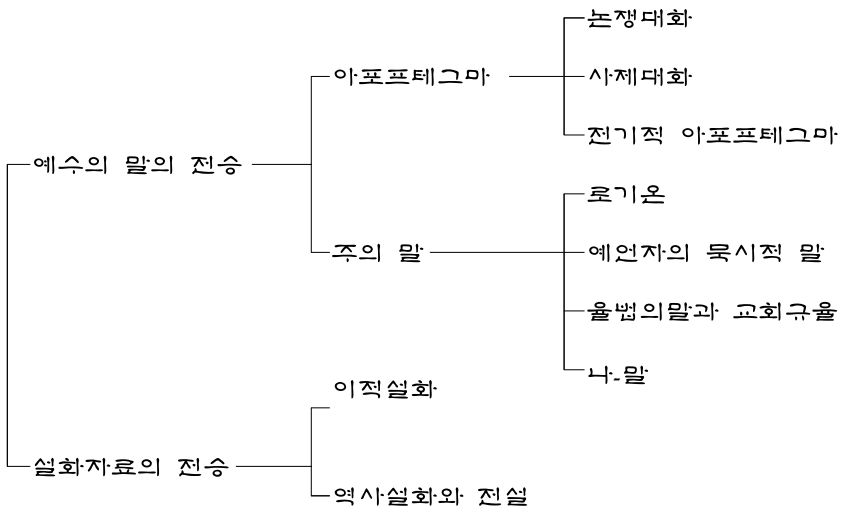
불트만의 양식구분은 다음과 같다.

(1)아포프테그마(apophthegma)

불트만은 아포프테그마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들이 논쟁 대화, 사제 대화, 그리고 전기적 아포프테그마이다. 아포프테그마는 그리스 문학사에서 사용되는 중립적 성격의 용어로써 사화로 취급될 수 있는 전승부분, 즉 어떤 간단한 장면에서 파악되는 예수의 말이 핵심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아포프테그마라 부른다.

①**논쟁대화**: 불트만은 예수의 말을 역사적 사실의 보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념을 구체적 장면에서 구상적으로 표현하는 작품 즉 이상적 작품으로 보았다. 불트만은 논쟁 대화에서 실제적 삶의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팔레스타인 교회의 변호와

공격이란 삶의 자리(Sits im Leben)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안식일에 마른 손을 고치심, 막 3:1-6;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이야기, 막 2:23-28; 세리 집의 만찬, 막 2:15-17). 그는 토론의 방법이 전형적인 랍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보았고, 논쟁 대화의 출처를 율법문제에 관한 교회의 토론 즉 교회의 주의 말, 교회의 사상과 기본 명제를 논쟁 대화 형식으로 꾸민대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입장에서 디벨리우스의 예증설(paradigms)을 부정하였다.



②사제대화: 사제대화는 논쟁대화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승된 주의 말이나 교회의 생각을 논쟁 대화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사제대화는 랍비적 사제 대화와의 유사성 때문에 팔레스타인 교회(P)의 산물로 보았으며,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12장 13절 이하, 9장 51-56절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의 말씀은 헬라교회(H)가 팔레스타인교회의 것을 후대에 발전시킨 것으로 보았다(부름사화, 막 1:16-20; 참 친족, 막 3:20이하; 고향에서의 배척, 막 6:1-6).

③전기적 아포프테그마: 예수의 전기적인 아포프테그마는 유대교의 랍비 전통과 고대 그리스-로마 전기 형태를 지닌다고 보았다.

이는 예수에 대한 역사적인 보도이기보다는 이상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2)주의 말(Ich-Wort)

불트만은 주의 말씀을 크게 네 가지, 즉 좁은 의미에서의 로기온(지혜와 격언), 예언적 묵시적 말, 율법의 말과 교회 규율, 그리고 나-말로 구별하였다.

①로기온: 불트만은 로기온의 형식을 기본명제(서술형.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마 6:22이하), 경고의 말(명령형. "의원아 너를 고쳐라," 눅 4:23), 그리고 질문("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마 6:27)으로 나눈다. 이 로기온은 구약적이며 유대적인 지혜 격언(잠언)의 형식이 기독교 전승에 삽입되어 개작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통속적인 격언 혹은 민속적인 지혜문학이 기독교 전승에 받아 드려졌으며, 예수의 말로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②예언자적 묵시의 말: 구원의 설교("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눅 14:15), 위협의 말(부자들에 대한 저주, 눅 6:24-25), 경고의 말("깨어 있으라," 눅 21:34-36) 그리고 묵시적 예언("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막 13:2)으로 나누며, 기독교적 전통이 유대교적 유산을 받아 들여 그것을 예수의 말로 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③율법의 말과 교회 규율: 이들은 보다 후기에 속한 것으로서 일부는 유대적인 격언을 수집하여 적절하게 조화시켜 기독교적 교훈으로 받아들여 예수의 말로 전한 것이며, 일부는 교회에 의해 독립적으로 창작된 말이라고 주장한다("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막 3:4).

④나-말: 나-말은 팔레스타인 교회에서 처음 작성되었지만, 대부분의 나-말은 헬레니즘 교회의 작품이라고 주장한다("내가. . . .," "인자가. . . .").

(3)이적설화

불트만은 복음서의 기적 행위가 예수의 메시아적 능력 혹은 신적 권능을 증거 하는 표적으로서 역할 한다고 보며, 역사적인 사실을 일부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적 사화 자체가 역사적인 보도가 아니라, 전승 작업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종교사적 측면에서 예수의 기적 행위는 그리스-로마 전기문학의 형식에서 볼 수 있는 영웅의 생애와 같이 예수의 신적 권능을 증거하기 위한 교회의 작품이라고 본다. 여기에는 병고침과 자연 이적이 포함된다.

(4)역사설화와 전설

전설은 이적적인 내용도 포함하지만, 성만찬 제의와 같이 이적과 관계가 없는 내용도 있다고 보았다. 전설에는 전기적 전설과 신앙 혹은 제의적인 전설이 있다고 보았다. 또 역사 설화는 전설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역사설화와 전설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불트만은 이러한 설화와 전설이 교회의 교리와 변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에는 세례, 예루살렘 입성, 수난사(수난 전승사), 부활사화 그리고 전(前) 사화 즉 예수의 유년시절 이야기가 포함된다. 이들 가운데에는 예배의식에서 성장된 사화도 있다고 보며, 유대주의적인 영향과 헬라적인 영향을 모두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 자세한 불트만의 사상은 이미 설명한 복음서 장르와 비교종교사비평을 참고하기 바란다.

4. 양식비평에 대한 일반적인 비평

(1)양식비평의 제한적 가치를 인정하는 바실 레트리히(Basil Redlich)는 양식비평가들이 설정한 여섯 가지 가정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①복음서 이전의 구전시대가 있었다.

②수난기사를 제외한 기사들과 말씀들이 독립된 단위들(單話/pericope) 혹은 양식들로서 구전시대에 회람되었다.

③복음서 자료들은 문학양식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다.

④양식들을 생산하고 보존시킨 주된 요인들은 기독교 공동체의 실제적인 관심 속에서 발견된다.

⑤전승들은 연대기적 및 지리학적 가치가 전혀 없다.

⑥전승들의 본래의 양식은 재구성될 수 있다.

(2)복음주의적 측면의 비평

①구전은 예수로부터 시작되어, 목격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그들에 의해서 통제된 상태 하에서 구전시기에 회람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마 15:2; 고전 11:2; 살전 3:6; 살후 2:15; 유3). 그러나 양식비평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헌터(A. M. Hunter)는 양식비평가들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목격자들의 증언과 목격자들의 초기 전승에 대한 신빙성과 약 30~50년의 짧은 구전시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27]

②에드가 구드스피드(Edgar J. Goodspeed)는 마태가 예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필기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28]

③훌륭한 율법사는 장로들의 유전을 "한 방울도 잃어버리지 않는 완전히 밀봉된 물탱크"(Pirke Aboth 2:10)와 같다는 말은 유대교육이 완벽한 암기식 전달이었음을 상기시킨다.

④죠지 래드(George Ladd)도 복음서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사건발생과 사건 기록사이의 짧은 30~40년 기간, 설화를 보존하는데 있어서의 증인의 역할, 권위 있는 사도의 역할, 그리고 성령의 역할을 무시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5. 양식비평의 가치

양식비평이 가진 많은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극히 부분적이나마 그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 아래에 열거한 여섯 가지는 양식비

27) A. M. Hunter,『신약성서 개론』컨콜디아사, 46-47쪽.

28) Edgar J. Goodspeed, *Matthew, Apostle and Evangelist*, 1959.

평이 공헌한 점으로 긍정도 되고 부정도 될 수 있는 것들이다.

①자료비평의 문제점을 보강한 점.

②공관복음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구전시대에 주목한 점.

③수집된 주의 말씀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한 점.

④복음서에 기독교 공동체가 추가한 내용이 있다고 밝힌 점.

⑤복음서의 기원을 밝히도록 고무시킨 점.

⑥복음서 해석에 일부 공헌한 점.

6. 브레데의 '메시아 비밀'(Messianic Secret)

가) 자료

W. 브레데, *Das Messiasgeheimnis in den Evangelien: Zugleich ein Beitrag zum Verständnis des Markusevangeliums*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01); *The Messianic Secret*, tr. J. C. G. Grieg (London: Jamei Clarke, 1971).

나) 주장

브레데의 '메시아 비밀'[29]은 하나의 가설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예수의 메시아직은 공생애 기간에 전혀 거론된바 없는 비밀이었으며, 예수는 결코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지 않았다. 예수의 메시아 신앙은 부활 사건 후 교회의 신앙고백에서 나온 교회의 작품이다. 마가는 예수를 메시아로 주장하고 있지 않은 부활이전의 전승과 예수를 메시아로 주장하는 부활이후의 전승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역사적 사실과 그들 신앙공동체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던 신앙과의 모순을 좁히기 위해서, 소위, '메시아 비밀'이라는 것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마가는 예수가 처음부터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았으나, 그것을 자신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는 비밀로 하였음으로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29) 김득중, 『마가복음 연구』(도서출판 나단), 195-200쪽.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가복음 1장 34절, 8장 30절, 그리고 9장 9절 등에 나타나는 메시아의 비밀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을 대표하는 마가의 조작, 또는 이미 예수를 메시아로 부각시키고 있었던 전승 자료들에 대한 마가의 신학적 편집 작업의 결과라는 것이다.

다) 비판

브레데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다양한 비밀 모티브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면이 없지 않다. 그가 주장한 '메시아 비밀'은 여러 가지 형태로 비판을 받고 있다.

①제임스 던(James Dunn): 예수께서 침묵을 명령하신 것은 그가 메시아임을 발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적 행사자로 잘못 인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마가복음에는 '메시아 비밀'보다는 오히려 '선전 모티브'(publicity motif)가 강하다.[30]

②악트마이어(Paul J. Achtemeier): 마가복음에는 '인기 모티브'(popularity motif)가 강하다.

③테일러(V. Taylor): 마가 이전의 전승 자료들 가운데에도 이미 '비밀'이 주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콘젤만이나 제임스 던과 같은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예수 자신에 의해서 메시아로 제시되었다.[31]

④R. 마르틴(R. Martin): 예수의 생전에도 그를 메시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32]

⑤A. 슈바이처(A. Schweitzer): 예수의 생전에도 그를 메시아로 믿는 의식이 있었다.[33]

---

30) James Dunn, "The Messianic Secret in Mark," *The Messianic Secret*, ed. by C. Tuckett(Fortress Press, 1987), p. 129.

31) V. Taylor, "W. Wrede's The Messianic Secret in the Gospels," *ExpT* 65(1953-54), pp. 248-249.

32) R. Martin, *Mark-Evangelist and Theologian.* pp. 94-95.

33) A. Schweitzer, "The Messianic Secret in Mark," *The Messianic Secret*, ed. by C. Tuckett (Fortress Press, 1987), p. 7.

⑥서중석: 제자들에 대한 예수의 비공개적인 교훈은 '메시아 비밀'이 아니라, 마가 공동체의 내적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신학적인 전략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피하신 것은 휴식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마가복음 여러 곳에서는 자신의 기적 행함을 공개적으로 알리도록 명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마가의 '비밀' 주제는 예수의 메시아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직의 독특한 역할과 그 역할이 마가 공동체에 갖는 기능과 관련된 것이다. 마가 공동체에게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무기력한 예수, 조롱거리였던 예수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와 같이 박해와 처형에 직면한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였으며, 이 사실을 신앙공동체 밖에 있는 비신앙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비밀이었던 것이다. 비록 신앙공동체가 세상 편에서는 박해와 조롱을 당하는 패배자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승리자였던 것이다. 이러한 신앙적인 신념을 마가 공동체는 비밀리에 교환하고 있었던 것이다.[34]

7. 불트만의 비신화화 신학(Demythologization)

가) 자료

Rudolf Bultmann, *Jesus Christ and Mythology*(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35쪽 이하.

나) 주장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복음서를 구성했고, 예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구성에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상징들은 종교적 진리를 신화론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여기서 상징들이란 동양적 상징(조로아스터교)과 종교적 신화(그리스-로마)로서 이는 허구에 불과한 것이며, 복음서 설화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

34) 서중석, "메시아 비밀이냐 비밀공동체의 자기이해냐: W. 브레데의 『메시아 비밀』가설 비판," 『신학사상』 제 56집, (1987년 봄호), 196-209쪽.

다) 비판

불트만이 말하는 신화란 어떤 상상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는 계시(성육신), 동정녀 탄생, 기적, 부활 그리고 재림 등을 믿지 않았다. 불트만의 비신화화는 복음서의 신화적인 내용의 재해석을 의미한다. 복음서의 신화를 제거함으로서 현대인의 지성에 맞도록 신약의 메시지를 재해석하자는 것이었다. 즉 신화를 제거하자 함은 신화를 말살하기보다는 과거시대의 세계관인 성경의 세계관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재해석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불트만의 이러한 사상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보고 듣고 해석한 기독교의 신앙 고백적인 많은 요소들을 미신화 시키고 제거함으로서 기독교를 가현설적으로 만들고 있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파괴하고 있다.

라) 보충

불트만의 비신화화(非神話化/demythologization)가 틸리히에서는 비문자화(非文字化/deliteralization)로 나타나고, 블로호에서는 비신정화(非神政化/detheocracization)로 나타나고 있다.

불트만은 기독교의 메시지가 신화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과학에서는 그것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화 속에 함축되어 있는 실존적, 역사적 의미를 해석해 내야 그것이 비로소 오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불트만은 성서에 대한 실존론적 해석을 모색하고 이것을 신학의 과제로 삼았다.

틸리히는 삶의 실재와 체험은 신화라는 초인식론적 구조, 곧 주관과 객관의 인식 이원론적 구조를 초월한 형식으로밖에는 달리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신화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상징으로 받아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틸리히는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실존론적으로 해석하자는 탈문자화를 주장하였다.

에른스트 블로호는 신화를 전적으로 사회학적, 정치학적 관점에서 해석한다. 블로호는 신화를 신정지배체제하에서 민중을 억압하고 지

배하던 왕권체제 수호와 합리화의 산물로 보고, 신화의 탈을 벗겨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길을 모색하자고 주장하였다. 곧 신화의 해석을 통해서 왕들의 독재체제의 횡포를 폭로하자는 것이다.[35]

8. 불트만의 종말론(혹은 역사) 이해

가) 불트만의 종말론

종말론은 불트만 신학의 중심적 개념이며 그의 역사이해에 있어서 결정적인 원리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불트만의 역사이해는 종말론적인 역사이해이다.

불트만의 종말론은 현재적 종말론이다. 그는 종말을 미래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현재적인 것으로 곧 개인의 실존을 의미하는 구체적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불트만의 역사는 개인 실존의 역사이다. 이 역사의 성서적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있으며,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미래적 종말은 현재적 사건으로 언제나 다시금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신약성서의 역사이해는 묵시 문학적 미래종말을 비신화화 하여 실존론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불트만은 구약성서의 역사이해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메시아사상에 근거한 역사이해요, 둘째는 후기 유대교의 묵시문학적인 역사이해이다. 전자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세계통치를 꿈꾸는 정치적 지상 메시아왕국에 근거한 민족사이며, 후자는 세계사 전체를 포괄하는 우주적 회복과 세계 심판에 근거한 묵시 문학적 역사이해이다.

불트만에 의하면, 신약성서를 지배하는 역사이해는 후자 곧 묵시문학적인 역사이해이다.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종말론적이며, 구약예언이 성취될 시기로 보았다. 따라서 예수는 "그의 등장의 시간"을 "결단의 시간"으로 이해하였으며, 그의 인격과 선포에 대한 결단 여하에 따라 각 개인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

35) 송기득, 『신학개론』(종로서적, 1986), p. 28.

또한 예수는 묵시 문학적 전통에 따라서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예수의 선포는 다윗 왕국의 회복을 근거로 하는 정치적 집단적 민족사로 보기보다는 묵시 문학적 역사이해에 근거한 전 세계 민족을 포함하는 영적 개인적 역사로 보고 있다.

초대 교회는 예수의 이 종말론적 선포 내용을 받아들였으며, 묵시문학의 전통에 따라 이 선포 내용을 더 발전시켰다(막 13장). 그리고 예수가 선포한 인자는 예수 자신이며, 구약성서가 예언하고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곧 예수라는 신앙을 갖게 되었고, 초대 교회 공동체야말로 참 이스라엘 즉 메시아 공동체라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 구약성서의 역사관과 묵시문학적인 종말론의 결합이 나타나게 되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오심을 구약성서의 역사와 연결시키고 예수를 구약성서의 역사, 곧 구속사의 목표요 완성이라고 해석하였다.

불트만은 현재적 종말론이 순전히 재림의 지연 때문에 생겨진 것으로 믿고 그 증거를 누가문서의 역사적 기술과 교회의 전통이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바울의 역사이해도 묵시문학적인 역사이해에 바탕을 두고는 있지만, 이를 비신화화 하여, 종말의 사건을 민족사도 아니요, 세계사도 아닌 개인구원을 통한 인간실존의 역사로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역사이며, 각 개인이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서 경험하는 역사이다. 또한 종말론은 역사의 목표로서가 아니라 개인적 인간 존재의 목표로서 이해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바울이 묵시 문학적 미래종말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요한은 철저하게 종말을 현재적 사건으로 이해하였다고 보았다. 요한에 의하면, 예수가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을 떠난 것은 종말론적 사건이요, 세계의 심판을 의미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심판은 우주적이며 묵시문학적인 것이 아니요, 예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서 발생되는 구원과 저주를 의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불트만은 신약성서의 역사이해가 본질적으로 후기 유대

교의 묵시 문학적 종말론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으나, 바울과 요한에 의해서 이 미래종말론은 개인의 실존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재적 사건으로 수정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불트만의 현재적 종말론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말씀과 설교를 듣고, 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드림으로서 자기의 본래성을 실현시켜 나가는 개인의 실존적 사건 즉 묵시 문학적 종말론의 비신화화를 의미하였다. 여기서 비신화화란 신약성서의 묵시문학적인 미래종말을 실존론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트만은 묵시 문학적 미래종말론을 비신화화 하여 찾고자하는 실존적 의미를 개인실존의 역사성(Geschichtlichkeit)에 두고 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이 역사성에 두고 있다.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Sein-Können)로서 결단을 요구하는 역사적 만남을 통해서 본질을 실현시켜 나간다고 본다. 즉 인간은 역사 속에서 자기의 본래성을 실현시켜 나가야 할 존재이며, 또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다. 자기의 본래성을 언제나 미래에 두고 있는 인간의 이 Sein-Können을 가리켜 불트만은 역사성이라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드림으로서 자신의 본래적 삶에 이룰 수도 있고, 거부함으로서 그르칠 수도 있다. 자기의 본래성이 결정되는 이 사건이 곧 묵시문학에서 말하는 종말론적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미래 속에서 거듭 반복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를 역사성이라고 하였다.

이 역사성을 불트만은 시간성(Zeitlichkeit)이라도 표현하였다. 인간의 본질은 시간적으로 미완성적이기 때문에 그의 완성을 미래에 두고 있는 시간적 존재라는 사실을 가리켜 불트만은 시간성이라고 명명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그의 역사적 실존 속에서 그의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언제나 다시금 책임을 지게 되고, 미래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자기의 본래성을 향하여 언제나 전진하는 도상의 존재(Unterwegs-Sein)가된다.

그러므로 미래성(Zukünftigsein)이 인간 실존과 역사적 현재의 구성적 요소를 형성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도달해야 할 그의 본래성은 미래적인 것이요, 따라서 인간은 언제나 미래를 지향하기 때문

이다. 이 미래성은 불트만에게 있어서 'Nicht mehr'(no longer)와 'Noch nicht'(not yet)의 변증법적인 것으로서 신앙하는 자는 과거의 자기로부터 해방되어서(Nicht mehr) 아직 실현되지 않은(Noch nicht) 자기의 본래성을 향하여 끝없이 도약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불트만은 도상의 존재를 믿음으로, 과거에 머무는 것을 죄로 보았으며, 하나님은 미래 곧 언제나 앞서 계신 분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하나님의 초월성은 미래성이며, 인간의 삶의 근거는 바로 이 미래에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불트만이 보는 인간의 종말론적 실존이다. 왜냐하면, 신앙인이 실존하고 있는 현재는 종말론적 현재를 말하며, 역사의 종말에나 실현될 수 있고 논의될 수 있는 역사의 의미가 이 종말론적 현재 속에 실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이란 이 모든 것이 현재적 사건으로 일어나는 종말론적 현실이요, 모든 미래의 선취(先取)로서 종말론적 실존에로 옮김을 의미한다.

나) 비판

불트만은 그리스도의 사건이나 하나님과 그의 활동에 대해서 오직 인간 실존과의 관련 하에서만 이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의 사건을 인간의 본래적 자아의 개방으로, 복음 즉 케뤼그마를 종말론적 결단의 부름으로, 또 개인의 실존과 관계된 선포(Anrede)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기복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말세론적 신앙에 빠지기 쉬운 신앙인들에게 복음의 현재적 의미를 부여하고, 신앙을 개인의 실존과 관련시켜 자기실현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결단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또 미래종말적 인간의 기대를 실존적 삶 속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재화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미래종말론의 실존론적 비신화화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보고 듣고 해석한 기독교의 신앙고백적인 많은 요소들을 미신화 시키고 제거함으로서 기독교를 가현설적으로 만들고 있다. 불트만의 비신화화가 신화적 진술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미래종말에 대한 진정한 기대가 없이는 실존론적 현재적 의미란 철학적 인식이상의 신앙적인 큰 힘을 가져올 수 없다. 따라서 가능성의 존재로서

의 인간의 결단은 그 윤리성을 상실하게 된다.

불트만의 신학에 역사이해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의 역사이해란 인간 실존의 역사성에 관한 이해일 뿐이다. 인류세계의 보편적 역사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자신의 개인적인 역사와 실존적 결단이 내려지는 현재, 즉 지금만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사성은 성서적인 창조의 역사와 종말의 역사를 신화로서 격하시켜 버리고, 2천년 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이나 미래에 있을 주의 재림에서 그 사실성 즉 육성을 제거하여 버리고 실존적 의미 즉 영성만을 취하는 오류를 남기고 있다.

불트만의 종말론도 무역사적이다. 그의 종말이란 종말론적 지금, 종말론적 현재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내면적인 실존적 결단에 불과하다. 또 종말론적 미래란 인간존재의 가능성에 불과하다. 따라서 종말론은 역사의 목표가 아니라 개인의 존재의 목표일뿐이다. 이렇게 될 때, 기독교 종말론은 역사적이며 시간적인 차원을 상실하게 되고, 종말론이 가진 세계사적 의미도 간과되고 만다. 이런 주장의 성서적 근거를 불트만은 바울과 요한에게서 찾고 있지만, 이러한 묵시 문학적 종말론의 비신화화는 불트만의 일방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살펴 본바와 같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미래종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미리 맛보고 누리며 체험하는 '이미' 시작된 종말론적 구원의 선포를 선교라는 대 사명아래 전개하면서도, 완전한 구원은 '아직' 미래에 속한 것으로 믿어 몸의 구속과 우주의 회복을 주의 재림의 시기에 맞추어 기대하였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사적인 모든 지평과 현실성을 결여한 불트만의 현재적 신존론적 종말론을 온전한 성서적 종말론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불트만의 인간이해도 추상적이며 무역사적이다. 왜냐하면, 불트만의 인간은 사회적 상황 하에 존재하는 인간 곧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반 관련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구체적 인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분리된 비세계화된 존재이다. 개인과 세계는 분리된 관계이며, 신앙인은 하나님과 세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결단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고독한 존재를 의미한다. 그

리고 거듭 반복해서 자기를 이 세계로부터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이 참 신앙이요, 자기존재의 본래성을 찾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신앙의 주요 관심사는 인간이 자기 존재의 본래성을 회복하는 데 있으며,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본래성 문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의 내적 주관성 속에서 찾으려는 근대 신학사조를 반영한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이 세계의 현실에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성과 의미를 갖지 못한 개인의 한 내면적 문제와 현상에 불과하게 된다. 불트만에 의하면 신앙은 이 세계로부터 자기를 구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계란 신앙이 도달해야 할 본래성을 방해하는 반대 세력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불트만의 인간이해에서는 개인과 세계, 개인의 자기이해와 그 시대의 세계이해의 상관관계가 무시되고 있고, 개인의 본래성의 문제도 단지 개인의 내면성의 문제로 전락되는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인간이해로 전락하고 있다.

불트만의 하나님 역시도 추상화되고 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 속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치 않음으로서 이 세계를 하나님 없는 세계, 세속적인 세계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적 실존의 하나님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세계의 현실은 하나님의 현실로부터 소외된 세속적 현실로서 무신론적 인본주의자의 손에 떨어지고 만다.

끝으로 불트만의 신학에 있어서 종말론적 현상으로서의 교회도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개인적 실존의 문제이지, 신앙공동체와 그 운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학은 단지 인간 실존의 학문만이 아니라, 교회의 학문이요, 교회를 위한 학문이어야 하기 때문에, 불트만의 신학은 교회성을 망각하는 뿌리 없는 신학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36]

9. 역사적 예수 문제

36) 김균진, 『헤겔 철학과 현대 신학』(대한기독교출판사), 191-213쪽.

예수 문제[37]는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대상인 예수 즉 케뤼그마적 예수와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가) 양식비평 이전의 예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

볼테르는 예수를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보았다.

루소는 예수를 성인의 한 사람으로 보았다.

라이마루스(Hermann Samuel Reimarus/1694-1768)는 역사적 예수와 케뤼그마적 예수를 구분하여 역사적 예수에게서 기적과 부활을 제거하였다. 기적과 부활이 포함된 케뤼그마적 예수는 초대교회의 조작으로 보았다.

슐라이에르마허(Friedrich Ernst Daniel Schleiermacher/1768-1834)는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원리를 인간의 체험에 두었으며, 예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인 면보다 변증적인 방법을 통한 신학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 예수의 신성을 예수 안에 있었던 자의식으로 강조하였다.

스트라우스(David Friedrich Strauss/1808-1874)는 헤겔의 철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예수전을 저술하면서 예수와 관련된 제반 전승들을 메시아적 전설과 신화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하르낙(Adolf Harnack/1851-1930)은 1899년에서 1900년에 이르는 겨울에 베르린 대학에서 '기독교의 본질'(The Essence of Christianity)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서(이 강의 내용은 1901년 *What is Christianity?*란 제목으로 영문으로 출간됨)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였다. 그는 예수께서 청결하고 깨끗한 모습을 통해서 일찍이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했고, 많은 사람들을 지식에로 인도하려 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복음서의 내용은 순수한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아니며, 전도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인 믿음을 일깨우는 글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예수의 교훈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었으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승리했고, 하나

37) 최동갑, "현대 신학에 나타난 예수의 생애," 『복음과 실천』 제 13집(침례신학대학출판부), 308-339쪽.

님은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함으로서 육체적인 부활의 역사성 없이도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브레데(William Wrede/1859-1906)는 '메시아 비밀'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역사적인 사실로 보지 않고, 마가의 신학적인 창작물로 보았다. 스트라우스가 복음서를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으로 보지 않고 신화로 본 점과 차이가 있다.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1875-1965)는 1906년에 『예수전』(*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A Critical Study of Its Progress from Reimarus to Wrede*)을 통해서 예수를 순수한 갈릴리의 청년으로, 급진적이고 열정적인 미래주의자로,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기대하며 허무하게 죽어간 실제 인물로,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메시아를 꿈꾸며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인 예수는 결국 그의 계획과 바램이 실패로 끝나게 되자, 자신은 십자가를 지게 된 묵시적 종말론자로 설명하였다.

켈러(Martin Kähler/1835-1912)는 편집비평이전에 이미 역사를 historisch와 geschichtlich로 구분하여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였다. historisch는 객관적인 역사, 외적이고 기록되는 역사를 의미하는 데, 앞에서 살펴 본대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자유주의자들은 이 역사에 관심을 집중했던 것이다. geschichtlich는 켈러와 편집사가들이 주장하는 역사로서 실존적인 역사, 내적이고 해석된 역사를 말한다.

켈러는 historisch에 입각한 역사적 방법으로는 참된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복음서가 단순한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한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의 증언과 고백이 담지 된 증언서 이기 때문이다. 복음서는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앙 고백적 문서이다. 따라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는 선포된 그리스도이고, 선포된 그리스도는 신앙의 그리스도이다. 이런 맥락에서 켈러는 성서를 '독특한 책'으로, 예수의 과학적 전기 기술이 아닌 신앙을 위한 믿음의 글로 보았다.

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새로운 탐구학파

새로운 탐구(new quest)학파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이후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옛 탐구(old quest)학파에 도전한 소위 후불트만 학파를 말한다. 이들은 불트만의 제자들로서 스승의 신학노선에 가현설적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의식 속에서 불트만의 역사적 예수와 케뤼그마적 예수 사이에 너무 큰 간격을 좁히려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시도하였다.

에른스트 케제만(Ernst Käsemann)은 불트만의 좌파로서 새로운 탐구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1953년『역사적 예수에 대한 문제』라는 논문에서 역사적 예수와 신앙(그리스도적)의 예수와의 어떠한 연결이 없다면 기독교는 역사적 기반이 없는 신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비록 예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역사적 예수와 고양된 그리스도와의 관련성을 환기시켰다. 또한 캐제만은 역사비평방법에 있어서 해석과 전승을 근본적으로 뗄 수 없는 것으로 보면서 해석으로서의 역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군터 보른캄(Gunter Bornkamm)은 불트만의 우파로서 복음서에서 예수의 생애를 전기방식으로는 재현하기 어렵다하더라도, 복음서 저자들이 발생된 사건으로서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른캄은 공관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과 그에 대한 고백, 그를 믿는 교회의 증언, 그리고 그에 관한 역사적 이야기가 놀랍도록 결합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믿었다. 또한 보른캄은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앙은 역사나 전승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서 신앙을 떠나서 복음서의 기원과 역사적 관심에 기초한 전승들을 찾으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푹스(E. Fuchs)는 또 다른 불트만의 우파로서 교회의 선언과 역사적 사건들 사이에 연관성을 세우려는 시도를 보였다.

제임스 로빈슨(James M. Robinson)도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와의 연속성을 추구하면서 관점의 차이를 주장하였다. 19세기 탐구의 목적이 역사적 예수라면, 20세기의 새로운 탐구는 케뤼그마로부터 시작된다. 19세기의 탐구가 역사적 증거를 찾아 그것을 신앙의 근거로 삼으려한 반면, 20세기의 케뤼그마는 예수의 의미에 대한

실존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에서 다르다고 보았다. 따라서 로빈슨은 역사를 실존의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케뤼그마를 강조하였다.

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최근의 비판적인 견해

브랜돈은 예수를 반란죄로 십자가에 처형된 사회적 정치적 혁명가로 보았다.

쿨만은 예수께서 기존질서를 비판하면서도, 폭력에 의한 사회적 정치적 혁명을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각 개인의 심정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규범을 생활화할 것을 요구하셨다고 말한다.

헹겔은 예수께서 폭력에 의한 사회 개혁을 원하지 않았다. 그가 선포한 자유는 본질적으로 내적 비정치적인 것이었다고 말한다.

이상과 같이 쿨만과 헹겔은 예수의 혁명가적 특성을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찾지 아니하고, 개인적,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찾아낸다. 이들은 예수를 사회적 정치적 혁명가로서 해석하지 않고 종말론적 전망아래서 개인적 내적 혁명을 가져온 분으로서 이해한다. 그러나 브랜돈은 예수를 열심당에 공감한 사회적 정치적 혁명가로 해석하였다.

황성규는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의 행태가 종교의 영역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듯이 종교적인 영역에만 한정시켜 해석할 수도 없다. 예수께서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차별의 대상이었던 민중과 함께 하신 것은, 그들을 차별하고, 착취하고, 무시한 종교적, 정치적 권력층에 대한 도전이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예수의 행태는 종교적-정치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스 웨버가 "이제는 예수의 정치적 성육신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 것은 실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는 그의 종말론적 전망, 또는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직면해서 기존권력이나 제도에 긍정과 부정을 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따라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어느 편에 섰다고 할 수 없을지라도 구체적인 삶에서 표현된 그의 행태는 종교적-정치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폭력을 수반하는 정치

적 혁명가로서 해석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메시지와 삶이 개인의 심정의 변화를 일으키고, 동시에 개인의 과격한 심정의 변화를 요구하는 점에서 예수의 혁명가적 상은 부인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혁명가적 예수의 상이 단순히 개인적, 종교적 차원에서만 이해되는 것이라면, 역사적 예수의 행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다. 오히려 예수는 사회개혁의 프로그램을 제시한 바 없을지라도, 예수의 형태는 당시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민중을 멸시하고 차별한 종교적, 정치적 지배층에 대한 '저항적 상징행동'으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예수의 행태가 마침내 십자가형에까지 연결되는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38]

현우식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를 수용적 개혁가로 정의한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두 체계를 기준으로 볼 때,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정체성은 체계 자체의 부정자가 아니라, 그 체계 내용을 혁신하는 자이다. 따라서 예수는 혁명가나 단순한 전통의 수호자가 아니라, 두 체계의 틀 속에서 수용되는 개혁자(innovator)이다. 수용적 개혁은 한 사회의 주도적인 가치, 예를 들면, 율법과 선지자와 같은 사회 규범을 그대로 수용하여 유지하면서, 그 가치를 성취하기 위한 공인된 주도적인 수단은 거부하는 종류의 개혁을 뜻한다.[39]

김진호는 예수운동은 혁명적인 운동으로 정의한다. 계급착취를 전제한 가치통합을 유지시키려는 도시와 농촌에서의 종교-사회적 지배계급을 주된 타도의 대상으로 하는 계급 투쟁적 운동이라고 말한다.[40]

송기득는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Q자료는 예수를 민중해방자로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예수의 역사적 행동실천 즉 예수운동(praxis)은 이스라엘의 주변부 민중을

---

38) 황성규, "예수의 혁명가적 상에 대한 해석," 『신학사상』(한국신학연구소), 제 17호, 1977년 여름, 2375-255쪽.

39) 현우식, "마태복음서의 예수," 『기독교사상』 1992년 2월호, 222-242쪽.

40) 김진호, "지지자를 통해서 본 예수운동 연구," 『기독교사상』 1991년 7월호, 224-234쪽.

해방시키는 하나님 나라 운동, 곧 민중해방운동이다. 이 예수의 민중해방운동의 초점과 목표는 소외계층과 억눌린 계층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화에 두었다.

Q공동체가 이해한 예수는 주변부 민중[곧 가난한 사람들]의 해방을 지향한 민중 해방자이다. Q공동체는 예수를 '사람의 아들' 즉 모든 소유와 고향을 버리고 아무런 거처도 없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카리스마적 떠돌이 예언자로 보았다. Q공동체는 예수를 부활의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그를 신앙과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대망과 따름과 실천의 대상으로 삼는다. Q공동체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인류의 대속을 위한 구원사건으로 보지 아니하고, 소외계층인 민중을 박해하고 억압했던 이스라엘의 지배계층에 대한 심판과 저항의 사건으로 사회화한다. 따라서 사회적 저항사건으로서 '십자가'는 신앙의 대상으로 이해되지 않고, 어디까지나 따름과 실천의 대상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Q공동체와 예루살렘-바울 공동체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해의 격차는 다음과 같다.

Q공동체에서는 예수를 '사람의 아들'로 이해한 데 대해서 예루살렘-바울 공동체에서는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로 이해한다. Q공동체는 예수를 떠돌이 카리스마적 예언자로 이해한 데 대해서 예루살렘-바울 공동체에서는 예수를'주'로 이해한다. Q공동체는 예수를 종말론적 해방자로 이해 한데 대해서 예루살렘-바울 공동체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해한다. Q공동체는 예수를 따름과 실천의 대상으로 이해한 데 대해서 예루살렘-바울 공동체에서는 예수를 믿음과 제의(예배)의 대상으로 이해한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도 Q공동체는 사회의 불의를 고발한 예언자적 죽음으로 보는 데 대해서 예루살렘-바울 공동체는 인류구원을 위한 속죄적 죽음으로 본다. Q공동체는 예수 사건을 역사에서 반복될 민중사건으로 이해한 데 대해서 예루살렘-바울 공동체에서는 유일회적 사건으로 본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Q공동체는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한 데 반해서 예루살렘-바울 공동체는 케뤼그마적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특히 신학의 경향에서 Q공동체는 사회지향성과 당파성과 방랑의 래디칼리즘을 따른 데 비해서, 예루살렘-바울 공동체는 교회(공동체) 지향성과 보편성과 사랑의

가부장주의를 따른다. 선교지역과 그 대상에 있어서도 다르다. Q공동체는 시골선교와 농촌의 암하아렛츠(amhaaretz) 곧 '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데 대해서 예루살렘-바울 공동체는 도시 선교와 도시 수공업자, 항구 노동자를 그 대상으로 삼는다. 선교 내용에 있어서도 Q공동체는 하느님 나라의 선포와 병자치유를 그 내용으로 한 데 비해서 예루살렘-바울 공동체는 부활의 그리스도선포를 그 내용으로 삼는다. 그리고 Q공동체는 따름의 공동체인 데 비해서 예루살렘-바울로 공동체는 신앙과 제의의 공동체라는 데 각각 그 특징이 있다.[41]

10. 결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에 관한 기록은 신앙의 눈으로 보고 해석된 고백의 기록으로서 케뤼그마 즉 사도적 설교의 형태로 보존되어 전승된 것들이 선별적으로 복음서 편집에 사용된 것이다. 복음서 기자들이 평범한 인간 예수보다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더 큰 관심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의 존립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초대교회는 물리적인 박해, 이단의 교리적인 도전, 뿌리내리기와 질서확립, 동질성과 동일성의 확립 등 산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때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예수의 행동과 말씀에 대한 전승을 수집해서 편집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표현된 예수는 왕으로 오신 분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였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인 메시아나 민족적인 메시아는 아니었다. 그는 구약의 메시아적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의 '기름부음'을 받았다. 그가 실천한 것들은 영적인 범주의 사건들이지,

---

41) 김명수, "원시그리스도교 Q공동체의 주변부 민중 예수,"『신학사상』제 71집, 1990 겨울호, 1046-1082쪽; 송기득,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예수 이해의 문제점과 Q 공동체의 예수 이해를 통한 우리 정체성의 확립을 위하여,"『신학과 현장』(목원대학 신학부), 제 1집, 1991년호, 213-232쪽.

사회적 정치적 범주의 사건이 아니었다. 그는 '선재자'였지만,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겸손히 이 땅에 오셨으며, 많은 사람의 대속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여 승천하셨다. 그는 영광 중에 이 세상에 다시 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착수하며,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당신을 하늘의 인자로, 메시아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친자로 인정하셨고, 하나님과 나라를 독특한 의미로 지적하셨다. 이런 내용은 초기 공동체에 의해서 완전히 조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의 정황에 뿌리를 둔 초기 공동체의 삶의 정황에서 신앙으로 고백되고 역사적 의미로 구체화된 것이다.

과학적 이성과 기독교의 신앙이 언제나 일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앙이 반드시 상식적이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이어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일 수 없다. 신앙은 때때로 상식을 초월하고 인과의 법칙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힘과 계시와 기적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주관적인 확신이며, 신비적 체험인 것이다.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과학적 상식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신론적인 하나님, 침묵의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행동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살아 계셔서 나의 삶 속에서 오늘도 역사 하시는 하나님으로 주관적으로 믿고, 체험하게 하는 데 있다.

계시와 기적과 부활과 같은 사건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관찰함으로서 객관적 상식을 얻어내는 형식의 과학적 입증이 불가능하며,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믿을 수 없고, 인과법칙에 어긋나는, 자연질서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그러나 신앙은 이러한 신비적인 사건들, 신화적인 요소까지도 믿고 수용함으로서 사막과 같이 삭막하고 메마른 세상, 갈증과 답답함이 심한 이 세상을 계시적이며, 기적적이며, 부활적인 힘과 용기로서 오아시스와 같은 시원한 곳으로 바꾸어 내는 능력이 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못 고칠 병을 고치며, 강도를 의로운 사람으로, 좌절을 용기로, 실망을 인내로, 실의를 희망으로 바꾸어 낼 수 있는 것은 냉철한 지식이나 과학적인 판단이나 신학적인 비평이 아니며, 오직 순수한 기독교적 신앙만이 그리고 성령의 강한 역사만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만

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위대함이다.

마. 편집비평(Redaktionsgeschichte)

1. 출발

편집사 비평[42]은 전승을 문서화시킨 주체들의 신학, 즉 예수의 말씀과 행동에 관한 전승을 복음서로 편집한 주체자들을 신학자들로 간주하여 그들의 신학적인 의도를 묻는 학문이다.

양식비평의 실패와 함께 공동체 신학에 대한 관심을 떠나 학자들은 세 복음서의 저작자들 자신의 신학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였다. 이 새로운 운동은 각각의 복음서들의 신학에 강조점을 주었다는 점에서 양식비평을 훨씬 능가하며, 복음서 저자들은 실재하는 인물로 다시 강조되게 되었다. 1920년경 슈미트, 디벨리우스, 불트만이 세 사람의 독일 신약학자들이 양식비평을 주도한 반면, 1950년대에 군터 보른캄(Gunther Bornkamm), 빌리 마르크센(Willi Marxsen), 그리고 한스 콘젤만(Hans Conzelmann) 세 사람의 독일 신학자가 편집비평을 주도하였다.

보른캄은 처음으로 마태복음서에 나타난 신학적 주제를 연구한 학자이다. 그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교회에 관한 교리를 추적하였고, 그 결과로 마태는 그가 수집하고 배열한 복음 전승을 해석하였음을 캐내었다. 마르크센은 마가복음을 연구함으로써 마가복음이 한 사람의 저서임을 발견하였다. 콘젤만은 누가복음을 연구함으로써 누가를 역사가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신학자로 간주하였다.

2. 편집사비평

---

42) Donald Guthrie, *New Testament Introduction;* 김득중 편저, 『마가복음 연구』(나단, 1989), 76-81쪽; 샤이먼 키스터메이커, 『현대의 복음서 연구』 신성종, 최갑종 역(엠마오, 1987), 77-92쪽.

보른캄은 예수의 폭풍진압 사건을 취급하면서(마 8:23-27; 막 4:35-41; 눅 8:22-25) 세 복음서 저자들의 보도상에 나타나고 있는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이 이야기에서 마가와 누가는 연속적인 사건의 연장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마태는 이 사건에 제자훈련을 강조하는 두 사건(마 8:18-22)을 삽입하고 있다. 이는 마태가 단순한 설화의 전달자일 뿐 아니라, 해석자임을 의미한다. 마태는 예수의 폭풍진압 기사를 제자훈련과 관련시켜 해석한 첫 번째 사람이며, 이것을 교회라는 작은 배와 관련시킴으로서 신자들의 모방과 제자훈련을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센은 신약비평 발달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개관한다.

①예수의 삶의 정황(Sits im Leben Jesu).

②초대교회의 삶의 정황(Sits im Leben der Urkirche).

③복음서 저자의 신학목적에 나타나는 삶의 정황.

그리고 이 세 번째 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대해서 편집사학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알렌(Ronald J. Allen)은 성서본문의 형성단계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①역사적 사건의 단계(the level of a historical event)

②전승의 삶의 단계(the level of the life of the oral tradition)

③편집 단계(the redactional level)

마르크센은 마가복음은 당대의 교회를 위해 쓰여진 신학 작품으로서 이 복음서 저자가 지리나 역사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콘젤만도 누가가 정확한 역사적 지리적 세부사항을 보도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가 받은 전승을 신학적으로 반영하여 당대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서를 쓰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환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목적이 아닌 복음 전도자 누가의 목적과 사역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3. 마가복음의 역사적 삶의 자리

가) 마르크센의 펠라 이주설

마르크센은 마가복음 공동체를 갈릴리로 보았고, 갈릴리를 펠라로 착각하였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마가복음이 주후 66년 유대반란전쟁이 시작될 무렵 갈릴리에서 기록되었다고 보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펠라로 도망하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쓰여진 설교로 보았다. 이 주장은 유세비우스가 쓴『교회사』3권 5장 3절에 근거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브랜돈(S. G. F. Brandon)은 펠라 이주에 대한 신탁이 초기 문서에 전혀 나타난 흔적이 없고, 후대에 조작된 것이 확실시됨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못된다고 보았다. 실제로 파피아스와 같은 초기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마가복음서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마가에 의해서 로마에서 기록되었다.

콘젤만은 66년에 시작된 재난의 와중에서 이런 경고를 목적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았다.

나) 브랜돈의 로마설

브랜돈은 마가복음이 주후 70년 직후 로마에서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무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유대 전쟁의 결과로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이 만연되어 있던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유대적 뿌리와의 단절을 통해서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한다는 예수의 말씀을 소개함으로서 유대 열심당원들의 이념과 다름을 그리고 열 두 제자들의 명단에서 열심당원이 있었음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서 기독교와 유대교 이념과의 차이와 단절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로마당국에서 유대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서 기독교를 변증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바. 사회학적 비평(Sozialsgeschichte)

사회학적 비평[43]은 1960년대 말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양식비

43) 안병무 편,『사회학적 성서해석』(한국신학연구소, 1990); 김창락 편,

평이 교회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사회학적 비평은 본문들의 삶의 자리를 전체사회의 틀 속, 즉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생태학적 요인, 사회 정치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에서 해석하려는 노력이다. 환언하면, 본문의 저자와 수신자가 처한 삶의 정황, 물품생산과 분배관계, 사회적, 종교적 제도와 기구 등의 사회적 측면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노력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학적 비평은 유물론적, 비관념론적, 혹은 사회사적 성서해석방법이다.

여기서는 억압자와 피억압자, 착취자와 피착취자, 특권층과 소외층으로 나누어 대립관계에서 보고, 관념론적, 부르즈와적 역사관을 배격한다. 이런 역사관은 지배자의 입장에서 성서를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사적 해석은 밑바닥의 민중의 입장에서 성서를 평가한다. 따라서 사회학적 비평은 약자들의 편에 서서 성서의 해방의 소식을 '오늘' 여기서 '이들'을 위한 해방의 소식으로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사회학적 비평은 실천을 인식론적 기초로 삼는다. 실천이라 함은 현실을 변혁하려는 정치적 혁명에 정위(定位)된 삶의 수행, 민중의 해방을 지향하는 삶의 수행을 뜻한다.

학자로서는 게르트 타이센(Gerd Theißen), 존 엘리옷(John Elliott), 로빈 스크록스(Robin Scroggs), 까잘리(Georges Casalis), 안병무 등이 있다.

사. 기타 비평방법론 요약

1. 자료비평(Literary Criticism)

역사비평방법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된 비평방법으로써 18세기에 처음 나왔을 때에는 문학비평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제는 문학비평이란 말이 전혀 다른 비평방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료비평과 문학비평을 구분하고 있다.

자료비평[44]은 문서자료를 확인하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둔다. 구전

『새로운 성서해석-무엇이 새로운가?』(한국신학연구소, 1990).

44) Pauline A. Viviano, "2. 자료비평," 『성서비평방법론과 그 적용: 역

자료는 양식비평과 전승비평에서 따로 다루기 때문에 자료비평에서는 보통 다루지 않는다. 자료비평의 가장 인기 있는 대상은 모세오경과 공관복음서이다. 신구약성경을 대표하는 이들 성경본문구성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문서가설들을 내놓았다. 모세오경에서는 J문서, E문서, D문서, P문서 가설이, 공관복음서에서는 Q자료, 마가복음자료, M자료, L자료 가설이 유력하게 받아드려지고 있다.

자료비평은 어떤 자료들이 성경본문구성에 사용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본문을 분석하고, 일단 자료가 분리되면, 자료비평가는 각 자료의 저자, 연대, 문체, 배경 그리고 기록의도 등을 고찰하는 방법이다.

자료비평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문서들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며, 비평가들이 사용하는 기준자료도 자료 확인을 위해 적절치 못하다는 점이다. 문체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상이한 자료일 수 없는 것이 주제가 달라지면 어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평가들이 보는 본문의 불일치와 모순들이 고대 저자들에게는 전혀 불일치나 모순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전승사 비평(Tradition-historical Criticism)

전승사 비평[45]은 엄격히 말해서 다른 비평방법론에 포함될 수 있는 비평방법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승사 비평에서는 언어전승 즉 기록의 형태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말과 문서, 예를 들면, 격언, 수수께끼, 노래, 시, 서사시, 다양한 종류의 민담 등에 관심을 둔다. 또한 전승사 비평에서는 독립된 전승이 처음 생겨나서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그 전승이 거친 변천의 역사를 다룬다. 전승이 구성되고 전달된 구전단계는 물론이고, 그것이 기록되고 편집된 최종단계에 관심을 둔다. 이 작업을 위해서 전승사 비평은

사비평에서 사회과학적 비평을 거쳐 해체주의비평까지』 스티븐 헤이네스, 스티븐 매켄지 엮음, 김은규, 김수남 옮김(대한기독교서회, 1997), 51~87쪽.

45) Robert A. Di Vito, "3. 전승사비평," *Ibid*, 88~111쪽.

자료비평, 양식비평, 편집비평 등에서 나온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사용한다.

3. 정경비평(Canonical Criticism)

자료비평, 양식비평, 편집비평이 성경본문의 최종 형태 이전 단계인 자료, 구전(전승), 저자를 연구한 반면, 정경비평은 전수된 최종형태를 분석한다. 정경비평은 개별 저자나 자료보다는 공동체를 더 강조하며, 공동체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더 큰 관심을 갖는다. 또한 본문의 발전 초기 단계보다는 그 최종형태를 더 중시하며, 공동체가 정경을 어떻게 받아드렸는가, 또 어떻게 해석하였는가, 본문 전체의 상황은 무엇인가에 관심한다.

정경비평[46]은 본문들을 경전으로 받아들인 신앙공동체들이 그 본문들에 권위를 부여하던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성경본문이 갖는 권위의 중심을 발견한다.

정경비평은 신앙공동체들과 전승의 발전에 영향을 준 어떤 역동성에 초점을 맞춘다. 성경본문은 신앙공동체에 의해 생산된 것이지만, 그 공동체의 정체성은 그 종교적인 전승들을 숙고함으로써 형성된다. 본문 안에 보존된 개별 저자의 목소리는 그 공동체가 받아들인 본문의 목소리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경비평은 성경본문을 해석하는 원칙이 본문 자체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경비평은 전승을 채용한 공동체들의 해석학에서(샌더스), 혹은 정경본문의 모습에서(차일즈) 그 원칙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정경비평은 모든 성경본문이 최종적으로 읽혀야만 하는 정경 전체의 상황에만 권위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경비평은 성경을 이야기들의 보고(寶庫)로 보지 않고, 신학적 사고들이 새로운 자료들에 대해 반응하면서 간단없이 재형성되는 살아있는 토론장으로 본다.

정경비평을 주도하는 학자들은 예일 대학교의 브레버드 차일즈(Brevard Childs)와 클레어몬트 대학원의 제임스 샌더스(James Sanders)

46) Mary C. Callaway, "7. 정경비평," *Ibid*, 189~210쪽.

이다.

정경비평의 단점은 성경이 형성된 역사적 상황이나 개별 특성을 무시한 채, 최종 형태의 본문 안에서 구체화된 역사적 순간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고, 본문들을 하나의 통일체로 이해함으로써 불일치한 부분이나 불확실한 부분을 조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4. 수사학적 비평(Rhetorical Criticism)

수사학적 비평[47]은 성경본문에 수사학적 방법이 있는가를 파악하여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수사학을 이용해서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고전 수사학을 신약성경 본문에 적용하는 학자들은 '수사학적인 상황'과 '설득을 위한 연설'로서의 수사학을 강조하고 있다.

수사학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독자나 청중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아는 것이었다. 이를 수사학적 상황이라고 하는데, 고전 수사학에서는 그 범주를 세 가지로 나누었다.

1)심의적 수사학(Deliberative Rhetoric): 청중들을 설득하여 행위를 촉발시키고자 할 때 쓰는 수사학이다. 정치적인 연설이 여기에 속한다.

2)법정적 수사학(Forensic or Judicial Rhetoric): 법정의 원고나 피고를 설득코자 할 때 쓰는 수사학이다. 어떤 사건이나 행위를 주제로 옳고 그름을 증명하고 판정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법정연설이 여기에 속한다.

3)제의적 수사학(Epideictic Rhetoric): 제의적인 행사, 특히 장례식에서 쓰는 수사학이다.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를 축하하거나 비난하는 연설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 같은 수사학적 상황을 고려함에 있어서, 수사학자는 실제적인 상황 즉 사회학적이며 역사적인 정황에 관한 모든 물음들을 점검

---

47) 현경식, "수사학적 비평이란 무엇인가?" 『신학사상』 102집(한국신학연구소), 1998년 가을호; Yehoshua Gitay, "8. 수사학적 비평," *Ibid*, 211~233쪽.

해야 한다.

고전 수사학은 주제설정법, 수사학적인 배열, 미사여구법, 기억, 낭독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성경본문을 분석하기 위한 수사학적 비평은 문서자료를 취급하기 때문에 기억과 낭독 분야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주제설정은 설득의 목적을 정하는 것으로써 심의적, 법정적, 제의적인 방법 중에서 정할 수 있다.

수사학적 배열은 서론부(독자들의 집중을 얻기 위한 것), 주제부(저자가 입증하기 원하는 것), 논증부(저자가 자신의 논증을 이끌어 가는 것), 반론부(저자가 반대 의견들을 반박하는 것), 결론부(논증을 요약하고 담론을 끝내는 것) 가운데 주제설정에 맞게 배열할 수 있다.

설득은 수사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세 가지 종류를 제시하였다.

1)에토스(ethos/성격): 화자 혹은 저자의 도덕적 성격에 의존한다. 화자의 좋은 센스, 미덕, 선한 의지, 등을 들 수 있다.

2)파토스(pathos/감성): 청중 혹은 독자의 감성에 의존한다. 분노, 기쁨, 즐거움, 동정, 두려움과 같은 감정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판단을 바꾸게 하는 근거가 된다.

3)로고스(logos/논리): 무엇인가를 증명하려는 담론 혹은 연설 그 자체의 논리를 말한다.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이 있다.

수사학적 비평에서는 수사학적 단위를 정해야 한다. 성경본문의 어떤 부분이 설득의 기술과 논증이 들어 있는가를 선택해야 한다.

수사학적 비평은 자료의 변천과정보다는 손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본문을 하나의 문학적 단위로 가정하고 공시적(문학비평방법)으로 비평하는데서 출발한다.

수사학적 비평은 수사학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수사학적 비평은 문학비평방법과 사회-역사적 비평방법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나 수사학을 따로 공부해야하는 단점도 있다.

5. 구조주의비평(Structural Criticism)

구조주의비평은 언어와 언어의 차이와 관련성(본문의 형식 또는 표피구조)을 파악함으로써 저자의 신념체계(종교적 신념과 신앙 즉 심층구조)를 연구하는 비평방법이다.

구조주의비평[48]은 병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건강을 진정으로 평가할 수 없듯이, 어떤 언어가 본문에서 다른 단어들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모른다면 무의미하다는 기호학 이론들(semiotic theories : 어떻게 의미 있는 의사전달이 언어 속에서 또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과 의미론의 이론들(semantic theories : 어떻게 의미가 생산되고 전달되는가?)에 기초해서 발전되었다. 그것이 구조적인 이유는 독자들이 본문에 있는 어떤 상이한 특징들(예: 건강한 상태)과 다른 상이한 특징(예: 병든 상태) 사이의 상호관계(즉 구조)를 인식할 때에만 본문이 독자들에게 의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구조주의 비평은 본문이 '청중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쓰였다는 견해에서 출발하여 저자의 신념의 체계(system of convictions)를 연구하는데 사용된다.

신념체계의 구조와 그 근본적인 패턴은 한 본문에 뚜렷이 상반된 의미의 한 짝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게다가 신념은 신앙인의 행동을 지배할 뿐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념을 전달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자의 신념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상반된 의미의 짝은 '역의 대구법'(inverted parallelisms) 즉 작가가 독자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이야기를 구성하고 그 각각의 주제 단위들을 구성하는 방식과 '대립되는 행동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저자들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신념이 의미하는 것과 그 신념이 의미하지 않는 것 모두를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명확히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본문에 표현된 신념체계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완전한 주제 단위와 그 주제 단위의 한계를 정해주는 '역의 대구법'을 확인하고, '대립되는 행동들'을 분석하고, 그 신념체계들에 대한 해명을 통해 그 형식적인 절차에서 나온 결과를 해석하

48) Daniel Patte, "9. 구조주의비평," *Ibid*, 237~266쪽.

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체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 즉 저자들의 개성이 무시되는 단점을 갖고 있다.

6. 서사비평(Narrative Criticism)

서사(=설화)비평[49]은 역사연구방법을 응용한 역사적 비평과는 반대되는 문학이론을 응용한 비평방법의 하나이다. 서사비평은 본문의 자료와 편집역사, 본문의 배경과 독자, 그리고 저자나 편집자의 의도를 재구성함으로써 본문을 이해하려하지 않고, 최종 형태의 복음서를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야기 자체로 읽으려고 하며, 복음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서사비평은 본문중심적이며, 숙독(熟讀)을 통해서 서사로서의 본문이 지닌 형식 및 관습적 구조를 규명하고, 줄거리를 찾고, 성격을 규정하고, 관점을 구별하고, 언어적 역할을 발견하고, 이 모든 것들과 주제와의 관련성을 밝히려 한다. 복음서 속에서 작은 단위의 본문을 다룰 때에도, 해당 본문이 전체적 맥락 속에서 어떤 문학적인 구조와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럼으로써 작품 속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제저자의 의도나 상황을 추정하려 하기보다는 작품 자체가 이야기하는 바와 그 의미에 귀를 기울인다. 환원하면, 실제저자(the actual author)와 실제독자(the actual reader)보다는 내재된 저자(the implied author)와 내재된 독자(the implied reader)에 귀를 기울인다. 작품 속에 나타난 저자나 독자가 실제저자나 독자의 모습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예: 마가복음에 묘사된 제자들의 무지). 서사비평에서 중요한 개념들은 스토리와 담화, 작품 속의 서술자, 사건과 플롯, 등장인물, 시공간적 배경이다.

7. 독자-반응 비평(Reader-response Criticism)

독자-반응 비평은 의미생산과 창조를 위한 독자 중심의 성경독법 가운데 하나이다. 성경을 문학으로 읽을 뿐 아니라, 독서의 결과를 그것이 독자에게 미친 영향력의 견지에서 이해한다. 환원하면, 독자-

49) David M. Gunn, "10. 설화비평," *Ibid*, 267~308쪽.

반응 비평[50]은 독자들의 가치, 태도, 그리고 반응의 견지에서 성경문학에 접근한다. 따라서 독자는 의미와 의의를 생산하거나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 독자가 의미를 낳는 생산자가 되는 것이다.

독자-반응 비평은 개념적으로 통일된 비평방법이 아니며, 설화비평처럼 숙독(熟讀)를 하는 신비평의 하나이다.

독자-반응 비평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유의한다.

1)등장인물들은 어떤 인물인가?

2)그들은 실제인물인가?

3)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동기)

4)그들이 그렇게 행한 이유는 무엇인가?(동기)

5)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특성과 논리적으로 합치하는가?(인물의 일관성)

6)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인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7)개개의 행위들 즉 특별한 사건들은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줄거리의 발전)

8)등장인물들은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종속된 인물과 중요한 인물, 인물들 간의 갈등)

9)등장인물들과 사건들이 주제와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독자-반응 비평은 다른 문학비평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일반 문학으로 평가절하 하거나 저자의 의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포괄적이지 못하며, 형식주의, 구조주의, 현상학, 해체주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언어-행위이론 등과 연관되어 있다.

8. 후기구조주의 비평(Deconstructive Criticism)

후기구조주의 비평[51]은 존재하는 패턴들의 해체에 초점을 맞춘 해체주의 비평의 하나이다. 해체주의 비평은 본문의 불완전성을 발견하는 것과 본문의 자유 활동 혹은 본문의 비확정성을 통해 가능해진, 비록 일시적이라도, 신선한 통찰력을 발견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50) Edgar V. McKnight, "11. 독자-반응 비평," *Ibid*, 309~344쪽.

51) William A. Beardslee, "12. 후기구조주의 비평," *Ibid*, 345~369쪽.

해석방법이다.

해체주의 비평은 진리는 숙명적으로 권력과 반목할 뿐 아니라, 불가피하게 역사적으로 변화하며 역사적 변화에 의존한다는 의미에서 선택되었다. 환원하면, 해체주의는 전통적인 종교와 신학에 매우 비판적인데, 그것들은 초월적 실재의 "현존"을 그릇되게 믿게 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따라서 인정된 패턴들 안에 있는 비일관성과 지배관계를 비판하고 들추어냄으로써 그것들로부터 권력(가부장, 왕권)을 박탈해야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에서 종말론이 무시되어버린다면, 제도화된 사회에서의 가난한 자들의 처지가 본문의 뜻과는 정반대의 뜻으로 왜곡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의 처지를 고착시키려는 권력구조에 도전하는 말씀이란 것이다.

그러므로 해체주의 비평에서 강조하는 것은 언어구조를 해체하는 것이다. 의미 있는 독서는 재생산이 아니라, 다양한 자각과 경험을 가진 독자에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해체주의의 선구자들로서는 니체와 하이데거(철학), 마르크스(경제학), 프로이드(심리학), 불트만(신학)이 있고, 대표적인 인물들로서는 푸코(Michel Foucault)와 데리다, 신약학자들로서는 펑크(Robert W. Funk)와 크로산(John Dominic Crossan)이 있다.

9. 이념적 성서해석: 페미니스트 비평(Feminist Criticism)

페미니스트 비평[52]은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주목한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비평은 보편성이라는 개념에 도전하며, 절대진리보다는 상대성에 더 큰 관심을 둔다.

성경의 대부분이 여성들에 의해서 쓰이지 않았거나 여성을 염두에 두고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질적이라고 생각하며, 성경의 가부장 교리를 해체시켜 재해석하고자 한다.

---

52) Danna Nolan Fewell, "13. 이념적 성서해석: 페미니스트 비평," *Ibid*, 370~395쪽.

제3장

공관복음서 문제

제1절 공관복음서의 유사점과 차이점

'공관'(synoptic)이란 '함께'(共) '보았다'(觀)는 뜻이다. 공관복음서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말한다.[53]

1. 공통점

1)예수의 생애에 대한 공통적인 구조

①갈릴리 지방에서의 전도여행
②이방인 지방에서의 전도여행
③예루살렘 여행
④예루살렘에서의 수난

2) 사건이나 교훈에 대한 유사본문들

①중풍병자 치료
②금식문제
③겨자씨 비유
④오병이어의 기적
⑤부자청년
⑥바디매오를 고침

---

53) 공관복음서 문제는 Donald Guthrie, *New Testament Introduction*; 김득중,『신약성서 개론』(컨콜디아사, 1989), 54-60쪽; 김득중,『누가의 신학』(컨콜디아사, 1992), 296쪽 이하를 참고.

⑦예수의 권위에 대한 도전
⑧세금문제
⑨베드로의 부인

2. 차이점

1) 사건의 순서와 배열의 차이점

마태는 사건 전에 교훈이 먼저 나오고, 마가와 누가는 사건 후에 교훈이 따른다. 마태는 행동(기적)보다 말씀에 우위를 두었기 때문이며, 마가는 말씀보다 행동(기적)에 우위를 두었기 때문이다. 이는 마태가 말씀의 복음을 기록하였고, 마가가 행동의 복음을 기록한데서도 알 수 있다. 또 마태는 행동보다는 사상이 앞서는 유대인(동방계)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였고, 마가는 사상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로마인(라틴계)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나사렛에서 받으신 예수의 배척이 마태와 마가에서는 중반에(막 6:1-6; 마 13:54-58), 누가에서는 초반에(4:16-31) 기록되고 있다. 누가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전반에서 배척을 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복음서 후반부에 언급될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으로 고향에서의 배척사건을 예수의 공생애 첫 부분에 소개하였다.

마가에서는 수난주간에 예루살렘에서 행한 교훈이(13:9-13), 마태복음에서는 초기 갈릴리 지역에서 행한 것으로(10:17-22) 나타나 있다.

2) 동일한 사건 기록에 있어서의 어휘나 표현의 차이점

3) 특수자료

3. 이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공통점을 공통자료의 사용으로, 차이점을 특수자료의 사용으로 사문서설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1) 유사점을 갖는 이유

①공통자료 사용: 구전자료(케뤼그마를 포함해서 자주 언급된 자료들), 노트자료(Robert H. Gundry주장), 기록된 문서자료(마가복음이나 Q자료), 등.

②사실적 사건 기록

③강조와 반복의 필요성

④성령의 영감

2) 차이점을 갖는 이유

①독립적인 특수자료 사용(L자료, M자료 또는 구전자료 등)

②개인적 관심과 목적에 따라서 배열, 편집, 해석 등을 달리한 표현의 차이

③배경(저자, 기록 장소, 연대 등)

④성령의 영감

제2절 공관복음서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들

1. 원복음서설(Theory of Urevangel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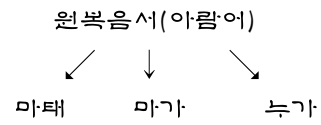
1) 학자

18세기의 레싱(G. E. Lessing), 아이히호른(J. H. Eichhorn)

2) 주장

아람어로 된『나사렛인들의 복음서』를 번역하였거나 요약한 것으로 생각한다. 제롬(Jerome)은『나사렛인들의 복음서』가 나사렛인들 분파 가운데서 회람되었다고 언급하였다.

3) 도식



2. 단편설(The Fragment The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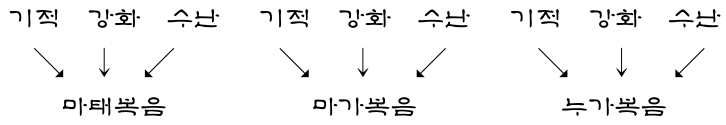
1) 학자

슐라이에르마허(F. Schleiermacher/1768-1834)

2) 주장

기적, 강화, 수난설화와 같은 단편들이 목격자들인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단편들이 후에 수집되어 복음서 정경으로 발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기록들은 현존하지 않으며, 공관복음서의 어휘와 사건들의 진행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환언하면,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단편들이 복음서 저자들에 의해서 수집되고 독자적으로 기록했다는 주장은 사건 진행순서로 볼 때, 복음서 저자들의 독립성을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3) 도식



3. 구전설(The Oral Theory)

1) 학자

헤르더(G. Herder), 기셀러(J. K. Gieseler/1818)

2) 기셀러의 주장

사도들의 가르침이 구전으로 발전하여 아람어 구전 복음서가 형성되었으며, 이 아람어 구전 복음서가 후에 헬라어로 번역되었고, 이 헬라어 구전 복음서가 공관복음서의 기초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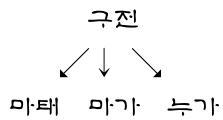
웨스코트(B. F. Westcott)의 주장: 유대인들은 조직적인 암기식 구전교육을 강조하였으므로 초창기 복음은 구전으로 전달되었으며, 사도들은 말씀의 전파자들이었고, 저작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으므로 문헌적 작업에 착안치 못했다. 복음서는 초대공동체의 필요성에

따라 사도들에 의해서 가장 자주 반복된 기사들에 관심을 집중하였으므로 갈릴리 사역, 오병이어의 기적, 수난과 부활기사 등이 상당한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단순성이 복음적 전승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임을 보여주며,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공통 자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구전설에 반대하는 주장: 복음서의 기사 기록 순서상으로 볼 때, 구전이 현 복음서의 상태로 보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한다. 마태와 누가가 마가의 순서를 따른다는 점에서 자료설을 입증한다. 마가복음에는 Q자료로 주장되는 예수의 말씀들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을 중시한다.

구전설과 양식비평과의 관계: 구전설과 양식비평이 모두 기록이전의 전승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양식비평가들은 자료설을 주장하면서도 자료이전의 구전에 대하여 연구한다. 그러나 구전설은 구전전승을 애매모호하게 남겨둔다는 점에서 양식 비평적 접근 방식과 대조를 이룬다.

3)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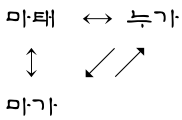
4. 상호의존설(Interdependence)

1) 학자

그리스바하(J. J. Griesbach)

어거스틴이나 라흐만(C. Lachman)의 견해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어거스틴은 마가가 마태복음을 축약시켰다고 보았고, 라흐만은 마가복음이 기초가 되어 마태와 누가가 차례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았다.

2) 도식



5. 문서설(Documentary The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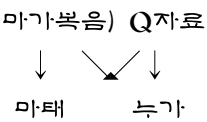
가) 두자료설

1) 학자

홀츠만(Holtzmann), 빌케(Wilke), 바이세(Weisse)

Ur-Mark나 마가복음서와 Q(Quelle의 머릿글자. '자료'라는 뜻)자료설을 두고 말한다.

2) 도식:



나) 사문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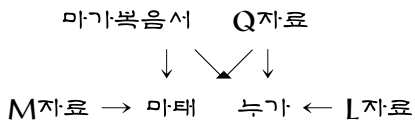
1) 학자

스트리터(B. H. Streeter)

마가복음과 Q자료 이외에도 마태와 누가의 특수자료를 포함하여 사문서설을 주장하며, 마태의 자료를 M, 누가의 자료를 L로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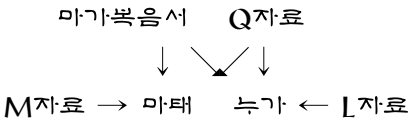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저작된 복음서로, Q자료는 안디옥에서, M자료는 예루살렘 강화문서로, L는 구전적인 가이사랴 전승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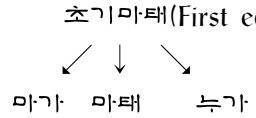


6. 대표적인 도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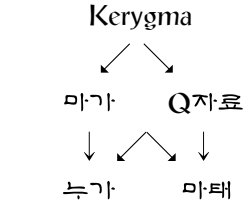
1) B. H. Streeter, *The Four Gospels*(1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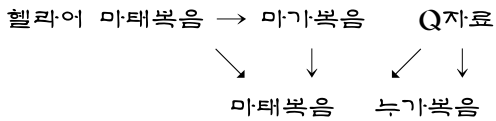
2) B. L. Butler, *The Originality of St. Matthew*(1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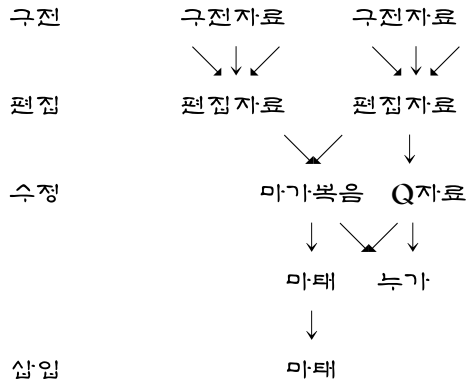
3) Pierson Parker, *The Gospel Before Mark*(1953)



4) M. Vaganay, *Le Problems Synoptique*(1954)



5) W. Marxse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1968)



제3절 마가복음 자료

1. 마가복음 우선설의 근거

마가복음의 92%가 마태에, 53%가 누가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문헌상에서도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마가복음 자체는 짧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긴 항목을 많이 갖고 있다. 복음서에 실린 89의 항목 중에서 약 20개의 항목은 마가복음의 내용이 더 길다. 즉 마태나 누가의 사건설명이 마가복음보다 훨씬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 2:1-12/중풍병자치유, 4:35-41/광풍진압, 5:1-20 /거라사 귀신 축출, 5:21-43/야이로의 딸과 혈류증 여인, 6:14-29/세례요한과 헤로디아, 등.

마가복음의 생생한 역사적 현재들이(vividness of the style/현재시제를 사용하여 전개한 이야기들/151회) 마태복음에는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21회), 누가복음에서는 단 1회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마태는 마가복음 자료가 아닌 부분에서는 높은 역사적 현재를 사용하고 있다(72회). 마가복음의 역사적 현재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4/중풍병자의 네 친구와 지붕사건, 4:37-38/광풍 중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 6:39/"푸른 잔디", 7:33/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자의 치유 과정, 8:23/소경의 시야 회복 과정, 9:36,10:16/어린이들을 "그의 팔로" 안으셨다는 이야기, 10:21/부자 관원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 14:54/제사장 뜰에서의 베드로.

마가복음에서의 용어나 난해한 부분이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 문법적으로 개선되어 나타난다.

마가복음에는 아람어의 단어가 8개 나오는 반면에, 마태복음에는 한 단어, 누가복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예: 에바다, 달리다굼,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호산나, 아바, 아멘, 등.

마가의 역사적 솔직성이 예수의 인간적 묘사, 한계성, 제자들에 관

한 보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록의 생생함, 설명이 자세하지 못한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편집사학자들은 마가의 이런 부분을 의도적인 기록이라고 믿고 있다.

2. 마가복음 우선설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점

마가복음 이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일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1) 원마가복음서(Ur-Markus)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설.

2) 마가복음의 편집수정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일치점이 생기게 되었다는 설(K. & S. Lake).

3) 누가가 마태복음을 자료로 사용했다는 설(R. T. Simpson).

4) Q자료를 사용했다는 설.

5) 마가복음을 수정했다는 설(C. C. Torrey).

마가복음의 중간부분인 6장 45절부터 8장 26절(마 14:22-16:12)이 누가복음에서 완전히 생략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예수의 이방인 사역에 큰 관심을 보였던 누가가 어떻게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와 마가단 지역에서의 중요한 예수의 사역들을 생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1) 누가가 Ur-Markus를 사용했다는 설.

2) 오천 명을 먹이신 기사로부터 그와 유사한 사건인 8장 19-21절로 넘어감으로서 우연히 빠뜨렸다는 주장(Sandy).

3) 의도적으로 생략했다는 설. 저작목적에 부합치 않았거나 다른 자료 사용으로 공간부족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설(Hawkinz, J. Knackstadt).

누가문서가 친 이방적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학자들이 있다(J. Jervell, G. D. Kilpatrick, R. L. Brawley). 이들 학자들은 누가가 예수의 이방인 사역 즉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와 마가단 지역의 사역을 생략한 것은 친 유대적 성격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에 많은 학자들은 이방인을 '개'에 비유하는 구절이 이방인들에게 모욕적이기 때문에 이방적이며 보편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던 누가로서는 이 내용을 소개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해 왔으나, 이 견해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유대적 관점을 갖고 있던 누가가 예수를 '이방인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54]

4) 누가가 사용한 마가복음 자료가 내용이 일부 삭제된 사본이 였을 것이라는 주장(Streeter).

5) 누가가 예수의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사건 보도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생략은 마가복음 우선설과 누가복음 저작에 마가복음이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 버틀러(B. C. Butler)나 파스터(Lewis Foster)와 같은 학자들은 Q자료설을 부정하며, 마태복음의 우선설을 주장한다. 또 버개나이(L. Vaganay)나 썰폭스(L. Cerfaux)는 원마태복음(Proto-Matthew) 자료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3. 로버트슨의 마가복음 우선설에 대한 대안

로버트슨(A. T. Robertson)은 현재의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나, 마태는 아마 주후 45-50년경에 아람어로 Logia를 썼고, 그리고 마태나 혹은 다른 사람이 마가복음과 기타의 다른 자료들을 사용하여 현재의 마태복음을 저술했을 것으로 믿는다.[55] 썰폭스(Cerfaux)도 헬라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기초로 기록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마태복음은 예수 동시대인 작품

1996. 5. 27 동아일보/성경

54) 김득중,『누가의 신학』296 쪽.

55) A. T. Robertson,『복음서 대조서』284쪽.

성경의 신뢰성이 각종 고고학적 신학적 연구 등을 통해 계속 깨져나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독일의 한 젊은 파피루스 학자가 "마태복음은 예수와 동시대인에 의해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 신학계에 엄청난 태풍을 몰고 왔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신약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행적은 "신화화된 예수상(像)"이라기보다 "역사적 예수"에 훨씬 가까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번 주 슈피겔 등 독일의 주요 시사주간지들은 이 주장을 일제히 커버스토리로 다루고 있다. 독일 파더본 대학의 파피루스 학자 카르스텐 타이드(34)는 최근 "예수 파피루스"라는 야심적인 저서를 통해 1901년 이집트 룩소에서 발견된 'P64'라는 이름의 마태복음 파피루스가 아무리 늦어도 서기66년 이전에 기록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영국 옥스퍼드의 막델레나 칼리지에 보관되어 있는 이 파피루스는 지금까지 2세기 중반의 사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타이드는 P64의 서체를 기록연대가 분명한 다른 파피루스들과 비교했다. 예컨대 68년 이전에 기록된 쿰란문서(일명 사해사본)라든가 기록연대가 66년으로 증명된 재산문서 등과 비교해 볼 때 알파벳 형태 등의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이 공인을 받을 경우 'P64'가 현존하는 최고의 파피루스로 격상되는 것은 물론 "예수의 동시대인들이 생존해 있는 시점에서 씌어진 기록"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소 의문시되던 복음서의 성립과정과 신뢰성이 재평가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이후 독일의 신학 및 고고학계는 타이드의 주장을 검토하느라 여념이 없다. 아직까지는 타이드의 연대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론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가 다시 한번 르네상스를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예수 생애 기록된 파피루스 발견

1996. 5. 5 크리스챤저널/성경

전통적으로 4복음서의 원전으로 취급되어오던 마가복음서를 제쳐두고 마태복음서를 원전으로 하는 새로운 주장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호 타임지는 종교란에 이를 대대적으로 소개, 전통적 성서관에 큰 혼선을 갖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근간에 영국 옥스포드 대학 도서관에서 발견된 소위 막달라 파피루스로 인한 것으로 그간 믿어오던 마가복음의 원전설을 완전히 뒤엎은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새로 발견된 파피루스로 말미암아 4복음서의 원전이 마태복음서 일뿐만 아니라, 이곳의 26장, 27장, 28장, 이상 3장은 허위 기록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빌라도의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마 27:25)라는 저주를 자취하면서까지 아우성치던 일이나 예수의 부활 등 신성

을 증거 하는 일체 기록이 허위라는 주장이다. 이 파피루스는 90년 이상 막델레나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왔던 것으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영국의 한 군목이 이집트 룩소의 한 고물상에서 매입 기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파피루스가 A.D. 2세기 중엽에 기록된 것으로 감정되어 왔으나 독일학자이며 파피루스 전문가인 카르스텐 피터 타이드에 의해 현존하는 어떤 사본보다 가장 오래된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음서가 주후 50년에서 70년대에 기록되었다는 전통적인 견해와는 달리 타이드는 이 마태복음서가 다른 곳에서 모방하지도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예수 당시 그가 목수일 하던 나사렛 현장과 공생애의 사역을 그대로 보면서 기록된 원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파피루스에 대한 내용은 1995년도에 타이드가 발행한 "눈으로 본 예수"라는 제목의 책자에 장장 206쪽에서 달하는 긴 논문에 담겨져 있다. 그는 책 속에 친필로 막델레나 파피루스는 언셜(대문자 필사체)로 쓰여졌음을 강조하고, 이는 필사본으로 그 자체가 원본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그의 설명으로는 1947년에 발견된 사해사본은 두루마리로 되어있어 깨끗한 쪽 한쪽에만 글을 썼지만, 이보다 원시적인 파피루스는 양면 사용으로 두루마리보다 훨씬 오래된 것으로 주장했다.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기를 KS로 한 점이다. 타이드는 이 의미가 "주"의 약어로 어느 문서보다 원시성을 나타낸다는 주장이다. 허나 새로 발굴했다는 이 파피루스를 이렇게 섬세하게 연구함에는 분명코 다른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다. 이미 상기했던 대로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삭제하려는 의도적 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 즉 신성을 배제하려는 반 기독교적 사상이 배후에 숨어 있음이 예측되는 점이다. 타이드는 눈이 빠지도록 파피루스를 들고 연구했으나, 그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지닌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은 초대교회에 국한되었을 뿐 그 후로는 이 주장이 발전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4. 현대 신학자들의 마가복음 우선설 주장과 초대교부들의 마태복음 우선설 주장과의 문제점 해결

마가복음 우선설은 1835년 라흐만(Carl Lachmann)이 최초로 주장한 이래로 일부 학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학자들이 마가복음이 마태와 누가에 의해서 자료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마태가 마가의 92%, 누가가 마가의 53% 정도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주장은 거의 모두가 마태복음의 우선설을 주장하고 있다.

1) 소아시아의 히에라폴리스(Hierapolis)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Papias)는 지금은 상실된 *An Exposition of the Oracles of the Lord* 라는 5권의 책을 약 130-140년경에 저술하였다. 이 책의 일부 내용이 유세비우스에 의해서 인용되고 있는데, 파피아스는 마태가 히브리인 언어로 Logia를 썼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그것들을 번역하였다고 전한다.[56] 그리고 그는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으며, 베드로의 기억에 의존하여 마가복음을 썼다고 전하고 있다.[57]

2) 알렉산드리아의 교리문답 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판타에누스(Pantaenus/190년경)가 인도에 갔을 때, 바돌로매가 쓰다 놓고 간 마태의 히브리어 복음서가 그곳에 있었다고 전한다.[58]

3) 판타에누스의 대를 이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190년경)는 예수의 족보를 담은 마태와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고 전한다.[59]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약 15년간을 마태는 팔레스타인에 머물렀다고 전한다. 그리고 오리겐(Origen)은 첫복음서가 마태에 의해서 유대인 개종자를 위해서 히브리인 언어로 발간되었다고 전한다.[60]

4) 이레나에우스(Irenaeus)는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마태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서를 발간했다고 전한다(*Against Heresies*, 3.1.1).

5) 유세비우스는 초기에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마태는 본국어로 복음서를 써서 자신의 부재(不在)함을 대신하였다. 즉 마태가 팔레스타인을 떠나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갈 때에 그의 복음서를 썼다고 전한다.[61]

6) 제롬(Jerome/c.345-419)은 그의 주석에서 마태가 가장 먼저 히브리인 언어로 유대에서 복음서를 출간하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

56) Eusebius, *Church History*, 3.39.16.
57) Eusebius, *Church History*, 3.34.15.
58) Eusebius, *Church History*, 5.10.3; Jerome, *On Famous Men*, 36.
59) Eusebius, *Church History*, 6.14.5.
60) Eusebius, *Church History*, 6.25.4.
61) Eusebius, *Church History*, 3.24.5.

는 이 책의 사본을 가이사랴의 도서관에서 실제로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복음서가 누구에 의해서 헬라어로 번역되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7) 어거스틴(Augustine/430년경)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만이 히브리인 언어로 쓴 것이 확실하며,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헬라어로 썼으며, 마가는 마태의 모방자로서 그리고 요약자로서 그의 발자취를 바짝 따랐다고 전한다.[62]

이 점에 있어서 윌리암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파피아스가 말하는 마태의 로기아는 Q자료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의 어록집이나 증언집(Testimonia)으로 알려진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집 이상의 사건과 행위도 포함하는 복음서를 두고 말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63]

그러나 로버트슨은 현재의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나, 마태는 아마 주후 45-50년경에 아람어로 Logia를 썼고, 그리고 마태나 혹은 다른 사람이 마가복음과 기타의 다른 자료들을 사용하여 현재의 마태복음을 저술했을 것이라는 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말한다.[64]

5. 기타 복음서 자료들의 기록연대 가설

1) 수난전승 30년경
2) 마태의 로기아(Logia=Q의 가능성?) 45~50년경
3) 원누가복음(Q+L) 58~63년경
4) 마가복음(이적기사와 수난기사) 68~70년경
5) 마태복음 70~80년경(마가, Q, M)
6) 누가복음 70~80년경(마가, Q, L)

---

62) Augustine, *On the Agreement of the Evangelists*, 1.2.4.

63) William Barclay, *Introduction to the First Three Gospels*(Philadelphia: The Westminster, 1975), PP. 151-153. See also R. C. Foster, *Studies in the Life of Christ*(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2), p. 67.

64) A. T. Robertson,『복음서 대조서』284쪽.

7) 사도행전 70~80년경

8) 요한복음 85-90년경

9) 그러나 사복음서의 기록연대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70년 이전이다. 복음서 기록연대의 70년 이전설과 70년 이후설의 근거가 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은 주후 70년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이다. 이 사건이 마가복음 13절 1절 이하,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 누가복음 21장 5절 이하에 예수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다. 70년 이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보도를 예언으로 믿고 있으며, 70년 이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보도를 '사건 후 예언'(vaticinia ex eventu)으로 믿고 있다.

제4절 Q자료

1. Q자료의 존재를 주장하는 근거들

Q자료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고, 마가복음에는 없는 예수의 교훈을 보도하는 어록집이다.

마태와 누가가 쓴 공통자료인 Q자료는 순서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고, 마태복음의 23%, 누가복음의 22% 정도인 약 250절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Q자료는 마태와 누가의 상호의존설을 배제시키고 있으며, 두 복음서의 공통자료로서 구전이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시키고 있다.

Q자료는 파피아스가 언급한 마태의 초기 아람어 문서라는 견해와 함께 Q와 Logia를 동의어로 쓰는 경우가 많다. 또한 Q자료는 유사한 역본들이거나 여러 자료들의 묶음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V. Tayler), 기록 연대를 주후 50년 이전으로 본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특이한 용어들이나 구분들 또한 문법적 특성들까지도 일치되는 경우들이 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발견되는 두 번씩 기록되어 있는 강화들이 Q자료 가설을 지지한다. 그러나 브루스(F. F. Bruce)는 유사한 사건이나 유사한 강화는 반드시

같은 사건이나 강화의 중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같은 거리에서 일어난 두개의 다른 비슷한 사건을 경찰은 거의 유사한 표현이나 같은 말로서 기술할 수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다.[65]

2. Q자료의 내용

Q자료 내용의 90%가 적극적인 종교적 윤리교훈이며 논쟁적인 요소가 거의 없고, 임박한 심판사상을 강조하고 있다.[66]

3. Q자료의 문제점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상호의존설을 인정하게 되면, Q자료의 존재는 사라진다. 그러나 마태의 주제별 배열과 누가의 여행 중심의 편집으로 볼 때, 어떤 자료의 존재에 대한 의혹을 버릴 수 없게 된다. 한편 유대인들의 교육전통이나 30-40년의 구전시대로 볼 때, 복음을 케뤼그마의 형태로 보존한 교회가 구전을 활용했을 가능성과 Q자료 자체가 구전자료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자료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주장된 자료들이 역사상에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Q자료설도 마찬가지이다. Q자료가 존재했다는 근거자료가 없다. Q자료설은 가설이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누가가 아람어로된 원마태복음서를 사용했다고 주장함으로서 Q자료를 무시하고 있다(Vaganay).

Q자료는 마태와 누가복음의 공통자료에 대한 편리한 상징에 불과하다.

4. Q자료의 목적

---

65) F. F. Bruce, *The New Testament Documents: Are They Reliable?* 32-33쪽.

66) 전경연외 4인,『신약성서신학』35-36, 53-55쪽 참고.

Q자료는 일종의 훈육지침서의 역할을 위해 초대교회의 입교교육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예수를 배척하지 않도록 유대인을 경고하고, 이방인을 하늘나라에 초대하기 위함이다. 또 오고 있는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강화하고 준비시키기 위해 신학화한 어록집이다.

제5절 마태복음의 특수자료 M

1. M자료의 가정 근거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제의 유사성과 용어상의 불일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마태의 특수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아 이를 M으로 설정한다. M자료는 유대적 어조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스트리터는 생각했다.

2. M자료의 주요 특성들

1) 유대적 랍비적 요소
2) 반바리새적 요소
3) 선교적 사명을 담고 있는 점
4) 비유수집. L자료의 비유수집은 주로 교훈적 선교적인 반면, M자료는 주로 종말에 관한 비유가 주종을 이룬다(예수의 비유표 참고하시오).
5) 자료의 삼분의 이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며, 대중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은 불과 십분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 M자료는 학자에 따라서 211-300절 혹은 20-28%까지 그 범위의 폭이 넓다.
6) 논쟁적인 말씀들이 많다.

3. M자료의 특수내용

1) 12개의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인용구절(예수의 탄생과 메시아에 관한 구절들: 1:23; 2:6, 15, 18, 23; 3:3; 4:15-16; 8:17; 12:18-21; 13:35; 21:5; 27:9). 이 12개의 히브리어 성경 인용구절들은 메시아 예언을 수집한 성구집 또는 증언집(Testimonia)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3세기 초 터툴리안과 키프리안 시대에 이와 유사한 증언집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초대교회에 이러한 수집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벌키트(F. C. Burkitt)나 렌델 해리스(J. Rendel Harris)는 마태의 로기아에 관한 파피아스의 언급이 이를 두고 말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바클레이(William Barclay)의 말대로 초대교부들의 로기아라는 말의 사용은 사건과 행위도 포함하는 정경을 두고 사용되었기 때문에 로기아가 Q자료집이나 증언집을 말하지 않는 것으로 믿고 있다.

마태복음에 인용되어 있는 많은 구약의 구전들은 70인경이나 기타의 헬라어 개역본을 참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12개의 인용문들은 명백하게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서 온 것이며, 이들 인용문들은 모두가 ". . . 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비슷한 문구로 시작되고 있다. 여기에는 탄생기사와 메시아에 관한 기사도 포함된다.

2) 탄생기사(1-2장): 요셉 중심의 족보.

3) 비유수집: 천국비유(13장)와 종말비유(18:23-25; 20:1-16; 21:28-32; 22:2-14; 25장).

4) 베드로에 관계된 이야기들(14:28-31; 16:17-19; 17:24-27; 18:15-22).

5) 수난 및 부활 이야기들(26:52-54; 27:3-10, 19, 24f. 51-53, 62-66; 28:2-4, 9-20).

6) 기타(3:14f; 4:23; 9:35; 15:22-24; 17:6f; 21:10f, 14-16).

제6절 누가복음의 특수자료 L

1. 누가복음의 특수내용

L자료는 누가가 가이사랴에서 수집한 구전을 두고 말하고 있다(눅 1:3; 행21장 이후).

1) 교훈적 선교적인 14개의 비유(7:41-43; 10:29-37; 11:5-8; 12:13-21; 13:6- 9; 14:28-30, 31-33; 15:8-10, 11-32; 16:1-9, 19-31; 17:7-10; 18:1-8, 9-14).

2) 탄생기사(1:5-2:52): 마리아 중심의 족보.

3) 기타

①갈릴리 시대(4:16-30; 5:1-11; 7:11-18, 36-50; 8:1-3).

②여행기사들(9:51-56; 10:1-16, 38-42; 11:27-28; 13:10-17; 14:1-6; 17:11-19; 19:1-10).

③수난기사들(22:15-30, 40-46, 47-53; 22:54-23:16, 26-31, 39-43).

④부활기사들(24:1-12, 13-35, 36-49; 24:50-53).

2. 원누가복음 가설(Proto-Luke)

1) 누가가 마가복음을 알기 전에 그 자신의 복음서 초안을 정리했으며, 초안 안을 출판하기 전에 마가복음의 자료들을 삽입했다는 이론이다(B. H. Streeter).

2) 누가는 Q자료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가이사랴에서 수집한 L자료를 결합하여 원누가복음이라 할 수 있는 초안 안을 만들었고, 이 초안 안에 마가복음의 자료들을 보충하여 누가복음서를 출판하였다는 이론이다(V. Taylor).

3. L자료의 특징

1) 많은 설화와 많은 비유(학자에 따라서 264-550절 또는 전체의 23-48%까지도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다).

2) 오 분의 이가 논쟁기사, 삼분의 일이 일반설교, 사 분의 일이

제자들에게 행한 사적인 교훈이다.

3) 여행, 기도, 성령, 배척 등이 주제로 깔려 있다.

①누가복음은 배척의 주제로 시작되고 또한 끝나고 있다(Thompson/4:16-30에서는 나사렛에서 배척당하고, 9:44-45에서는 수난예고를 통해서 배척당할 것이 언급되고 있다. 9:52에서는 사마리아에서 배척당하고, 19:11-27에서는 므나 비유를 통해서 배척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②누가복음은 예수를 여행자로 묘사하고 있다. 예수의 여행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향한 신앙순례로 되어 있다. 특히 9장 51절 이하에서는 예루살렘으로의 출발(9:51-56),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13:22-35), 예루살렘 입성(19:11, 28-48),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수난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의 생애가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과 승천으로 끝나고 있음을 증언함으로서 그의 '영광의 신학'을 대변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예수와 하늘의 인자와의 연속성을 보증할 뿐 아니라,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③누가는 예수를 기도의 모범자로 묘사하고 있다. 누가문서에서 사용된 '기도'란 단어의 사용 빈도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도'와 '기도하다'의 경우 신약성서 전체에서 90회가 사용된 데에 비해서, 47회가 누가문서에 사용됨으로서 52%를 상회하고 있다.

용 어	누가복음	사도행전	신약성서
δεομαι 간구하다	3	5	11
δεησισ 간구	3		12
προσευχομαι 기도하다	19	16	60
προσευχη 기도	3	9	30

예수의 기도생활에 관한 누가복음의 보도를 보면, 첫째,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임재(3:21-22)와 변화산의 체험(9:28-29)을 하셨다. 둘째,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간청의 기도(11:5-13), 끈질긴 기도(18:1-8), 겸손한 기도(18:9-14)였다. 셋째, 예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다. 공생애 시작 전에 금식기도(4:1),

병 고치신 후에 한적한 곳에서 성찰의 기도(5:16), 제자 선택 전에 철야기도(6:12),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기 전에 홀로 기도(9:18),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11:1), 베드로를 위한 중보기도(22:32), 수난 당하시기 전에 피땀의 기도(22:41-46), 박해자를 위한 기도(23:34), 그리고 임종 전에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신 기도(23:46)를 하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생활에 관한 사도행전의 보도를 보면, 첫째, 그들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였다(2:15; 3:1; 10:3,9,30. 비교: 마 27:45-46; 막 15:25, 33-34; 눅 23:44). 둘째, 주로 성전과 집에서 기도하였다(2:1,46; 3:11; 5:12,42). 셋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다. 맛디아를 사도로 뽑을 때(1:24), 성령의 오심을 대망하면서(2:1절 이하), 무시로 생활 속에서(2:42), 능력을 행하기 전에(3:1), 기도응답에 대한 감사의 기도(4:23절 이하), 지도자를 뽑아 안수할 때(6:6), 스데반의 박해자를 위한 기도(7:60),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8:15), 바울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9:17), 환상을 보기 전에(10:3,9), 중보기도(12:5), 선교사를 파송할 때(13:3), 옥문이 열리기 전 옥중에서(16:25), 작별기도(20:36), 그리고 떡을 들어 축사할 때(27:35) 기도하였다.

④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주요 인물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해서 행동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이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를 통한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통한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다.[67]

용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영(Sprit)	12	19	27	17	28
성령(Holy Spirit)	5	4	11	4	41
합계	17	23	38	21	69

제7절 공관복음서 문제 해결 방안

67) 김득중, 『누가의 신학』 238-295쪽.

기록된 복음서들은 매우 일찍부터 권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한 분 독특한 인물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복음서들 자체도 어느 정도는 독특한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복음서 자료들은 예수의 말씀과 행동에 관한 기독교인들의 설교와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형성되었으며, 성령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

1. 복음서 기원에 관한 거쓰리(Guthrie)의 제안

제1단계: 수난기사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설교.

제2단계: 새신자들에게 필요한 교리문답교육을 위한 구전 또는 기록된 자료가 있었을 것이며, 초기의 양식은 아람어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로기아의 관련성은 고려될 수 있다.

제3단계: 베드로의 설교내용을 중심으로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였으며, 그 결과 어록보다는 행동들이 더 많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제4단계: 마가복음이 저작된 후에 마태는 그 사본을 사용하여 교리문답 및 다른 자료들을 혼합하여 확대하였을 것이며, 자신의 자료들 중에는 개인적인 회상으로부터 온 것도 있을 것이다.

제5단계: 마가와 친분이 있었던 누가는 처음부터 일어난 사건들의 진행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남기려는 계획을 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입수할 수 있었던 모든 자료들과 목격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자료들을 연구하였다. 상당한 양의 자료수집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에 이루어 졌을 것이다.

제6단계: 처음에 교회들은 세 복음서들 가운데 한 권만을 권위 있는 것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었을 것이며, 그 이유는 세 복음서 모두 같은 지역에서 회람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후 세 복음서 모두가 보존된 것은 복음서들 사이에 강조점 및 내용의 차이점 때문이었을 것이며, 성령의 영감으로 된 계시적 성격 때문이었을 것이다.[68]

---

68) Donald Guthrie, *New Testament Introduction.*

제4장

복음서 구조와 특징

사복음서는 제각기 다른 구조적 특징[69]을 가지고 있으며, 저자들이 강조하는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마태는 주로 예수를 구약의 모세와 율법보다도 더 권위 있는 분, 특히 말씀에 권위가 있는 분으로 묘사함으로서 예수와 교회가 모세와 율법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를 '~보다 더 큰 이'로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11:11), "성전보다 더 큰 이"(12:6), "요나보다 더 큰 이"(12:41), "솔로몬보다 더 큰 이"(12:42), 다윗보다 더 큰 이(22:45)라고 강조하고 있고, 마가는 '~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특히 행동(이적)에 권위가 있는 분으로 묘사함으로서 고난에 처한 교회와 성도를 능히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으로 강조하고 있고, 누가는 예수를 성령이 충만하신 분, 기도하시는 분, 배척을 받으셨으나 영광의 승리를 획득하신 분,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분으로 묘사함으로써 예수를 성도의 본으로 혹은 구속사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고, 요한은 예수를 선재자, 계시자, 빛과 생명으로 묘사함으로서 예수의 신성을 강조함은 물론, 영지주의를 겨냥하여 예수의 인성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기 다른 사복음서의 구조적 특징을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마태복음

1. 마태복음의 구조

---

69) 김득중, 『복음서 신학』(컨콜디아사, 1986); -------, 『신약성서개론』(컨콜디아사, 1989); --------, 『마가복음 연구』(나단), -------, 『누가의 신학』(컨콜디아사, 1992); --------, 『요한의 신학』(컨콜디아사, 1994) 참고.

마태복음의 특징은 암기에 의존했던 1세기말의 신앙인들이 복음서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다섯 개의 설교를 서로 대칭이 되도록 배열한데 있다. 다섯 개의 설교란 5-7장에 있는 산상설교, 10장에 있는 선교와 순교에 관한 설교, 13장에 있는 8개의 천국에 관한 비유설교, 18장에 있는 교회질서에 관한 설교, 마지막으로 24-25장에 있는 심판, 재림, 종말에 관한 8가지 비유설교를 말한다. 이들 설교들은 마태복음 전체 가운데 47%를 차지하는 분량이다. 그리고 이들 설교들은 한결같이 심판과 보상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다.

이 가운데서 13장에 있는 8개의 천국비유가 마태복음의 핵심이자 중심축이다. 이들 비유들은 천국의 본질과 성격을 설명한다. 먼저 나오는 4개는 배 위에서 군중에게 하신 말씀이고, 뒤에 나오는 4개는 집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13장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5-7장의 산상설교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예수의 말씀의 권위를 들어낸다. 13장을 중심으로 가장 나중에 나오는 24-25장의 심판, 재림, 종말에 관한 8가지 비유는 천국이 임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천국비유와 산상설교 사이에 나오는 10장의 선교와 순교에 관한 설교는 천국의 시작을, 천국비유와 종말비유 사이에 나오는 18장의 교회질서에 관한 설교는 천국의 발전을 다루고 있다.

이들 다섯 개의 설교를 순서대로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다룬 산상설교, 천국의 시작을 다룬 선교와 순교에 관한 설교, 천국의 본질과 성격을 다룬 천국에 관한 비유설교, 천국의 발전을 다룬 교회질서에 관한 설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이 임하는 문제를 다룬 심판, 재림, 종말에 관한 비유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들 설교들을 위한 도입으로써 1-4장은 메시아의 탄생과 출현, 26-28장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소개하고 있다. 8-9장에는 10개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다. 마태복음에는 20개의 기적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10개가 8-9장에 실려 있다. 예수의 이 기적들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 메시아의 권위를, 19-24장은 메시아를 시험하며 멸하려는 적대자들을 침묵케 하심으로 메시아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낸

다. 11-12장은 유대인에게 배척당하시는 메시아를, 마지막으로 14-17장은 제자들에게 인정과 환영을 받으시는 메시아로 서로 대칭을 이루게 하여 기억을 돕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은 '기독교인을 위한 교회 교과서' 혹은 '교리 문답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모세오경보다 더 권위 있는 책으로 의도되었다고 본다.

1) 오중적 구조(Fivefold Structure)

마태복음이 다섯 개의 설교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설이다(B. W. Bacon).

(1) 각 권의 설교는 심판과 보상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론: 그 희망(Ha-Tikvah)족보,(*제2모세/재림모세의)탄생이야기(1-2장)

제1권: 설화(3-4장)/예수의 세례, 시험('그 희망' 시험), 제자선택
산상설교(5-7장)/다가올 세상(Olam-Ha-Ba)의 새 윤리기준(십계명과 토라의 원형)
종결후렴문구(7:28)/"말씀을 마치시매"

제2권: 설화(8-9장)/예수의 10개 표적(모세의 10개 표적의 원형)
선교와 순교에 관한 설교(10장)/배척(올람하바의 출범)
종결후렴문구(11:1)/"명하시기를 마치시매"

제3권: 설화(11-12장)/세례요한에 관한 말씀, 고라신과 벳새다성에 대한 저주, 안식일 논쟁, 바리새인 정죄, 요나의 표적, 참 친척과 형제에 관한 말씀
천국에 관한 8개 비유설교(13장)/올람하바의 본질과 성격
종결후렴문구(13:53)/"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니"

제4권: 설화(14-17장)/(세례 요한의 죽음직후 신분노출과 수난예고) 오병이어, 물위를 걸으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도전, 칠병이어, 신앙고백, (예루살렘으로 오름의 행군을 시작) 변형산
천국(올람하바) 행정에 관한 설교(18장)/18-20장에서 8개 설교
종결후렴문구(19:1)/"말씀을 마치시매"

제5권: 설화(19:2-24:31)/이혼, 자녀, 재산문제, 예루살렘 입성, 천국비유. 이 부분은 말씀과 행동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동보다 말씀이 더 많다./18-20장에 8개 설교, 21-23장 투쟁
심판과 종말에 관한 8개 비유설교(24-25장)/올람하바의 임재
(무화과나무, 노아 홍수, 밭 메는 자, 맷돌 가는 자,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 열 처녀, 달란트, 양염소)
종결후렴문구(26:1)/"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니"
결론: 수난이야기(26-28장)/최후승리, 재탄생(부활)이야기

(2)마태복음의 구조를 모세오경의 패턴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오중적 구조는 유대교 문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학적 관례이다.

①시편은 다섯 권의 책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 각 권이 비슷한 찬양문구로 끝나고 있다.

②메길롯(Megilloth)이라 불리는 다섯 개의 두루마리가 있다: 에스더, 애가, 룻, 아가서, 전도서.

③외경문서인 집회서(Ecclesiasticus)와 에녹서(1-36장, 37-71장, 72-82장, 83-90장, 91-108장).

④잠언은 도입문구와 함께 다섯 부분으로 되어 있다(1-9장, 10-24장, 25-29장, 30장, 31장).

⑤학자에 따라서는 요한 계시록도 오중적 구조로 나누어 보는 경우도 있다.

(3) 이 밖에도 마태육경설, 마태칠경설도 있다.

2) 기독론적 구조(J. D. Kingsbury's Christological Structure)

(1)메시아(*제2모세/재림모세)인 예수의 인품(1:1-4:16)
도입문구: "이 때부터 예수께서 전도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4:17).

(2)메시아인 예수의 선포(4:17-16:20)
도입문구: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16:21).

(3)메시아인 예수의 고난, 죽음 및 부활(16:21-28:20).

종합: 오중적 구조와 기독론적 구조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 마태의 기록목적은 그리스도의 인품과 생애를 전할뿐 아니라, 교훈과 설교를 통해서 당시 기독교인들을 제자교육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3) 설화와 설교의 교체편집 구조

마태복음에서는 설화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종속적 역할을 하고 있고, 설화부분의 마지막 본문이 계속될 설교 부분과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

설화(1-4장): 메시아의 탄생과 출현
제자직에 관한 설교(5-7장): 말씀을 통해 드러난 메시아의 권위(*8복과 복음)
설화(8-9장): 행동(표적)을 통해서 드러난 메시아의 권위
사도직에 관한 설교(10장): 사도들의 선택과 임명
설화(11-12장): 유대인에게 배척당하시는 예수
천국에 관한 설교(13장): 천국(*교회/올람하바)에 관한 8개 비유설교
설화(14-17장): 제자들에게 인정받으시는 예수
교회행정에 관한 설교(18장): 천국의 질서 *18-20장 8개 설교
설화(19:2-24:31): 예수의 말씀의 권위와 초대
종말에 관한 설교(24-25장): 심판, 재림, 종말에 관한 8개 비유 설교
설화(26-28장): 예수의 수난과 죽음
설교(28장 18-20절): 예수의 마지막 위탁명령

4) 교차대칭 구조(C. H. Lorh's Chiastic Structure)

(1)본문구조

┌────1-4장: 예수의 탄생설화
│┌────5-7장: 산상설교/천국(*교회/올람하바)에 들어가는 문제
│└┌────8-9장: 예수의 10가지 표적 행하심(행위의 권위)
│ └┌---10장: 예수의 파송 설교/천국의 시작
│ └┌11-12장: 예수의 배척당하심/
│ ├──13장: 천국에 관한 8가지 비유설교/천국의 본질과 성격
│ └14-17장: 예수의 인정받으심
│ ┌──18장: 천국 질서에 관한 설교/천국의 발전
└┌──19-24장: 예수의 말씀을 통한 권위
└──24-25장: 종말에 관한 8가지 비유설교/천국이 임하는 문제
└────26-28장: 수난설화, 재탄생(부활)

(2)4장 17절과 16장 21절을 중심으로 한 구조

```
┌──────────메시아의 선구자 엘리야(3:4)-세례요한
│┌──────────하늘의 음성(3:17)
│└──────────하늘의 음성(17:5)
└──────────메시아의 선구자 엘리야(17:1-13)
```

(3)기타구조

```
┌──────────예수의 탄생(1장)
│┌──────────임마누엘(1:23)
└──────────부활(28장), 재탄생
```

마태복음의 교차대칭 구조란 마태가 자료를 편집할 때 a, b : b, a 방식으로 배열한 것을 말한다. 예: 마음, 귀, 눈 : 눈, 귀, 마음(마 13:15; 사 6:9-10).

4) 특징

① 설화는 설화대로 설교는 설교대로 서로 대칭을 이룬다.

②천국설교가 핵심을 이룬다.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이 강조되고 있다(4:23; 9:35; 24:14; 26:13). 요한의 설교(3:2), 예수의 설교(4:17), 제자들의 설교(10:7)에서 천국의 임박한 도래를 설교하고 있다.

③암기에 의존해서 살았던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서 자료들을 기억하기 쉽게 편집하였다.

④저자는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자료들을 편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유대주의

1) 모세와 예수의 모형(Moses Typology)

①살해명령: 바로 왕과 헤롯 대왕
②구　　출: 바구니와 천사
③피　　신: 미디안 광야와 애굽
④귀　　향: 애굽과 나사렛
⑤준비기간: 80년과 30년
⑥침　　례: 홍해도하와 요단강 세례(고전 10:1-4)
⑦금　　식: 40일 시내산과 광야
⑧율　　법: 시내산 십계명과 산상수훈(8복)
⑨기　　적: 10가지 재앙과 10가지 기적(8-9장)
⑩변 화 산: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시내산에서 엿새 동안 구름에 쌓여 얼굴에는 광채가 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출 24:1, 9, 15-16; 34:29-35), 엿새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올라 변화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2) 제2모세/ 재림 모세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경부터 모세의 재림을 희망하여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 '그 희망'이 비관적일수록 전천년설적이었고, 혁명을 꾀하는 자들 중에서 자칭 '재림 모세' 곧 메시아가 출현하곤 했었다. 페르시아시대의 인물들 가운데에는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일정부분 이 재림 모세의 범주에 속할 수 있었고, 신구약중간기인 헬라시대에는 유다 마카비(Judas Maccabeus)가 강력한 재림 모세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유다 마카비는 헬라로부터 유대인을 해방시켜 하스몬왕가가 세워지는데 공헌하였고, 주전 64년 로마에 멸망하기까지 100년간 주권을 지속시킨 영웅이자 혁명가로서 재림 모세에 준하는 인물이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30여명의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했었다고 말한다. 그들 가운데 세례 요한, 예수님, 발 코크바, 사베타이 제비

가 포함된다. 민중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것은 그가 재림 모세인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헤롯 안티파스도 요한에게 관심을 보였고, 두려운 나머지 살해하였다. 이라크 남부와 이란 남서부에는 수천 명의 만다야교(Mandaeism)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도 세례 요한을 재림 모세로 믿고 있다.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이 자기가 오실 자로 예언된 재림 모세 곧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신 시점을 세례 요한이 사망한 직후로 적고 있는데, 그 이유가 민중의 일부가 세례 요한을 재림 모세로 믿었기 때문이다.

발 코크바(Bar Kochba, 별의 아들)로 불린 코시바의 아들 시몬(Simon ben Kosiba)은 뛰어난 혁명가였다. 그는 주후 132-135년 사이에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을 선포했고, 그 증거로 그가 찍어낸 주화들도 여러 종류 남아 있다. 그러나 그는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로마제국에 무너짐으로써 유대인들에게 1,800년이 넘게 시련과 실망(Kozeba)을 안긴 인물이었다.

터키 서머나 출생의 유대인 샤베타이 제비(Shabbetai Zevi)는 1665년 5월 31일에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 곧 재림 모세라고 선포한 인물이었다. 그의 주장은 수세기에 걸친 박해와 추방으로 고립무원에서 고군분투하던 온 세계의 유대인들을 일시에 흥분시켰고, 일찍이 그 누구도 얻지 못했던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샤베타이는 1666년 1월 이스탄불에서 반역죄로 체포되어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이슬람교로 전향하여 황실연금을 받았으며 충성스런 무슬림으로서 살다가 1676년 9월 17일 사망하였다.

유대인들이 재림 모세의 강림에 대한 기대를 제2 모세를 예언한 신명기 18장 15-18절, 새 율법과 새 언약시대를 예언한 예레미야 31장 31-33절, 새 성전시대를 예언한 에스겔 37장 25-28절,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예언한 이사야 65장 17-18절에서 찾는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유대인들의 기대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믿는다.

3) 천국 설교

마태복음은 천국 설교가 핵심을 이룬다. 13장에 실린 천국비유 8개가 마태복음의 중심축일뿐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에서 천국복음이 강조되고 있고(4:23; 9:35; 24:14; 26:13), 그밖에도 요한의 설교(3:2), 예수의 설교(4:17), 제자들의 설교(10:7)에서 천국의 임박한 도래와 심판을 설교하고 있다.

이 천국 설교를 오경적 구조로 배치하고 있고, 설화는 설화대로 설교는 설교대로 서로 대칭을 이루게 하여 암기에 의존해서 살았던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서 자료들을 기억하기 쉽게 편집하였다.

이 천국 설교가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천국 설교가 유대인들의 오랜 '그 희망'(하티크바)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2500여 년 전부터 두 가지를 희망하고 있었다. 첫 번째가 메시아(제2모세/ 재림 모세)가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 메시아가 가져올 '올람 하바'(Olam Ha-Ba)이다. '올람 하바'란 '메시아 시대' 혹은 '다가올 세계'(World to Come)를 뜻하며, 흔히 말하는 '종말시대' 또는 '마지막 시대'를 말한다.

4) 구약성경 인용

123번 인용(Westcott와 Hort의 주장). 12개 절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나머지는 70인역 헬라어 개역본에서 인용하였다. 이들의 내용은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과 예수에 대한 모든 사건이 구약예언의 성취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5) 유대적 용어와 표현

①'천국'(Kingdom of Heavens)이란 말을 32번 사용한 반면,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라는 말은 4번밖에 쓰지 않았다(마가 14회, 누가 32회사용과 비교).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의 대용어이다.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칭호로 모세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출 3:14)은 모음은 없고 자음 넉자(YHWH)만 남아 있다. 학자들은 그 발음이 '야훼'(YaHWeH)였을 것으로 추정

하지만, 그마저도 만장일치로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이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거나 기록하는 것을 금했고(신 12:3-4),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자음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이 잊히게 되었다. 그 이름이 맛소라('전통'이란 뜻. 주후 7-10세기경에 모음부호를 만들어 히브리어 성경에 삽입한 학자들) 사본에서 '아도나이'(주님)로 표기되었고, 이것에 근거(YHWH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성)하여 16세기경에 '여호와'(Jehovah)라는 이름이 나타났다. 한편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그 이름'이란 뜻인 '하쉠'(HaShem)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심판의 날에'(10:15; 11:22-24; 12:36)

③"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8:12; 13:43; 22:13; 24:30; 24:51).

④유대적 배타주의(민족주의/ 7:6; 10:5-6; 15:24, 26; 19:28). 바울의 전도방법과 비교하시오. 바울은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면, 그 후 이방인을 대상으로 전도하였다.

⑤모세율법의 계속적 타당성을 강조(5:17-20; 23:3, 23/ 바울의 율법준수 강조와 비교하시오. 롬 6-7장).

⑥'다윗의 아들' 9회 사용

⑦문체에 있어서 교차대칭 구조를 사용하였는가 하면, '혈과 육', '하늘과 땅', '매고 푸는 일'과 같은 평행 표현법(parallelism)을 사용하였으며, 2, 3, 5, 7, 8과 같은 숫자를 즐겨 사용하였고, 특히 숫자 3을 선호하였다.

⑧'올람 하바'(Olam Ha-Ba)와 관련된 종말과 심판에 관한 비유들

⑨유대인들의 생활과 전통 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의 복장(23:5), 맹세습관(5:33-36; 23:16-22), 결혼식 상황(25:1-12), 장로들의 전통(15:1-6), 이스라엘의 역사 지식(12:3-5; 24:35),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미망인과 결혼하는 관습(Levirate/22:24)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보충학습] 더하기 표시로써의 복음: 숫자 6,7,8의 성서적인 의미

먼 옛날 유대인들은 숫자를 표시할 때 알파벳을 사용하였고, 숫자에 숨은 뜻을 담기도 하였다. 이것을 게마트리아(γεματρια)라 부른다. 성경은 대부분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표기한 숫자에는 이런 저런 뜻들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666이란 숫자이다. 이 666에 반대되는 숫자가 888이고, 그 사이에 놓인 숫자가 777이다. 성경에 777이나 888이란 숫자들이 직접적으로 쓰인 경우는 없지만, 성경에 자주 쓰인 3,6,7,8의 뜻을 풀어보면 그 사용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짐작해볼 수가 있다.

먼저 숫자 3은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한다. 삼각형은 지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도형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숫자 3은 완벽 또는 삼위일체를 뜻한다. 구약성경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진 히브리식 표현방식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모스 2장 4절(1:6,9,11; 잠 30:15,18 참고)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죄를 힐책하실 때 쓰신 표현을 보면, "유다의 세 가지 범죄를 인하여 또 네 가지를 인하여"라고 하였다. 우리말 성경에는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라고 번역되었지만, 원어의 뜻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영어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for three transgressions of Judah and for four." 이 말의 의미는 유다의 범죄가 그 한계를 벗어났다는 뜻이다. 숫자 3은 완전수이고, 숫자 4는 그보다 하나가 많다는 것을 말하여 유다의 범죄가 그 정도에 있어서 극에 달하였음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숫자 666이 갖는 의미는 숫자 6이 갖는 의미가 완벽한 삼위일체를 이룬다는 뜻이 된다. 숫자 777과 888도 마찬가지다.

숫자 6은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숫자이며, 인간의 숫자이다. 인간은 항상 부족한 존재이다. 그는 제 6일째 날에 만들어 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성의 동물이요, 언어와 도구를 쓸 줄 아는 만물의 영장이다. 감정을 통제하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킬 줄 아는 동물이며, 의지적인 결단력을 가진 종교적인 동물이다. 그러나 인간은 운명적으로 부족한 피조물이다.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언제나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6이란 숫자는 다른 모든 숫자 위에 있으면서도 완전수 7에는 언제나 하나가 부족한 숫자이다. 그리고 숫자 6은 숙명적으로 완전에 이르지 못한다.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고, 표적을 빗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숫자 666은 완전한 부족과 실패를 의미한다. 숫자 666은 '부족하고 부족하며 또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계시록의 666이 거짓선지자를 의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짓선지자의 가르침이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될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은 실패하고, 실패하며, 또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계시록에서 666은 둘째 짐승이자 거짓선지자로 등장한다. 짐승(therion)이란 말 자체가 헬라어로 숫자 666이 된

다. 이 숫자는 사람의 숫자이다. 그러므로 666은 역사상에 나타난 어느 특정한 인물이기보다는 거짓종교나 철학을 가르치는 자들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을 구원하실 자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한분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수 7을 세 번 사용하여 777로 표시할 수 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을 숫자 7로 표기한다. 7을 완전수와 거룩한 수로 보기 때문이다. 숫자 7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책이 계시록이다. 계시록 전체가 숫자 7로 도배되고 있다고 해도 좋을 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요한복음서에도 숫자 7이 사용되고 있다. 일례로 요한복음서는 예수의 기적을 일곱 개만 소개하고 있다.

유대인들 역시 7을 많이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7일 창조사역이며, 메노라(금촛대)가 일곱 가지로 만들어졌다. 그밖에도 70인, 70이레, 70인역 헬라어 성경 등 숫자 7을 많이 사용하였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상투스(sanctus) 또는 삼성창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 6장 3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와 계시록 4장 8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이다. 이 상투스를 숫자로 표시한다면, 777이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다. 그분은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7), 거룩(7), 거룩(7)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숫자 888은 '구원자'를 뜻하는 헬라어 '예수'('Ιησους)에서 찾을 수가 있다.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을 수치로 환산하면 'Ι(10)+η(8)+σ(200)+ο(70)+υ(400)+ς(200)이 된다. 이 숫자들을 다 합하면 8을 세 번 십진법으로 증폭하는 888(800+80+8)이 된다. 이와 같은 증폭을 트리스메기스토스(trismegistos, '세 번 위대한')라 칭한다. 이는 복을 세 번씩이나 중첩하여 받거나 준다는 뜻으로써 완전한 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철수, 『유대교와 예수』(도서출판 길, 2002), 345-346쪽].

고대 시빌린 신탁(Sibylline Oracle 1:324)에서는 예수를 숫자 8로 표기하고 있다. 8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숫자이자 구원자를 상징하는 숫자이다. 구원과 복의 상징이기도 하다. 숫자 8이 쓰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메시아의 예표인 다윗 왕은 8번째 아들이었다.
-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8명이었다.
- 유대인들이 난지 8일 만에 하는 할례는 갓난아기의 복을 비는 의식이었다.
- 구원의 표인 세례(벧전 3:21)를 베풀기 위해서 중세교회는 물통을 팔각형으로 만들었다.
- 초기교회 교부들은 '주일'(주님의 날)을 '제8일째 날'이라고 불렀다 [Justin, *Dialogue with Trypho*, 41:4.].

숫자 8은 기독교의 복음(7+1)의 성격을 설명하는 숫자이기도 하다. 숫자 8은 완전수 7보다 하나가 많다는 뜻을 갖는다. 따라서 숫자 8은 넉넉한 구원, 넘치는 복을 뜻하며, 살림과 구원, 즉 삶에 플러스를 주는 복음을 뜻한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5절에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앗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일곱 목자, 여덟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군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다. 여기에 쓰인 '일곱 목자'와 '여덟 장군' 즉 숫자 7과 8은 완전한 승리를 상징한다. 특히 숫자 8은 '넉넉히 이긴다. 혹은 이기고도 남는다.' 즉 '플러스 1'의 의미를 갖고 있다. 또 마태복음 5장에는 그 유명한 8복에 대한 말씀이 있고, 1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성격을 설명하는 8개의 비유가 나오며, 22-25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에 관련된 8개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성격을 설명하는 비유들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앗 비유', 맨드라미 씨와 같이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겨자씨 비유',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에 관한 비유' 등이 소개되고 있다. 이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를 숫자 8로 표기한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예수야말로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며, 우리를 풍성하고 넉넉하게 복 주실 '플러스 1'의 존재이시다. 또 예수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되 후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실 수 있는 '플러스 1'의 하나님이시다. 비록 우리 인간이 부족한 '마이너스 1'의 존재일지라도 예수는 우리가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필요한 '플러스 1'의 요인으로 작용하실 수 있다. 비록 우리가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존재일지라도 예수는 우리가 큰 나무로 자라는데 필요한 '플러스 1'의 요인으로 작용하실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밀가루 반죽에 불과할지라도 예수는 우리가 여러 종류의 맛좋은 빵으로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누룩이 되실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의 희생을 상징하는 십자가 표시가 플러스 기호인 점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닌 것 같다. 예수는 우리에게 '더하기'가 되신다. 기독교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하기'가 된다.

3. 세계주의

마태복음은 유대적 배타주의에 입각한 유대적 경향의 복음서이면서도 친 이방적 복음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K. W. Clark).

유대교 지도자에 대한 저주와 유대교에 대한 반박 선언이 많고(23장), 기독교가 유대교를 대신할 것이라는 주제의 비유가 많다(8:12; 12:21; 21:28-43; 22:1-14; 25:1- 30). 두 아들의 비유(21:28-32), 포도원

품꾼 비유(20:1-16), 결혼 잔치 비유(22:1-14), 열 처녀 비유(25:1-13), 달란트 비유(25:14-30), 그리고 최후의 심판 비유(25:31-46)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예수의 족보에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두 이방인 여인들(라합과 룻)을 통해서 예수의 이방인 혈통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헤롯과 그와 함께 한 유대인들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지만, 이방인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 온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예수께서는 어떤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8:1-12)하셨으며, 또 다른 백부장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고백(27:54)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대명을 내리셨다(28:19-20).

4. 종합

(1) 마태의 유대주의는 그가 유대인임을 나타내고, 그의 세계주의는 복음과 기독교의 세계주의를 반영한다.

(2) 역사적 상황의 차이: 유대적 배타주의가 지배적이었던 예수의 삶의 정황과 세계주의가 지배적으로 대두되었던 교회시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C. E. Carlston, S. Brown).

(3) 자료와 편집의 차이: 마태복음의 유대적 배타주의와 세계주의를 자료와 편집의 차이로 설명하려는 학자도 있다(S. Schulz, G. Strecker). 이들은 마태복음의 저자를 이방인으로 간주한다.

(4) 마태복음의 유대적 배타주의는 유대인 기독교인에 의해서 편집되었고, 세계주의는 이방인 기독교인에 의해서 재편집된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E. L Abel). 그러나 마태복음의 구조적 특징은 단일 저자를 지지하고 있다.

5. 마태복음의 제자상

마가는 예수의 제자들을 무지하고 둔해 깨달음과 이해가 없는 자

들로 묘사한 반면, 마태는 제자들을 호의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만일 마태가 마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면, 마태는 마가의 부정적인 제자상을 삭제 혹은 첨가함으로서 마가의 제자상을 수정하였고, 예수의 제자들을 깨닫고 이해한 자들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모습으로 묘사했다고 볼 수 있다.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에 대한 논쟁과 공격이 강조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탁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물위를 걷는 베드로의 용기를 묘사(14:29)하고 있고, 예수로부터 축복을 받고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며(마 16:17-19),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있다(17:24-27).

마태가 마가 자료를 수정한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자들은 예수의 명하신 것을 가르쳐야 할 합법적인 대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묘사해야 했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교회에 대한 사도의 권위를 확립코자 했다는 것이다.

6. 마태복음의 반바울주의설

튜빙겐학파의 관심에 입각하여 브랜돈(S. G. F. Brandon)은 바울의 죽음과 함께 교회 안에 유대민족주의가 지배적 영향을 발휘하던 상황에서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바울의 영향력은 마가복음과 누가문서에 의해서 다시금 활기를 찾게 되었고, 따라서 도덕 무용론이나 율법폐기론과 같은 위험을 견제하기 위해서 마태는 베드로의 우위성을 강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시된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①율법의 절대성과 이방 선교금지(5:17-19; 10:5-6, 23; 15:24)

②가라지 비유(13:24-30)에서 원수를 바울로 해석한다(H. J. Schoeps, H. J. Holzmann, J. Weiss, Brandon)

③예복비유(22:11-13)에서 예복을 선행, 초청을 믿음과 일치시킨다(5:16, 20; 7:21, 24-27).

④열 처녀 비유(25:1-13), 달란트 비유(25:14-30), 최후의 심판 비유(25:31-46)에서 행치 않는 죄와 신실한 행동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계시의 점진성, 예수의 삶의 정황과 초대교회의 삶의 정황, 마태의 세계주의, 바울의 선행강조(롬 6-8장; 엡 2:10; 갈 5:16-25)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결과이다.

7. 제자직에 관한 교훈

헬트(H. J. Held)는 마태복음의 이적설화를 연구하면서 마태가 많은 예수의 이적설화를 수집하여 편집하고 있으나, 그것은 이적설화 자체를 전해 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적설화를 이용하여 기독론, 신앙 및 제자직에 관한 교훈을 제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마가복음에서의 광풍진압설화(4:35-41)를 살펴보면, 마가는 이 설화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께서 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4:41과 시편 107:28-29; 89:9; 65:7과 비교). 또한 마가는 이 설화를 통해서 마귀의 세력이 섬멸 당함을 선포하고 있다(4:39). 귀신을 꾸짖으시듯이 광풍을 꾸짖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예수의 출현이 악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종말론적으로 승리하였음을 선포한다.

마태의 광풍진압설화(8:18-27)를 살펴보면, 마태는 8-9장에서 예수의 10가지 기적 행하심을 수집하고 있는데, 네 번째인 이 광풍진압설화를 제자직에 관한 교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기적 앞에 '제자 됨에 관한 말씀'을 삽입한다(8:18-22).

이 광풍설화에서 제자직에 수반되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광풍의 바다 한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는 것과 같다는 교훈일 것이다.

마태는 이 설화를 통해서, 첫째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포기와 결핍을 각오해야 한다고 가르치며(8:18-20), 둘째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있어서 택해야 할 우선순위를

가르치고 있으며(8:21-22), 셋째 예수의 제자 됨에 있어서 예수와 함께 죽음의 위협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8:23-27).

같은 자료를 소개함에 있어서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가복음은 예수의 행위가 말씀보다 앞서는 데 반해서 마태복음은 예수의 말씀이 행위보다 앞서는 것이 특색이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마태는 예수의 말씀의 권위에 강조점을 두었고, 마가는 예수의 행동의 권위에 강조점을 두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핵심내용설교]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메시아(마 4:1-11)

사람들은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이 땅에서의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내세에 희망을 걸게 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주기를 바라거나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민족에서나 다 마찬가집니다. 특히 역사·정치적 상황이 비슷하고 오랫동안 한을 품고 살아온 유대민족과 우리민족에게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유배이후 메시아사상을 발전시켜왔고, 많은 수의 자칭 메시아들이 나타났었던 것이고, 우리민족은 삼국시대이후 미륵사상을 발전시켜왔고, 역시 많은 수의 자칭 미륵들이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 열심당원 발 코크바이고, 태봉의 왕 궁예입니다. 발 코크바는 '별의 아들' 곧 다윗의 자손 메시아란 뜻으로 지구상에 처음 교회가 설립된 지 102년만인 주후 132-135년 사이에 있었던 제2차 유대전쟁 당시 유대인들과 그들이 존경했던 랍비 아퀴바로부터 메시아로 추앙받았던 혁명가였습니다. 이들 자칭 메시아 또는 자칭 미륵들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 정치·군사적 혁명을 시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혁명들은 백이면 백 다 민중에게 큰 아픔과 시련을 안겨준 채 끝장나곤 했습니다. 발 코크바나 궁예는 말할 것도 없고, 근대에 일어난 혁명들, 예를 들어, 청나라 사람 홍수전의 태평천국의 난(1850-1864), 레닌의 러시아혁명(1917), 우간다의 이디 아민, 이라크의 후세인, 박정희의 군사혁명까지 그들 민족에게 시련을 안기지 않았던 예는 없었습니다.

2천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600년 넘게 제국들의 억압을 받으면서 피폐할 때로 피폐해져 있었기 때문에 당대의 유대인들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더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유대지방이 로마총독의 관할아래 있던 때여서 유대민족

에게 왕이 없었고 또 왕을 둘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특수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메시아란 칭호를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이스라엘나라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 또 바벨론유배이후 많은 예언자들이 '오실 자'로 예언했던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들 칭호를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반란자로 내몰릴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란 죄목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란 칭호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얻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여러 경로란 민중의 입을 통해서, 귀신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자 메시아란 사실이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운명도 다른 여타의 자칭 메시아나 자칭 미륵들처럼 민중의 희생을 담보로 혁명군의 선봉장이 되었어야 했고, 민중에게 큰 아픔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한 여타의 메시아나 미륵들과는 다른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진정한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메시아였음이 더욱 명확하게 밝혀졌고, 그를 따르는 사람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불어났습니다. 또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시련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을 탄압했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자칭 메시아나 미륵들과의 차이를 크게 만든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출생서부터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까지, 마태복음 첫 장서부터 끝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설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장 족보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손임을 입증하였고, 2장에서 베들레헴에 출현한 별은 다윗의 고향에 나타난 다윗의 별을 말하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것과 동방 페르시아에서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3장과 17장의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또 병자들과 민중의 외침을 통해서, 귀신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로마총독과 그의 군사들에 의해서, 심지어 십자가에 매단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패를 통해서조차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메시아란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에서 나지 않고 구차한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목수의 일을 배우며 가난한 시골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마가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2번, 마태복음에 9번이나 언급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메시아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을 백마 탄 왕으로써가 아니라, 나귀새끼를 탄 평화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머리에 왕관을 쓰고 오른 손에 홀을 쥐고 옥좌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고 민중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힘겨운 부역을 명령하는 왕이 아니라,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에 갈대를 쥐고 십자가에 매달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렸던 자들에게서는 들어볼 수 없었던 권위 있는 것이었고,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렸던 자들에게는 독설로 들린 반면, 그들로부터 짓밟히며 살아가던 민중에게는 위로의 말로 들렸습니다. 이 왕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모세오경이나 그 율법을 가르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도 훨씬 더 권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의 모세와 율법보다 더 권위 있는 분, 특히 말씀에 권위 있는 분으로 설명하였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보다(11:11), "성전보다"(12:6), "요나보다"(12:41), "솔로몬보다"(12:42), 심지어 다윗보다 더 큰 분(22:45)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또 이 왕의 행동은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렸던 자들에게서 찾아 볼 수 없는 권세 있는 능력이었고,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렸던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시기와 미움으로 나타난 반면, 질병에 짓눌려 신음하던 민중에게는 치유와 해방과 구원의 환호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 주셨고(마 12:22),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를 고쳐 주셨습니다(마 15:30, 21:14).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마 14:14).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수천의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하신 것은 그분이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메시아임을 증명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가슴에서 나온 민중에 대한 뜨거운 연민과 사랑은 예수님의 삶을 정치・경제・군사통수권을 보장하는 옥좌로 몰아가지 않고, 오히려 인류의 죄 사함과 영생을 위해서 해골의 언덕 골고다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이 왕이 추구한 삶의 목적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죽은 것이 가장 숭고

한 죽음인지를 가장 감동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자칭 메시아나 미륵들과 달랐던 점은 마태복음 4장 1-11절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 미끼를 던지면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혹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물리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혹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직을 시작하기에 앞서 40일간 금식기도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받은 힐문이며 또 메시아직을 마감하는 십자가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힐문이기도 합니다(마 27:40).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하는 이 말은 민중을 구하겠다고 나선 모든 자칭 메시아나 미륵들에게 던져진 유혹의 소리라고 봅니다. 이 말에 함정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자칭 메시아나 미륵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양 또는 미륵인양 또는 신의 아들인양 주제넘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함정에 빠진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을 내세운 양가죽을 쓴 '사람의 일'을 일삼는 늑대들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첫째 자만심을 부추기는 소리요, 둘째 '하나님의 일'과 비교되는 '세상의 일' 또는 '사람의 일'을 부추기는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보리빵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표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는 것을 강하게 뿌리치고 계시고, 마태복음 16장 22-23절을 보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히는 메시아가 되지 말고 제왕으로 군림하는 메시아가 되어 달라는 베드로의 강한 만류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고 꾸짖으셨습니다.

메시아나 미륵처럼 거창한 사명수행을 들고 나온 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한 사람의 일을 하는 자들은 사람들의 괴롬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불순한 생각과 목적으로 무모한 일에 뛰어들면서도 '하나님의 뜻'임을 내세우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어야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 무모

하게 뛰어들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가장해서는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출세만을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하셨고,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 . .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는 것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하나님섬기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에 더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찬양을 받는 일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칭 메시아임을 주장하고 미륵임을 주장했던 자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 좋은 결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에다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로 인류의 구세주로 칭송을 받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방한 자칭 미륵이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천도교를 창도한 최제우가 이 사람입니다. 본래 그의 이름은 제선(濟宣)이였는데, 1859년에 이름을 제우로 바꿨습니다. 제우(濟愚)는 '예수'와 뜻이 같은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최제우는 젊어서 오랜 방랑기를 보냈는데요, 이 시기에 알게 된 천주학 곧 기독교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최제우는 32세 때인 1855년에 49일간의 기도에 들어갔고, 37세 때인 1860년에는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 천사문답(天師問答) 곧 '하늘스승문답'이란 것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시험이란 것이 있는 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한울님이 가라사대, "네가 지금 그릇된 세상을 건지고 도탄에 빠진 창생을 살리고자 하니 그 마음은 아름다우나 그 뜻을 이루고자하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으니, 그러므로 내 너에게 백의제상(白衣宰相)를 주어 금력과 권력으로 천하를 다스리게 하리라." 최제우는 대답하기를, "부귀는 본래 제 소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돈과 권세로서 망하게 되었거늘 다시 부귀로서 세상을 건지라 하시니 이것은 사나운 것을 바꾸는 격이 될 것이라, 저의 뜻은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울님이 가라사대, "부귀가 네 소원이 아니라면 권모술수로서 세상을 건지라." 최제우는 대답하기를, "이 세상은 권모와 간교로서 망하였는데 어찌 다시 적은 꾀로서 백성을 속여 일시의 평안을 도모하겠습니까? 이것도 원치 않습니다." 한울님은 다시 "그렇다면 나에게 조화의 술법이 있으니 이것으로써 세상을 건지라"고 하자 최제우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합니다. "이것은 이치에 어기는 일이라. 만물이 다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이치로 자라고 사는데 어찌 이치에 어기는 술법으로서 세상을 건지겠습니까? 이것도 소원이 아닙니다." 이 일 후로 최제우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한울님이 또한 그릇된 도로써 가르치시니 내 이제부터는 다시 한울님의 명교를 듣지 않으리라"고 결심하고 11일간의 단식에 들어가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의 경지, 곧 "내 마음이 곧 그대의 마음"이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제우는 이 도를 깨달은 지 5년 만인 1864년 고종 원년에 체포되어 "사술로써 병인을 고치고 주문으로써 국가민족을 기만하며, 검가(劍歌)로써 국정을 모반한다."는 죄목으로 참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방했으면서도 반기독교적인 입장을 취했던 최제우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여 사람이 곧 한울님이요(人乃天), 사람과 한울님이 하나(同歸一體)라고 주장하였고, 검무(劍舞)를 추고 검가(劍歌)를 부름으로써 국정을 모반한다는 오해를 받아 참형을 받았던 자칭 미륵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말없이 걸었던 예수님이 추구했던 삶의 목적과 방법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떻게 이뤄지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죽은 것이 가장 숭고한 죽음인지를 가장 감동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제2절 마가복음

1. 마가복음의 구조

마가복음은 130년경 소아시아의 히에라폴리스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의 증언대로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마가가 로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이다.

마가복음은 예수를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특히 행동에 권위가 뛰어나신 분으로 묘사함으써 고난에 처한 교회와 성도를 능히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으로 강조하고 있다.

마가복음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1-8장까지

이고, 후반부는 9-16장까지이다.

전반부에서 예수는 주로 갈릴리를 무대로 활동하신다. 갈릴리는 예수의 고향이며, 제자들을 선택한 장소이며, 성공한 장소이며, 부활 후에 처음 출현한 장소이다. 예수의 갈릴리 사역의 특징은 말씀전파와 병고침으로 나타난다. 후반부에서 예수는 주로 예루살렘을 무대로 활동하신다.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써 이들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심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곳이다.

전반부 1-8장까지에는 예수의 기적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마가복음에는 18개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5개가 8장 이전에 소개되고 있다. 마가복음에 실린 18개의 기적은 마가복음 전체의 25퍼센트에 해당되는 분량이다. 마가는 이들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를 초인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다. 예수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며 자연을 지배하시고 또 그를 시험하며 멸하려는 적대자들을 침묵케 하신다. 그러므로 이 예수는 각종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전반부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에서 절정에 도달한다.

후반부 9-16장까지는 예수의 수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예수의 수난 이야기에는 배척과 배신과 고문과 고통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평화의 왕으로써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뿐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써 시험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조차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으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기이한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예수는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다. 마가는 예수의 수난을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과 핍박과 죽음 너머에 있는 마지막 승리를 보게 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후반부는 백부장의 신앙고백인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에서 절정에 도달한다.

2. 마가복음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

19세기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켈러(Martin Kähler)이후 마가복음은 '확대된 서론을 가진 수난설화'로 믿어져 왔으며, 마가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으로 이해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이해를 배격하는 경향이 있다.

마가복음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전 반 부(1-8장)	후 반 부(9-16장)
서론	본론
기적설화	수난설화
예수=초인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수난 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의 신앙고백 예수=그리스도	백부장의 신앙고백 예수=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갈릴리 사역 (갈릴리는 예수의 고향, 제자 선택장소, 활동본거지, 성공의 장소, 부활 후 첫 출현장소)	예루살렘 사역 (예루살렘은 예수의 배척, 심문, 고난, 죽음의 장소)
예수의 생애와 예배=말씀의 예배	예수의 생애와 예배=성만찬 예배

3. 아레탈로지(Aretalogy)의 복음설

아레탈로지(Aretalogy)란 헬라어 아레테(ἀρετή/힘, 덕, 능력)와 로고스(logos)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능력 있는 활동을 통해서 어떤 종파나 학파의 지도자를 신격화시키는 선전적 이론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수난설화가 첨가된 이적설화'로 이해한다. 아레탈로지에서 기적과 순교 심지어는 부활 승천까지 기술되는 것이 그레코 로망(Graeco-Roman) 전기형태의 문학이라는 주장이다. 이 학설은 비교종교사적 비평의 산물이다.

예: 필로스트라투스(Philostratus),『티아나의 아폴로니우스의 생애』
칼리스테네스(Pseudo-Kallisthenes),『알렉산더의 생애』

4. 이적의 복음설

이는 마가복음을 수난의 복음으로서가 아니라, 이적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신학으로서가 아니라, 승리의 신학으로 보려는 주장이다.

마가복음에는 18개(160절)의 이적설화가 소개되어 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20개의 이적설화가 소개되어 있지만, 단위별로 볼 때, 소개 내용이 마가복음의 내용보다 짧고, 복음서 전체의 크기로 볼 때,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월등히 짧다는 점에서 마가의 기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복음서의 비율보다 높다 하겠다. 기적설화는 마가복음이 전체의 24%, 누가복음이 12%, 마태복음이 4%를 차지하고 있다.

5. 마가의 승리의 신학설

1) 이적설화에서 예수의 승리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①광야시험에서의 첫 승리(1:12-13)

②귀신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1:24)

③귀신을 꾸짖으시고(1:25; 9:25) 축출하심(1:34,39,43; 3:22; 5:40; 6:13)

④귀신들은 예수 앞에서 "엎드려 지거나"(3:11),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다(5:6). 여기서 "엎드려 지거나"(προσπίπτω)는 경배와 예배를 나타낸다.

⑤귀신을 결박할 능력을 가지신 이(3:27)

⑥예수께서는 능력이 많은 분이시기에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며(5:41-42), 자연을 지배하시고, 또 그를 시험하며 멸하려는 적대자들을 침묵케 만드신다.

⑦예수의 기적의 특징은 귀신이든지, 자연이든지(4:39), 적대자들이든지,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으며, "즉각적"(εὐθύς/1:42; 2:12; 5:29, 42; 7:35; 10:52/41회)으로 순종되었다. 이는 예수 그리스

도와 사탄의 세력간의 투쟁의 측면에서 묘사된 것이다.

2) 수난설화에서도 예수의 승리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

①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11:1-11): 평화의 왕으로서의 예루살렘 입성을 뜻한다(Parousia=임재, 오심, 도착).

②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승리(14:32-42): 기도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심.

③십자가에서의 승리(15:37-39):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심"(ἐξπνέω).

④죽음으로부터의 승리(16:5): 부활의 승리.

6. 고난 받는 교회를 위한 승리의 복음

1) 마가복음에 교회가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암시들이 있다.

①사탄이 임할 것(4:15)

②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것(4:17)

③세상의 염려(4:19)

④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8:34)과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할 위험(8:35)

⑤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당할 것(4:7)

⑥유대인의 법정에 넘겨지게 될 것(13:9)

⑦매를 맞게 될 것(13:9)

⑧이방인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호출을 당할 것(13:9)

⑨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할 것(13:12)

⑩모든 이방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13:13). 이러한 고난들은 이미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들이며, 그의 교회도 고난을 받을 것이나 예수께서 승리하셨듯이 그의 교회도 승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2) 마가복음은 고난당하는 교회에 보내진 기쁜 소식이다. 이 고난의 교회에 필요했던 것은 승리의 복음, 승리의 신학이며, 이것을 통해서 마가는 그의 교회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과 핍박과 죽음 너머에

있는 마지막 승리를 보게 하려고 했다.

3) 마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인공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오, 승리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분이심을 전하고 있다.

7. 기적설화의 메시지

1) 마가복음은 '이적의 복음'

언급한 바와 같이 마가복음의 24%가 이적설화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기적설화를 수집한 최초의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기적들은 광풍진압, 오병이어와 같이 자연기적, 귀신축출, 그리고 치유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들 기적들은 결국 예수께서 인간을 자연의 재해로부터 해방하시며, 정신질환자 및 신체장애자를 질병으로부터 고쳐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1:1; 15:39).

2) 마가의 편집자료

마가가 편집한 기적자료를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①두 바다 기적

┌풍랑진압 ⇒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여인 ⇒ 오천 명을 먹이심
| (4:35-41) (5:21-43) (6:35-44) ***유대인 지역**
└물위를 걸으심 ⇒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 사천 명을 먹이심
(6:45-51) (7:24-30) (8:1-10) ***이방인 지역**

②두 급식 기적

┌오천 명을 먹이심(6:35-44)⇒바리새인과의 논쟁(7:1-23)⇒제자들의 우둔함
| (7:18)⇒귀먹은 벙어리 치유(7:31-37)⇒베드로의 신앙고백(8:29)
└사천 명을 먹이심(8:1-10)⇒바리새인과의 논쟁(8:11-13)⇒제자들의 우둔함
(8:17절 이하)⇒벳새다 장님치료(8:22-26)⇒베드로의 신앙고백(8:29)

③ 설명

두개의 바다기적, 두개의 귀신축출기적, 두개의 급식기적, 두개의 신체장애자 치료가 거의 평행을 이룬다. 대표적인 주요 연결 단어는 배와 떡이다(교회와 성만찬).

두 급식 기적(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이 죽어야 했다. (6:4,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있기 위해서 먼저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져야했고(에바다 사건), 또 뱃새다 맹인의 눈이 열려 모든 것을 밝히 보아야했다.

3) 두개의 바다기적(4:35-41; 6:45-51)

이 두개의 기적은 예수께서 고통당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기적과 고통당하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 오셔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들을 구원하신다. 마가에게 있어서 예수의 구원의 행위는 제자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며, 예수의 동정 때문이었다. 이 점은 두개의 급식기적(6:33-43; 8:1-10)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민중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의 마음 때문에 그들을 먹이셨다.

4) 두개의 장애자 치료기적(7:31-37; 8:22-26)

두 명의 장애자중 한 사람은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를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

7장 18절에서 예수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 . 너희도 그렇게 둔하냐. . . 알지 못하느냐"고 한탄하신 후에 귀먹은 벙어리를 고치셨다. 그리고 8장 17-18에서도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고 한탄하신 후에 장님의 눈을 고치셨다.

이 두 기적은 마태와 누가복음에서 수록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두 기적은 예수께서 무리와 떨어진 곳에서 비밀리에 고치셨고, 이들에게 침묵을 명하셨다.

이 두 기적은 베드로의 신앙고백(8:27-30)이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편집된 감이 없지 않다. 이는 제자들의 무지와 몰이해가 강조된 후 귀먹은 벙어리가 고쳐지고, 장님이 고침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귀가 뚫리고 눈이 열린 후에야 비로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즉 마가는 전반부의 많은 설화들을 통해서 예수를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분, 정신적-신체적 장애자를 돌보시며 고쳐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있다. 그리고 예수를 이런 분으로 '듣고' '볼'때에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5)빵의 문제와 신앙(막 8:14-21)

현대인들의 삶이 고달프다, 불안하다는 것을 굳이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가도 지자체도 빚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고, 기업들이 힘없이 무너지는가하면, 헐값에 외국자본에 팔려 나가고 있다. 직장인들은 밥줄이 언제 어떻게 끊길지 모르는 구조조정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고, 사업가들 또한 치열한 경쟁과 불황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느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너나 할 것 없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조선시대 때도 꽤나 가난했던 것 같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411년 일본의 국왕 원의지(源義持)가 태종에게 바친 코끼리가 등장한다. 그런데 조선은 궁색한 나라 살림 때문에, 이 코끼리 한 마리를 감당치 못하고 전라도에서 충청도 또는 외딴 섬 등으로 귀양을 보내곤 한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TV드라마 '명성황후'에서는 경복궁 공사장면들이 등장했었다. 역시 우리들은 여기에서도 궁색한 나라살림을 보게 된다.

가난으로 말하자면, 성서시대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름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기후 조건에다가 풀포기조차 보기 어려운 척박한 땅에서 무엇을 수확할 수 있었겠는가? 참으로 가난했다. 그래서였는지, 복음서에는 빵의 문제가

적지 않게 언급되고 있다.

마가복음 4장부터 8장까지에는 두 개의 바다기적과 두 개의 급식기적 그리고 두 개의 장애자 치유가 나온다. 그리고 난 다음 8장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나온다.

두 개의 바다 기적들 가운데,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야기(4:35-41)는 오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6:35-44)를 향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5:21-43)을 받는다. 풍랑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물위를 걸으셨던 이야기(6:45-51) 또한 사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8:1-10)를 향해서 진행이 되는데, 역시 그 사이에서 귀신들렸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고침(7:24-30)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풍랑과 같은 재해나 각종 질병으로부터 인간들을 고칠 뿐 아니라, 빈들에 모인 수천 명의 가난한 민중의 배고픔을 일시에 해결하고 계시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를 육체적 필요만을 채워주는 분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계속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향해서 진행이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귀먹고 어눌한 벙어리(7:31-37)가 고침을 받고 듣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사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 또한 계속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향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 벳새다 장님(8:22-26)이 고침을 받고 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민중의 빵 문제를 해결했던 두 개의 급식기적들은 귀먹고 어눌했던 벙어리가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듣고 말하게 되고, 장님이 눈을 떠 볼 수 있게 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을 때, 빵 문제를 뛰어넘어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이렇게 귀가 뚫리고, 눈이 뜨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귀가 뚫리지 못하고, 눈이 열리지 못한 종교인들을 예수께서 신랄하게 책망하는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다.

두 개의 장애자 치유기적, 즉 귀먹고 어눌한 벙어리와 벳새다 장님의 치유 바로 앞에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우둔함이 각각 소개되고 있다.

오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우둔함으로 이어지고, 이어서 귀먹고 어눌한 벙어리가 고침을 받고, 그러고 나서 베

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우둔함은 그들이 율법 또는 바리새인 법과 같은 그들의 전통에 매어 본질을 상실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그리고 제자들의 우둔함은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은 제자들의 일부가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은 데서 발단이 되었고, 제자들의 우둔함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7:15-16)는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서 비롯되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일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난하였는데, 이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본질에서 벗어난 비난이었던 것이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다. 인간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전통에 매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는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하셨고, 8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고 하셨으며, 또 13절에서는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고 책망하셨다.

여기서 "사람의 유전"이란 말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세운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세운 교회전통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는 당시 율법을 아는 지식과 행하는 일에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기대했고,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기보다는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과 전통을 더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 분을 일컬어 '귀신들린 자'(요 7:20; 마 12:24)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귀가 뚫리고 눈이 열리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예수가 진정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 또한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우둔함으로 이어지고, 이어서 벳새다 장님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말씀이 나온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우둔함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힐난하며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서 나타난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조상들을 먹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보이라는 뜻이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라는 모세의 말이 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것이고, 그 선지자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했던 것처럼 민중을 먹이는 표적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아니하고, 하늘로서 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했다는 점에서 진정 우둔한 자들이었다. 이에 예수는 마음 속 깊이 탄식하셨고,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8:15)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였던 것이다. 제자들 또한 표적을 보고서도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를 붙잡아 유대인의 왕으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한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요 6:26)고 했다. 이들의 우둔함이 빵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요 6:27)고 하셨다. 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며,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요 6:40)이라고 하셨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요 6:47)고 하셨다. 따라서 예수께서 민중을 먹이신 것은 오로지 자신이 새 시대를 위한 생명의 떡임을 밝히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는 우리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예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의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만큼은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이다.

마가복음 4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 대한 예수의 책망이다. 특히 마가복음 8장 14-38절까지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마가복음 8장 14-38절은 대칭구조를 이루는 두 개씩의 이야기와 제자직에 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 14-21절을 보면, 빵이 없음을 의논하는 제자들의 우둔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1-33절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또 다른 우둔함과 예수의 책망이 나온다. 이 둘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22-26절에 믿음이 없어 치유에 다소 시간이 걸린 뱃새다의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과 27-30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또 다른 하나의 대칭을 이룬다.

그리고 34-38절에 제자직에 관한 말씀이 결론으로 나온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24절과 30절에 나오는 예수의 침묵에 대한 경고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를 좀더 풀어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즉 육신의 일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요, 마음이 둔한 자이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치 못하는 자이다. 이런 사람은 예수가 누구이며,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고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또 기억력이 나쁜 자이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그 깊은 영적인 비밀을 간직하지 못한 자이며,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없는 자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뱃새다의 소경이 서서히 눈을 뜨고 비로소 예수를 바로 보고 또 그 신비한 비밀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눈을 뜨고 예수를 바로 보면, 베드로처럼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며 그 신비한 비밀을 간직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좇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이다. 눈이

멀고 귀가 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된 한 죄수에 불과하겠지만, 눈을 뜨고 귀가 열린 사람이 보고 듣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그를 믿는 자들을 영생에 이르게 할 구세주란 사실을 깨닫고 그 신비한 영적 비밀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바로 빵이 없음으로 의논하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아닌가? 우리가 바로 믿음이 없어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이 아닌가?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닌가? 만의 하나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라도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또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몸 바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론으로 예수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하셨다. 현세보다는 내세를 바라보고,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야겠다.

8. 마가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 비교

전반부 주제

예수는 그리스도(1-8장): "보다 강한 자"에 대한 요한의 설교(1:7-8) ⇒ "너는 내 아들"이란 하늘 음성(1:11) ⇒ 예수의 신적 능력을 입증하는 기적 설화 ⇒ 제자들의 무지(7:18-8:21, *7:35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 벳세다 장님치유(8:22-26) ⇒ 베드로의 신앙고백("주는 그리스도시요"/8:27-30). *8:25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후반부 주제(변형산 사건/모세-몽소승천, 엘리야-승천, 예수-부활승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9-16장): "많은 고난"에 대한 1차 예고(8:31) ⇒ "너는 내 아들"이란 하늘 음성(9:7) ⇒ 2, 3차 수난 예고(9:31, 10:33-34) ⇒ 제자들의 무지(8;33, 9:32-34; 10:35-41) ⇒ 장님 바디매오의 치료(10:46-51) ⇒ 백부장의 신앙고백("하나님의 아들"/15:39). *10:52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오름, 재림 모세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이해=수난의 종)

종합

마태복음 16:16/"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70]

9. 수난설화의 메시지

마가의 공동체가 고난의 교회 혹은 순교의 교회였다는 점에서 수난설화에서 예수는 그들이 기억하고 따라야 할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N. A. Dahl).

1)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의 심문

베드로의 배반 이야기(14:54, 66-72)를 본래의 수난 설화에 삽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예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경우에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한 이야기는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위한 격려"(Nineham)로 사용되고 있다.

마가는 또 베드로의 배반과 예수의 심문을 대조 비교함으로서 용감히 자신을 고백하는 예수와 비겁하게 예수를 배반하는 베드로를 대조시키고 있다. 예수는 가야바의 집 이층에서 대제사장에게, 베드로는 집안 뜰에서 계집종에게 각각 심문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마가의 목적은 배교의 위협에 직면해 있던 초대교회를 경고하고 베드로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Taylor).

2)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15:20-21)

십자가형을 언도 받은 당사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처형장까지 운반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주장과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의 행동은 십자가를 지는 제자직에 대한

70) 김득중,『신약성서개론』64쪽 이하.

일종의 모델로 이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가복음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란 문구는 오직 두 번 나오는데, 한번은 첫 번째 수난 예고를 하시고 참된 제자직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이고(8:34), 또 한번은 예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고통 가운데서이다. 그러므로 일부 학자들은 마가의 수난설화가 역사편찬적인 것이 아니라, 교훈적 혹은 교리문답적이라고 주장한다.[71]

10. 제자상

18-19세기 학자들은 마가를 객관적인 역사가로 이해하였고, 따라서 마가의 제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의 기술은 솔직한 역사적 기록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서 브레데는 마가의 제자상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의 신학적 의도에서 나온 교리적 설명이라고 생각하였다.

위든(T. J. Weeden)은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삼 단계, 즉 무지의 단계(1:16-8:26), 오해의 단계(8:27이하), 배척의 단계(10:14이하)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러한 반제자적 기술은 고난의 시대에 처한 기독교인들을 교훈하고 권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학자들은 설명한다. 또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배교의 위협에 직면한 당대의 교인들을 경고하고, 무지와 실수 속에서 넘어지고 배교한 자들에게는 격려와 위로를 주어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할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즉 마가는 자기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을 모델로 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부정적인 부분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 예수의 수난예고와 제자들의 무지 그리고 제자직에 관한 설교가 세 차례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72]

---

71) 김득중,『신약성서개론』63-64쪽 참고.

72) 김득중,『신약성서개론』70쪽.

┌① 예수의 제 1 차 수난 예고(8:31)
│ ② 제자들의 무지(8:33/베드로가 예수의 수난을 말리고 그 때문
[1]┤ 에 사단이란 소릴 듣는다)
│ ③ 제자직에 관한 설교(8:34-38/"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 자기를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① 예수의 제 2 차 수난 예고(9:31)
│ ② 제자들의 무지(9:33-34/예수를 따라가는 길에서 누가 더 높
[2]┤ 으냐고 서로 다투었다)
│ ③ 제자직에 관한 설교(9:35-37/"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 맨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① 예수의 제 3 차 수난 예고(10:33-34)
│ ② 제자들의 무지(10:35-40/야고보와 요한이 하늘 영광의 자리
[3]┤ 를 요구한다)
│ ③ 제자직에 관한 설교(10:42-45/"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 되려고 하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 .")

[핵심내용설교]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아들(막 8:14-25)

마태가 예수님을 권세 있는 말씀을 많이 하신 분으로 소개한 반면에 마가는 권세 있는 행동을 많이 하신 분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기적이야기가 각각 20개씩 있고, 마가복음에 18개가 있지만, 이 18개가 마가복음 전체분량의 사분의 일을 차지할 만큼 많은 분량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이야기들을 수집해서 처음으로 소개할 필요를 느낀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태의 활동무대가 주로 헬라문화권이었다면, 마가의 활동무대는 라틴문화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헬라문화권의 특징은 철학적이고 사변적이어서 논쟁이 많고 말씀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라틴문화권의 특징은 예술과 문화활동이 많은 곳이어서 행동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였습니다. 따라서 헬라권의 유대인기독교회를 섬겼던 마태는 유대인들이 크게 관심하는 말씀 쪽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말씀에 권세가 있는 분으로 소개하였고, 라틴권의 이방인기독교회를 섬겼던 마가는 로마인들이 크게 관심하는 행동 쪽에 초점을 맞춰서 행동에 권세가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마가는 복음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놓고, 복음서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18개의 기적을 행하는 장면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전반부의 내용만으로

보면, 예수님은 정녕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못 고칠 병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고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구원의 팔을 펴기에 능하신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고통을 겪는 자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활동무대는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지역이었습니다. 이곳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자, 제자들을 선택했던 장소이며, 비록 짧은 기간의 활동이었지만 성공을 거두게 해준 장소이며, 부활 후에 제일 먼저 찾으셨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가장 큰 이유는 민중을 불쌍히 여긴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갈릴리활동에서 성공한 진정한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자유자재로 행하신 데 있지 아니하고 민중을 불쌍히 여기신데 있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민중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민중의 배고픔에 함께 배고파하시고, 민중과 함께 먹고 마시고, 민중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신 데에 성공의 비결이 있었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명예와 권세와 돈을 가지고는 결코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허리를 굽힐 때, 눈높이를 맞출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후반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권능을 행하고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며 보리빵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은 겉보기에는 대단한 모순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보게 되면 큰 교훈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후반부의 무대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정치종교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체포되어 심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십니다. 갈릴리에서는 소외된 민중을 대상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시며 폭풍을 잔잔케 하시며 보리빵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는 마치 머리털 잘린 삼손처럼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맥없이 희생

당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당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좌절과 절망이기보다는 오히려 고통당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전반부 기적이야기보다는 오히려 후반부 수난이야기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가운데 9-16장까지의 후반부 수난이야기를 마가복음의 본론이라고 부르고, 전반부 1-8장까지의 기적이야기를 마가복음의 긴 서론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복음의 핵심이 기적이야기에 있지 않고 수난이야기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갈릴리지역 활동에서 나타난 기적이야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지역 활동에서 나타난 수난이야기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수난이야기를 본론이라 부르고 기적이야기를 서론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서 전반부 기적이야기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말씀의 예배인 설교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수난이야기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성만찬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설교에 있지 않고 성만찬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예배는 성만찬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잘못된 가톨릭미사예배를 고친다는 것이 그만 예배에서 설교를 복구하는 대신에 성만찬예배를 제한시켜 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예배가 빠진 예배는 잘못된 예배요 반쪽예배 곧 드리다만 예배란 것이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수난 이야기에는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수님이 배척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절망의 배후에 승리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입니다. 평화의 왕으로써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뿐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어린 기도로써 하나님의 일 곧 십자가의 길을 결심하셨고,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으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기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무덤에 묻히신 후에는 40여시간만에 무덤을 박차고 나와 사망권세 이기셨고, 승천하여 하나님우편에 앉아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란 고난을 당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뿐 아니라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 결국 영광을 쟁취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수난이야기를 소개한 이유는 그분의 수난을 통해서 비슷한 고난을 겪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현재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죽음 너머에 기다리는 궁극적인 승리 곧 최후의 승리를 보게 하려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전반부에 소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곧 귀먹고 어눌한 벙어리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며 벳새다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폭풍 속에서 건져주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눈이 뜨인 자가 되고 귀가 열린 자가 되고 혀가 풀린 자가 되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소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수난의 정점에서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된 것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눈이 뜨인 자가 되고 귀가 열린 자가 되고 혀가 풀린 자가 되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신비를 깨달아 아는 자만이 먹을 빵이 없는 절박한 순간에도 세상의 일에 억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 곧 복음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빵 일곱 개와 생선 두어 마리로 약 사천 명을 먹이신 표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게 한 것과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집의 가루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게 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한 표적과 같은 하늘로써 내린 표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죽이기로 작정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여전히 하늘로써 내리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행해 보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며, "하늘로써 내린 기적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믿겠다."식의 희롱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삼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말고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다른 어떤 표적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4-38절을 보면, 대칭구조를 이루는 두 개씩의

이야기와 제자직에 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봅니다.

14-21절을 보면, 빵이 없음을 의논하는 제자들의 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1-33절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또 다른 무지와 예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2-26절에 믿음이 없어 치유에 다소 시간이 걸린 벳새다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과 27-30절에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또 다른 하나의 대칭을 이룹니다.

그리고 34-38절에 제자직에 관한 말씀이 결론으로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라고 한 26절과 3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침묵에 대한 경고입니다(참고. 3:12, 7:36, 9:9).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를 좀더 풀어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빵의 없음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즉 육신의 일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요, 마음이 둔한 자이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치 못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고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또 기억력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깊은 영적인 비밀을 간직하지 못한 자이며,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다하더라도 벳새다소경이 서서히 눈을 뜨고 비로소 예수님을 바로 보고 또 그 신비한 비밀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로 보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며 그 신비한 비밀을 간직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멀고 귀가 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한 사형수에 불과하지만, 눈을 뜨고 귀가 열린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은 자

를 살리시고 또 그를 믿는 자들을 영생에 이르게 할 구세주란 사실이며, 그것을 깨닫고 그 신비한 영적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빵은 먹고도 죽는 빵이요(요 6:58),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은 먹고 죽지 않는 하늘로써 내려온 산 빵이라고 하시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요 6:27)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먹고 살 빵이 없음만을 걱정하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 자들이 아닌지 반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믿음이 없어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이 아닌지, 믿음이 없어 귀가 먹고 혀가 어눌한 자가 아닌지 반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의 일과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닌지 반성해보기를 원합니다.

제3절 누가복음

1. 누가복음의 구조

누가복음은 안디옥 출신의 의사 누가가 기록하여 데오빌로에게 헌정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복음서이다. 누가는 예수를 성령충만하신 분, 기도하시는 분, 배척을 받으셨으나 영광의 승리를 획득하신 분,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분, 가난한 자, 세리와 죄인, 여인, 사마리아인, 이방인에게 남다른 관심을 보이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다.

누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읽을 수 있다. 1-3장은 서론에 해당되고, 대략 4장에서 9장까지가 예수의 갈릴리 사역, 10장에서 19장까지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그 나머지가 예수의 예루살렘에서의 활동 내용이다.

누가복음은 여행, 성령, 기도, 배척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예수의 여정을 9장 51

절부터 19장 44절까지에 담고 있다. 누가복음 전체 가운데 42퍼센트를 차지하는 많은 분량이다.

둘째, 누가복음은 성령의 활동을 강조한다. 예수를 통한 성령의 활동을 강조한다. 성령에 관한 단어가 마태복음에 17회, 마가복음에 23회, 요한복음에 21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38회나 나온다. 사도행전에 쓰인 69회까지 합하면 무려 107회나 된다.

셋째, 누가복음은 기도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도에 관한 단어가 신약성서 전체에서 90회 사용되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그 절반이 넘는 47회나 사용되고 있다. 누가는 마가나 마태가 보도하지 아니한 부분인 '기도하실 때'에 예수께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셨으며, '기도하실 때'에 변화산의 체험을 하셨다고 적고 있다. 또 누가는 예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넷째,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고향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배척당하신 일을 통해서 신앙인들도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배척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받아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례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또 예수께서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물리치신 것처럼,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신앙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 갈 것을 교훈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누가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2. 누가문서의 통일성

누가문서란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말하며, 이 두 책을 요즘 와서 두 권의 책으로 보기보다는 단행본의 제 1권과 제 2권으로 보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누가문서의 통일성은 두 문서의 구조적 유사성에서 찾고 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여행을 주제로 삼고 있다. 누가복음

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예수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9:51-19:44), 사도행전은 로마를 향해 움직이는 바울의 여정을 담고 있다(13-28장).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예루살렘 여행이 누가복음 전체의 42%(10장)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가복음에는 한 장, 마태복음에서는 두 장만이 여행부분을 다루고 있다.

누가문서는 성령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를 통한 성령의 활동,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통한 성령의 활동을 강조한다(N. Perrin).

누가문서는 기도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누가는 마가나 마태가 보도하지 아니하는 부분인 '기도하실 때'에 예수께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셨으며(3:21-22), '기도하실 때'에 변화산의 체험을 하셨다(9:28-29)고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누가는 예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공생애 전에 금식기도(4:1), 병 고치신 후 한적한 곳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5:16),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철야기도(6:12), 제자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전 홀로 기도(9:18),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 기도(11:1), 베드로를 위한 중보기도(22:32), 겟세마네기도(22:41-46), 십자가상에서 박해자를 위한 기도(23:34), 그리고 임종 전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23:46)를 하셨다. 또한 예수께서는 간청의 기도(11:5-13), 끈질긴 기도(18:1-8), 그리고 겸손한 기도(18:9-14)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생활에 관해서도 누가는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시간을 정해서 하루 세 번씩 기도하였다(행 2:15; 3:1; 10:3,9,30; 마 27:45-46; 막 15:25, 33-34; 눅 23:44). 기도장소는 주로 성전과 집에서 행하였다(2:1,46 ;3:11; 5:12,21,42). 그들도 예수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다. 맛디아를 뽑을 때(1:24), 성령을 대망할 때(2:1이하), 무시로 생활 속에서(2:42; 10:3,9), 병자를 고치기 전에(3:1), 감사의 기도(4:23이하), 지도자를 뽑아 안수할 때(6:6), 스데반의 박해자를 위한 기도(7:60), 성령의 외적 증거를 위해서(8:15; 9:17), 중보기도(12:5),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13:3), 옥중에서(16:25), 작별기도(20:36), 그리고 축사(27:35) 등의 기도를 하였다.

누가문서의 구조적 통일성(K. F. Nickle)

①데오빌로에 대한 헌정사(눅 1:1-4; 행 1:1-5)

②성령의 충만(눅 3:21-22; 행 2:1-4)

③공적활동 이전에 있는 40일(사도들의 경우 50일 혹은 10일)간의 준비기간(눅 4:2; 행 1:3)

④공적활동이 배척당할 것이라는 설교로 시작됨(눅 4:16-30; 행 2:14-40)

⑤권위 있는 교훈과 능력 있는 행동들 때문에 다툼과 불신이 생겨남(눅 4:31- 8:56; 행 3:-12:7)

⑥이방인 저명인사에 대한 선교(눅 10:1-12; 행 13:1-19:20)

⑦예루살렘 여행과 순교(눅 9:51-23:49; 행 19:21:17)

3. 구원사(History of Salvation)의 연속성

1) 사무엘과 세례요한

누가만이 세례요한의 탄생설화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의 세례요한은 사무엘상 1장의 사무엘의 유형을 따라서 소개되고 있다. 목적은 구약과 신약,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연결시키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데 있다.

①양가의 부모가 모두 제사장 출신이다.

②이들의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다.

③이 둘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들이었다.

④이들은 모두 왕의 임직을 위한 선구자들이었다. 사무엘은 사울왕의 임직을 위한 선구자요, 요한은 왕중의 왕이신 예수의 선구자였다.

⑤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올리브기름을 부음으로서, 요한은 예수를 침례 함으로서 각각 대관식을 거행하였다.

⑥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예언자시대의 연결자였으며, 요한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연결자였다.

⑦마리아의 찬송과(1:46-55) 한나의 찬양

2) 세례 요한과 예수

이 두 분의 탄생설화를 나란히 편집하여 소개한다. 목적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데 있다.

①양가의 부모소개(1:5-7; 1:26-27)
②천사의 등장(1:8-17; 1:28-33)
③사가랴와 마리아의 의심과 천사의 답변(1:18-19; 1:34-37)
④해산(1:57; 2:6-7)
⑤축하객 방문(1:58; 2:20)
⑥할례와 명명(命名/1:59-64; 2:21)
⑦하나님의 행동과 요한의 역할에 대한 예언적 찬양(1:67-79; 2:22-38)
⑧두 아기들의 성장(1:80; 2:40)
⑨요한의 설교와 예수의 설교 및 생애와 순교
⑩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고,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3) 예수와 베드로

목적은 예수 시대와 사도시대의 연속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데 있다.

①두 분은 공생애 직전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였다(눅 3:21; 행 2:1-4).

②두 분의 공생애는 예언의 성취와 배척이란 주제로 설교를 시작한다(눅 4:16- 30; 행2:14-40).

③두 분은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눅 5:17-26; 7:11-17; 행 3:1-10; 9:36-43).

④두 분은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린다(눅 5:29-6:11; 행 4:1-8:3).

⑤예수는 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셨고,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가정을 구원시켰다(눅 7:1-10; 행 10장).

4) 예수와 바울

바울의 삶은 예수의 삶을 닮고 있고, 예수를 모델로 삼고 있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바울을 통해서 다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①이방선교에 대한 관심(눅 1:1-12; 행 13-20장)

②두 분은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알면서도 그 곳을 향해서 여행한다(눅 9:51이하; 행 20-21장).

③예수는 공회와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심문을 받는 데, 바울도 공회와 헤롯과 로마 총독들(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심문을 받는다.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23:4, 14, 22) 예수를 무죄로 선언하였는데, 바울도 루시아(23:9), 베스도(25:25), 그리고 아그립바(26:31)로부터 각각 무죄를 선언 받고 있다.

④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두 분을 "없이하소서"하고 외쳤다(눅 23:18; 행 21: 36).

⑤두 분이 "떡을 들고 축사한 후 떼어" 주시는 것으로서 기록되고 있다(눅 22: 19; 행 27:35).

⑥귀신축출이야기(눅 4:35; 행 16:18)

⑦예수의 중풍병자 치유와(눅 5:17-26) 바울의 앉은뱅이 치유(행 14:8-14)

⑧예수의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심과(눅 7:11-17) 바울의 유두고 회생(행 20:9-12)

⑨예수를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가 하면(눅 6:19), 바울의 몸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병자가 낳았다(행 19:11).

⑩사람들이 예수께 두려워서 떠나 주기를 간청하였고(눅 8:37), 치안관들이 바울에게 떠나 다른 곳으로 가 줄 것을 간청하였다(행 16:39).

5) 예수와 스데반

예수의 죽음과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다. 순교자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온다. 예수의 구원사역은 완성된 사역으로서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었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계속성은 즉 주의 종들을 통한 구원사역은 사도행전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①두 분이 공회 앞에서 심문을 받는다(눅 22:66-67; 행 6:12).

②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거짓증언(눅 23:2; 행 6:13)

③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순교 당함(눅 23:6; 행 6:11)

④죽기 전에 드린 박해자를 위한 기도가 같다(눅 23:34,46; 행 7:59-60).

⑤인자의 영광에 관한 말씀(눅 22:69; 행 7:56)

⑥두 분의 순교는 복음 확장의 효과를 가져왔다(눅 23:39-43; 행 8:1이하).

6) 베드로와 바울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간에 분명한 연속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①두 사람의 사역의 출발이 선교로 시작되고 있다(행 2:14-40; 13:8-10).

②두 사람이 각각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들을 고치고 있다(행 3:2-8; 14:8-10).

③두 사람의 신유의 능력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다(행 5:15; 19:12).

④베드로가 시몬이란 마술사를, 바울이 엘루마란 마술사를 저주하였다(행 8:9-24; 13:6-12).

⑤베드로가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였고, 바울은 에베소의 12제자에게 안수하여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였다(행 8:14-17; 19:1-6).

⑥베드로는 죽은 도르가를 다시 살렸고,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살렸다(행 9:36-43; 20:9-12).

⑦베드로와 바울이 각각 귀신들린 사람을 고쳤다(행 5:16; 16:18).

⑧두 분이 각각 예배와 제사 받기를 거절하고 있다(행 10:25-26; 14:13-15).

⑨두 분이 각각 박해 가운데서 바리새인의 변호를 받는다(행 5:34-39; 23:1-9).

⑩옥에서 채인 착고가 풀린다(행 12:6-11; 16:24-26).

이와 같이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구약에서 신약에로, 예수에게서 초대교회로, 유대 기독교에서 이방 기독교에로, 그리고 과거에서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4. 예수와 바울의 대비(對比)

1) 학자

H. H. Evans, Bruno Bauer, Richard B. Rackham, M. D. Goulder

2) 유대교와의 관계

①두 분 모두 율법을 따라 철저한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모독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②두 분 모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③두 분 모두 부활에 대한 바리새적 교리를 인정하고 있다.

④두 분 모두 성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눅 4:18; 행 9:22; 17:3) 그가 고난을 당한 후에(눅 24:26,46; 행 17:3)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눅 18:33; 24:46; 행 13:33; 17:3; 26:23)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복음이 유대인에게(눅 14:47; 행 26:23) 그리고 이방인에게(눅 24:47; 행 13:47; 26:23; 28:28) 전파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3)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①하나님의 종: 두 분 만이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택했다"는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전파하고 가르쳤다(눅 9:35; 행 9:15).

②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두 예정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누가문서에서 사용된 δει는 오직 예수와 바울에게만 사용되었다(행 1:16만 제외, δει=must).

③**성령, 계시 및 천사**: 세례와 관련해서 성령을 받고(눅 3:21-22; 행 9:17-18) 충만하였다(눅 4:1; 행 9:17; 13:9). 변화산과 다메석 도상에서 각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눅 3:21-22; 9:35; 행 9:4).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사의 도움과 바다풍랑 가운데서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눅 22:43; 행 27:23).

④**표적과 기사들**: 예수와 바울의 기적들이 평행을 이룬다. 귀신축출(눅 4:35; 행 16:18), 중풍병자와 앉은뱅이치유(눅 5:17-26; 행 14:8-14),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과 유두고의 회생(눅 7:11-17; 행 2:9-12), 신유의 능력(눅 6:19; 행 19:11)이 비슷하고 두 분 다 각각 마을 주민과 치안관들에게 마을을 떠나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눅 8:37; 행 16:39).

⑤**이방인에게로 돌아섬**: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파될 것이나 그들이 복음을 배척할 때는 이방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누가의 강조점이었다. 유대인들은 두 분을 박해하였고,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파되었다(눅 4:16-30; 행 13:46; 18:6; 20:25; 28:23-28).

4) 예루살렘여행과 수난

누가문서에서의 여행은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이 주제는 복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것을 드라마화 하고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전도여행이,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전도여행이 중요한 위치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예수와 바울이 각각 그들 생애의 크라이막스에서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행을 결심하였고,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을 알고 있었다(눅 18:31-33; 행 20:22-23).

예수와 바울은 재판을 각각 4회씩 받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에게 예수와 바울을 고소한 내용도 같다. 백성을 미혹한다(눅 23:14; 행 24:5). 가이사의 칙령을 반대한다(눅 23:2; 행 17:7). 백성을 선동한다(눅 23:5: 행 24:5). 자신을 왕이라고 한다(눅 23:2; 행 17:7).

예수(누가복음)	바울(사도행전)
산헤드린(22:54-71)	산헤드린(22:30-23:10)
빌라도(23:1-5)	벨릭스(24:1-27)
헤롯 안디바(23:6-16)	베스도(25:1-12)
빌라도(23:19-25)	헤롯 아그립바 2세(25:13-26:32)

유대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베스도 총독은 이들에게서 죽일 죄를 발견치 못했다. 빌라도는 예수를, 아그립바는 바울을 놓으려고 했으나(눅 23:16,20; 행 26:32), 무리들이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하소서"라고 외쳤다(눅 23:18: 행 21:36).

이밖에도 바울이 배 안에서 나눈 식사가 성만찬이 아니더라도, 예수의 성만찬과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한다. 예수와 바울이 각각 떡을 들어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떼어먹게 하고 있다(눅 22:19; 행 27:35).

누가가 예수와 바울의 대비를 통해서 보려 주려 했던 목적은, 정치 혹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수와 바울은 이스라엘의 전통에 충실했다는 것, 율법, 회당, 부활신앙 등, 구약성서에 충실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서도 예수와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지배되고 성령에 의해 인도되던 하나님의 그릇들이며 기적과 표적들에 의해서 입증되었다는 것,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배척당하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와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했고,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은 예수처럼 혹은 바울처럼 죽음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혹은 박해받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굳센 신앙으로 이를 극복하고 이겨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5. 누가문서의 기록목적

누가문서의 기록목적으로 그 동안 주장된 이론은 다음과 같다. 유대기독교를 향한 바울의 변증(S. G. F. Brandon, Etienne Trocome),

희랍-로마세계를 향한 복음 전도(F. F. Bruce, J. C. O'Neil), 로마당국을 향한 변증(H. Sahlin, B. S. Eeaston), 재림지연에 대한 응답(H. Conzelmann), 반영지주의적 목적(C. H. Talbert)이 있으나 누가문서의 주된 기록목적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구속사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기독교의 정당성과 로마당국을 향한 기독교의 합법성을 변증하고, 배척가운데서도 기도와 성령충만으로 천로역정(天路歷程)을 마치게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누가문서에서 예수를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로 구약예언의 성취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의 능력 행함과 놀람과 표적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반부(1-12장)에서는 성령을 통한 예수의 사역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서 기독교를 변증하고 있고, 후반부(13-28장)에서는 로마의 관리들이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던 선례들을 밝히고, 또 기독교가 유대교 안의 한 종파에 지나지 않음을 밝힘으로서 그 당시 유대교가 누리고 있던 공인종교의 혜택을 기독교도 받아야 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6. 누가의 정치적 변증

누가복음에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를 대변이나 공포하고 있으며(눅 23:4, 14, 5, 22) 예수를 세 번 방면해 주려고 했음을 강조하고 있다(눅 23:16, 20, 22). 이는 마태나 마가복음에서 보기 힘든 구절들이다.

사도행전에서는 천부장 루시아(행 23:29-30)와 베스도 총독(행 25:18, 25), 그리고 아그립바 2세가(행 26:31) 바울의 무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가급적 방면코자(행 26:32) 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누가는 바울의 선교활동에 대한 로마당국자들의 최종판단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또한 로마당국과 기독교와는 정치적인 대립이나 적대관계에 있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누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당국이 바울에게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행 23:29이하, 24:23; 27:3). 또한 누가는 로마당국이 바울을 석방하려고 했음을 강조하고 있다(행 26:32; 28:18).

누가는 바울을 박해한 것은 악의를 품은 유대당국자들이라는 점을 사도행전 처음부터 강조함으로서 바울의 선교활동은 로마당국자의 눈에 결코 죄가 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누가의 목적은 예수와 바울의 정치적 무죄를 밝히는데 있고, 로마당국이 그들에게 보여준 호의를 돋보이게 하는데 있다. 이런 것은 로마와 기독교간의 우호적 평화적 관계유지를 위한 의도적 강조라고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마가와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 백부장의 고백인 '하나님의 아들'(막 15:39; 마 27:54)이 누가복음에서는 '의인'(눅 23:47)으로 기록되고 있고, 죄패에 대한 기록에서도 마가와 마태처럼 죄패(막 15:26; 마 27:37)라고 하지 않고, 그냥 패라고만(눅 23:38) 기록함으로서 예수의 무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밖에도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로마관리들에 대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7장 10절에서 백부장의 큰 믿음이 강조되고 있고, 23장 36절에서 로마군인들이 예수에게 가시관을 씌운 일, 갈대로 머리를 때린 일, 그리고 침을 뱉은 일 등을 누가는 생략시키고 있다.

사도행전에서는 로마의 고급관리들이 기독교 신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하면, 고넬료와 같이 개종하는 경우도 싣고 있다(10장; 13:7-12; 24:24).

이제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로마총독 빌라도는 예수의 활동에 대해 무죄를 확인했고, 선언했으며, 석방하려 했고, 로마총독들인 벨릭스와 베스도도 바울의 활동에 대해서 무죄를 확신했고, 선포했으며, 석방하려고 하였다. 누가는 로마당국의 관리들이 예수와 바울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음을 강조하는 한편, 로마의 고위 관리들이 기독교에 개종한 자가 적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누가의 정치적 변증의 목적도 로마당국의 호의를 얻기 위한 것이며, 독자들에게 로마당국과 기독교가 서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음을 인식시키고, 당대의 로마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제거하며, 로마당국과 기독교간의 적대감을 제거함으로서 세계선교의 목적을 달성키 위한 선교정책이었다.

7.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누가복음 4장 16-30절의 나사렛에서의 예수의 배척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갈릴리 활동이 끝나기 직전에(6:1-6),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갈릴리 활동의 절정기에(13:53-58)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누가는 이 말씀을 예수의 공생에 활동의 첫 사건으로 예수의 첫 번째 설교형태로 보도하고 있다. 이 구절들은 누가의 전략적 본문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예수의 활동전체를 예시해 주는 요약적 본문이다. 이 말씀은 예수의 예루살렘에서의 수난과 그의 공생애 기간 중의 유대인들의 배척에 대한 예시이다. 이는 또한 예수의 생애에 배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승리하였으며,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에게 배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갔음을 암시하는 오리엔테이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연합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자들은 누가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 됨에 관한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행 10:34-36; 눅 1:79; 2:14; 19:38, 42). 본문에서 언급된 엘리야의 사렙다(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이러한 연합의 전례 또는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4장 25절에서 강조된 기근은 누가문서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사이에서 연합에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다(행 11:27-30). 이러한 연합에의 관심은 백부장의 종의 치유 이야기(눅 7:1-10)에서와 고넬료 가정의 개종이야기(행 10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8. 누가의 종말론

누가의 종말론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누가문서의 기록동기가 지연된 재림을 설명하기 위한 설(지연된 종말론/행 1:6-8; 눅 9:27;

17:2이하; 19:11; 21:7-8, 20-24)도 있고, 재림의 지연 상황에서도 오히려 재림과 종말의 임박성과 긴급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설(임박한 종말론/눅 3:7, 9, 17; 9:27; 10:9, 11; 12:38이하; 18:7-8; 21:31-32, 34)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한다는 설(현재적 종말론/눅 10:23-24; 11:20; 17:20-21), 그리고 각 개인의 생명의 종말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다는 설(개인 종말론/눅 12:20; 16:19-31; 23:43; 행 7:55-60; 14:22)도 있다.

이상의 모든 종말론은 모두 누가문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중적 경향이다. 즉 현재적 종말과 미래적 종말을 모두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묵시문학적인 열광주의를 겨냥해서 종말의 지연을 강조하였고, 둘째는 종말에 대한 소망을 부인함으로서 신앙을 상실하고 도덕이 해이해져 가는 위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 윌슨(S. G. Wilson)은 설명하고 있다. 이는 현재종말과 미래종말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표현한 것이다.

9. 누가복음의 제자상

누가는 마가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자들의 명예에 손상이 되며,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마가의 진술과 표현들을 과감히 제거 혹은 수정해 버림으로서 제자들을 예수의 훌륭한 동역자요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으로 제시하려고 하였다.

[핵심내용설교] 나그네 민중의 친구 사람의 아들(눅 9:51-62)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말씀에 권세가 크신 분으로 소개하였고, 마가가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행동에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소개하였다면, 누가는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성도들의 모범자로 소개하려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에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는 독자들이었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의 관심이 각기 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은 각기 달랐어도 그 목적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데 있었습니다.

누가는 안디옥 출신의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오랜 동역자이자 선교사였습니다. 누가는 신약성서들 가운데서 문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는데, 주후 58년부터 60년까지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 유대지방에 거주하면서 착실하게 예수님과 초대교회설립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이 자료들을 가지고 헬라시대의 전기방식으로 이 두 권의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기록목적이 매우 다양하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기록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나그네 민중의 친구 사람들의 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승천'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간 지상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것을 말하는데 누가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큰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승천하실 기약"이란 말 대신에 "영광을 얻을 때"(요 12:23)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부활 후 40일과 승천에 대한 의미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영적부활) 후에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40이란 고난의 숫자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승천 또는 영광을 얻는 때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사막에서 40년을 자기 집 없이 나그네 천막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복지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 40이란 숫자, 이 숫자를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사막에서 40년을 자기 집 없이 나그네 천막생활을 한 것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성도들의 삶은 그야말로 나그넷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승천 또는 영광의 때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나그넷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한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 곧 사실적 표현이지만, 오늘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의미 곧 예수님 믿고 거듭난 후에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다짐한 신앙생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부분이고, 4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지역에서의 활동, 10장부터

19장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나그넷길, 20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최후를 맞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나그넷길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는 이 나그넷길을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 전체 24장 가운데 42퍼센트를 차지하는 무려 10장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그넷길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나그넷길이 순탄치 않다는 점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은 9장 52-56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나그넷길과 반복해서 배척당하시는 일들이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몇 차례에 걸쳐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예언자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인 4장에서 갈릴리지역을 대표하는 고향 나사렛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실 뿐 아니라 살해위협까지 받고 계시고, 갈릴리지역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시점인 9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배척당하여 죽게 될 것을 예고하셨고,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인근마을 여리고에서의 일을 소개하는 19장에서 열 므나비유를 통해서 배척당하여 죽게 되실 것을 암시하셨고, 예루살렘입성 직후부터는 예수님체포에 대한 구체적인 음모가 진행되었으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정치·종교지도자들뿐 아니라, 심지어 민중과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체포되어 십자가에 처형당하십니다.

로마제국 당시 이스라엘은 세 개의 행정지방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큰 호수를 끼고 있는 북쪽이 갈릴리지방이고, 가운데가 사마리아지방이고, 사해바다를 끼고 있고 메마른 남쪽이 유대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북쪽 갈릴리지방에 속한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고, 가운데 지방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고, 남쪽 유대지방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의 정치·종교지도자들로부터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배척의 정도나 강도를 말해 주는 것으로써 땅도 예수님을 버렸고 하늘도 버렸기 때문에, 9장 58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

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의지할 곳 없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지해서 허공에 매달린 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여 그 험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절규하며 비참하게 죽는 것에서 끝장을 보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승천과 하늘의 영광을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아 영광과 찬양을 받고 계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는 다름 아닌 복음서 기록 당시에 성도들이 처했던 어려운 형편들을 말해주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순례를 대변하는 것이란 점을 이어지는 9장 57-62절의 제자직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57절의 "길 가실 때"란 말은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을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수도 곧 천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요 순탄한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인 것은 58절의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62절의 말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성도들이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은 복음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성도들은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할 수도 있지만, 그 마지막은 부활이요 승천이요 그 최후는 영광이란 점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다 간 후에 해처럼 빛나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승천의 영광이 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커다란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마라톤대회에 나선 주자처럼 그 길을 완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험한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고 상을 받으셨는가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로역정 곧 천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쟁기 잡은 손을 중도에서 놓아버리지 않고 완주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전혀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신약성경을 쓴 다른 어떤 저자들보다도 '성령'과 '성령충만,' '기도'와 '기도하다'란 단어를 월등히 많이 사용한 저자입니다. 성령에 관한 단어가 마태복음에 17번, 마가복음에 23번, 요한복음에 21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38번이나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쓰인 69번까지 합하면 무려 107번이나 됩니다. 기도에 관한 단어는 신약성서 전체에서 90번 사용되고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그 절반이 넘는 47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는 성령충만함과 기도를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기도생활만이 성령충만할 수 있는 길이고 성령충만해야만 중도에서 포기치 않고 천성 예루살렘으로 가는 나그넷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생활과 성령충만함을 성도들에게 모델로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체험을 하셨으며, 어떻게 기도하셨고, 또 어떤 때에 기도하셨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신령한 체험들을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 문이 열렸고,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으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눅 3:22)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입은 옷에서 광채가 빛났으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율법과 예언에 관한 신령한 담화를 나누셨습니다(눅 9:28-29).

둘째,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의 비유에서 '강청(强請)의 기도'를 강조하셨고, 18장 1절부터 8절의 두 번째 비유에서는 '끈질긴 기도'를 강조하셨고, 18장 9절부터 14절의 세 번째 비유에서는 '겸손의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강청의 기도를 강조하실 때에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까지 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공직생애를 앞두고 40일간 금식기도로 준비하셨고(4:1),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한적한 곳에 피하셔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는 기도를 하셨습니다(5:16). 제자선택을 앞두고 산에 올라가 철야기도 하셨고(6:12), 베드로

의 신앙고백을 앞두고 홀로 외로이 기도하셨습니다(9:18).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주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11:1).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셨습니다(22:32).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42).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누가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눅 22:44)고 적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배척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성령충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 하셨습니다. 사단에게 강력한 도전을 세 차례에나 받고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십일 금식기도 때문이었습니다(눅 4:1-13). 죽음을 말리는 베드로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힘도 기도였습니다(눅 9:18). 삶에 대한 끈질긴 애착을 끊을 수 있었던 힘도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행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눅 22:41-44). 십자가에서조차 고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도 기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아들 곧 인자로서 나그네의 삶을 사시면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은데 있었습니다.

헬라인이었던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쪽보다는 오히려 인자 쪽에다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겸손을 나타내기도 하고 메시아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칭호는 제 삼자가 예수님을 호칭할 때 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호칭하실 때 쓰신 표현이었습니다. 인자로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었고, 성령충만한 분이셨을 뿐 아니라, 민중의 친구로서 짧지만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나그네였지만 소외당하고 멸시받던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가난한 자와 여인, 세리와 죄인,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가난한 자나 여인, 세리나 죄인,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고 또 그와 같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눅 5:32)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14개의 선교비유가 실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비록 신분은 천했지만, 강도만나 죽어가던 자를 살린 강도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근접할 수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다가오시기보다는 우리와 같이 낮은 신분의 사람의 아들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선한 이웃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이웃으로 또는 친구로 맞아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의 사람 성령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4절 요한복음

1. 요한복음의 구조

요한복음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에 의해서 주후 55년에서 90년 사이에 소아시아인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이 20장 31절에서 분명하게 밝힌 것처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요한은 예수를 만세 전부터 계신 분, 혹은 계시자로 소개함으로서 예수의 신성을 강조함은 물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을 겨냥하여 예수의 인성도 아울러 강조하였다.

마태, 마가, 누가가 마지막 수난 주간을 빼고는 예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거의 침묵하고 있는 동안, 요한은 예수의 초기 유대지방 사역과 예수의 3년간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예루살렘 방문을 보도하고 있다. 요한은 또 예수의 개인전도의 사례들을 마태, 마가, 누가보다 월등히 많이 보도하고 있다.

요한복음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읽을 수 있다. 1장은

서론 부분으로써 로고스 찬양과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전반부 2-12장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곱 개의 기적이 모세가 행한 재앙과 유형적으로 비교되고 있다.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일곱 개만을 선별해서 개구리, 이, 파리 재앙(계 16:13)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개의 모세의 재앙과 유형적으로 비교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물을 피로 물들게 한 재앙은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과 비교해 볼 수 있고, 모세가 장자를 죽게 한 재앙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기적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모세의 기적은 재앙을 초래한 부정적인 것인데 반해서, 예수의 기적은 축복을 가져온 긍정적인 것이었다. 여기서 유대교의 창시자 모세와 율법, 그리고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와 은총의 복음이 분명하게 비교되고 있다.

후반부 13-21장은 강론과 부활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에도 기적에 관련된 설교들이 4장, 5장, 6장, 9장, 11장에 다섯 개나 실려 있지만, 이들 설교들이 대중적인 담화 설교인데 반해서, 후반부에 실린 예수의 긴 고별설교와 기도는 특별히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 또는 수난 이야기로 되어 있다.

요한복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 중의 하나가 사랑이다. 요한복음에는 사랑에 관한 단어가 57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서, 마태의 14번, 마가의 7번, 누가의 16번과 비교가 된다.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예수를 생명의 떡, 생명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참 포도나무 등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이다.

2. 노만 페린(Norman Perrin)의 5부분 구조

페린은 요한복음을 다음과 같이 다섯 등분하였다.

서론 로고스론과 세례요한(1:1-51)

전반: 1) 표적(sign)의 책(2:1-12:50)--7가지 이적

후반: 2) 고별설교와 교회를 위한 기도(13:1-17:26)

3) 수난설화(18:1-20:30)

부록: 갈릴리와 부활현현(21:1-25)

3. 진정성의 문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7:53-8:11)와 21장에 관한 진정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고대사본(B, ℵ)에는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없으며, 어떤 사본에는 요한복음 끝에 실리고 있으며, 또 어떤 사본에는 누가복음 21장 38절 뒤에 실리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이 부록으로 첨가된 부분이며, 20장이 끝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21장은 부활 후 갈릴리 사역의 전승을 따르려는 의도에서 첨가되었거나 베드로의 권위 회복을 위해서 첨가된 부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 시리아 사본에서만 21장이 없을 뿐, 다른 사본들이 이를 입증하지 않는다. 내용과 문체에 있어서도 21장과 그 이전부분이 밀접하게 연관된다.

4. 환치론(換置論)

일부 학자들은 환치론(換置論)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3장 31-36절은 3장 21절과 22절 사이에 들어가야 적당하며, 5장과 6장의 순서를 바꿔야만 지리적으로 잘 맞고, 또한 13장, 15장, 16장, 14장, 17장의 순서로 읽어야만 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본의 증거가 없다.

5. 저자, 연대 및 장소

요한복음의 저자를 전통적인 견해인 사도 요한으로 보지 않고 근간의 비평학자들은 한 학파의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요한의 구전설교와 교훈을 토대로 복음서 초안이 작성되었고, 그후 편집자에 의해서 여러 장(15, 17, 21장)이 보충되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연대는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연대인 주후 55년에서 90년 사이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요한복음의 기록연대는 일부 60년 이전설에도 불구하고 공관복음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

배적이다.

요한복음 18장 33-35, 37-38절이 수록된 파피루스 단편이(p^{52} John Rylands) 이집트에서 발견되었는데 주후 115-125년의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유대인에 의한 기독교인의 축출(9:22; 12:42; 16:2)이 90년경의 가말리엘 2세의 기독교에 대한 정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주장한다.

기록 장소는 전통적 장소인 에베소로 보지 않고 시리아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6. 요한 공동체설

케제만은 요한의 공동체가 이단 종파적 공동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공동체가 시리아적 공동체에서 나온 "영지주의화의 경향이 있는 비밀집회"라고 하였다.

멕스(W. A. Meeks)는 이 공동체를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인자 기독론"을 주제로 한 탈 세속적 종파라고 주장하였다.

쿨만은 이 공동체를 종파적 유대주의라고 지적하였다.

쿨페퍼(R. A. Culpepper)는 이 공동체를 학파라고 주장하였다.

세고비아(F. F. Segovia)는 이 공동체를 종파주의적 공동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 모든 비평가들은 저자를 요한 공동체의 산물로 보며, 이 공동체가 전체주의적이며, 배타주의적 감정을 가지고 있던 종파주의적 공동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7. 요한 공동체의 재구성

마르틴(J. L. Martyn)은 요한 공동체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80년대까지는 요한 공동체가 회당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며, 이 시기에 초기 형태의 복음서 즉 '표적의 복음'이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

80년대 후반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증가로 회당 내에 분열이 발생되었으며, 파문(excommunication)과 함께 회당 내에서 이탈자가 발생하였다. 이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이후의 시기에는 분리된 요한 공동체가 종파 또는 학파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한다.

리히터(G. Richter)는 요한문서 형성에 영향을 준 여러 공동체들의 신학적인 견해들을 살폈다. 이들 공동체들은 먼저 다윗 계통의 메시아사상을 배격하고, 예수를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 선포하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이들이 복음서의 기초문서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로고스 찬양시를 첨가시킨 고차적 기독론을 가진 유대인 기독교인 공동체, 하나님의 아들 기독론을 가현설의 관점에서 해석한 공동체, 그리고 가현설에 반대하여 기초문서에 1장 14-18절과 19장 34-35절 등을 첨가시킨 성육신을 강조한 수정주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요한의 공동체가 하나의 통일된 신학적 견해를 가진 공동체가 아니라, 상이한 신학적 견해를 가진 상이한 여러 그룹으로 구성된 공동체였고, 상당한 기간에 거쳐 발전되면서 요한문서를 저작, 수정, 편집한 공동체였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는 이 공동체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던 소수의 유대인 그룹(1:41, 45, 49)에서 시작되었고, 회당의 이들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 대한 파문 결의로(9:22; cf. 14:42; 16:1f.) 회당에 그대로 남기로 결정한 은밀한 기독교인들과 분리하기로 결정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분되었다고 주장한다.

사상적으로 보자면, 처음에는 예수를 선지자로 고백하는 기독론을 신봉하다가 차츰 영지주의의 구세주 신화의 영향을 받아 예수를 하늘에서 오신 선재 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고차적 기독론을 주장하게 되었고, 공동체 일부에서 예수의 가현성을 주장하는 극단주의가 나오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임을, 그래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임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요한 문서의 형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첫 단계는 요한 또는 '사랑하는 제자'가 전해준 전승자료를 토대로 기초문서가 작성된 단계이고, 둘째 단계로는 공동체내의 지도자중의 한 사람이 '사랑하는 제자'의 설교나 교훈을 토대로 복음서의 초안을 작성하던 단계이고, 셋

째로는 가현설의 위험에 직면하여 그 이단적 교훈을 경계하기 위해 요한일서가 기록되고, 요한복음의 초안이 반가현설의 관점에서 새로운 자료가 보충되고 새로 편집되던 단계라고 주장한다.

요한 공동체의 특성을 말한다면, 요한의 공동체는 첫째 배타적 감정 즉 세상이나 특히 다른 기독교 공동체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종파주의적 성격의 공동체였으며, 둘째로 이 공동체는 기독교의 정통주류가 아닌 이단적 성격의 종파적 지류였으며, 셋째로 이 공동체는 통일된 신학을 가진 통일된 하나의 공동체였다고 보기보다는 상당한 기간에 거쳐 자체 내의 여러 신학적 견해를 통합시킨 다양성을 가진 공동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음서의 진화적 발전설은 자연 진화설이 그 중간상태를 근거로 제시할 수 없듯이 복음서의 변천과정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

8. 요한 공동체의 사상적 특징들

1) 반세례 요한적 경향

세례 요한을 빛(예수)의 증거자로 소개함으로써 세례 요한이 예수보다 더 우월하다는 세례 요한 종파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다(Baldensperger/요 1:6, 15, 19-37; 3:22-4:2; 5:33-35; 10:40-41).

2) 반 사도적 공동체

요한복음에서는 사도들이 거의 도외시되거나 무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 베드로적 경향도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의 권위 확립과 그에 대한 강조가 드러나고 있다.

3) 반 교회주의

요한복음이 분명한 교회론을 발전시키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요한의 공동체는 성령과 개인에 대한 강조 때문에 제도화해 가는 교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4) 반 성례주의

비록 요한복음에 세례(베데스다 못에서 38년된 병자 치유와 실로암 못에서 소경치유 이적)와 성만찬(오병이어)을 가리키는 본문이 세 곳(3:5; 6:51-58; 19:34-35)이나 있지만, 불트만에 의하면, 이 본문들은 후대에 교회 편집자가 공관복음의 교훈이나 일반교회의 교훈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삽입한 본문일 뿐 본래의 저자는 근본적으로 성례전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5) 반 유대주의

요한복음의 기록목적이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공격을 반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6) 친 사마리아적 경향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끈질기게 배척하고 있는데 비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를 환영했고, 그를 믿었으며, 호의적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4장, 8:48). 요한복음으로 보건대 요한의 공동체가 상당히 많은 사마리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거나 요한의 공동체 주변에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는 저자가 기독교에 개종한 사마리아인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7) 사랑의 계명

사랑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요한의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은 폐쇄된 집단에 국한된 열등한 사랑을 주장한다는 비평을 받고 있다. 즉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과 같은 큰 계명에 대한 언급이 없고, 서로 사랑 혹은 형제 사랑 또는 친구 사랑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8) 반 영지주의

요한복음은 영지주의적 용어와 사상을 담고 있기는 해도 실제적으

어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일
agapao	9	6	14	44	46
phileo	5	1	2	13	0
합계	14	7	16	57	46

로는 반 영지주의적인 복음서라는 주장이다. 즉 요한복음서는 영지주의적 복음서이면서도 동시에 반 영지주의적 복음서라는 주장인데 특히 복음서는 성육신(1:14; 6:51-63)과 예수의 죽음(19:17, 28, 34; 5:6; 11:35),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육체성(20:20, 27; 21:14)을 강조하면서 가현설을 공박하고 예수의 육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9) 요한의 종말론

요한의 종말론은 현재적 혹은 실현된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불트만은 말한다.

요한은 심판의 현재적 발생을 강조(3:18-19; 9:39; 16:11; 12:31) 하면서, 심판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이기보다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분리를 말하며, 미래적 사건이 아닌 현재적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 부활의 현재성을 강조(5:24-25; 11:25-26) 하면서 마지막 날의 부활보다는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건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활을 강조하였다. 또 영생의 현재성을 강조(5:24; 3:36; 6:47; 17:3; 요일 5:13) 하면서 장차 올 세대에서 맛보게 될 미래적 은사로 생각되었던 영생이 요한에게는 현재적으로 누리는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미래적 종말론을 말하는 본문을 많이 갖고 있다(5:28; 6:39-40, 54; 12:48; 14:1-4; 17:24). 따라서 요한복음은 실현된 종말론과 미래적 종말론을 함께 말해 주고 있다.

9. 요한복음의 모세 유형론

모세와 출애굽의 주제를 요한복음의 주요한 주제로, 그리고 요한복음의 배경을 구약에서 보는 견해이다. 이들은 모세 유형론, 출애굽 유형론, 신명기 유형론, 유월절 유형론으로 나누어진다.

1) 모세 유형론(T. Fransis Glasson)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1:17)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3:14)고 밝힘으로서 모세와 예수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무리를 먹이신 이야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이야기의 반영이며, 17장의 고별설교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최후 설교와 기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목자에 대한 언급은 모세를 목자로 말하는 유대교의 관례를 상기시키고 있다.

2) 출애굽 유형론(Jacob J. Enz)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에 나타난 배척에 관한 구절들(출 2:11, 14; 요 1:11), 뱀의 표적에 관한 구절들(출 4:4-5; 요3:14-15), 표적으로 인해서 믿음이 나타난 사실(출 4:30; 요 2:11) 등이 유형적으로 비교될 수 있다. 또한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의 첫 부분이 의도적으로 일련의 표적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문서가 다같이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출 4:8, 9; 요 2:11; 4:54). 또한 두 책이 다같이 불신앙이나 완악한 마음(출 14:8; 요 12:37-40), 그리고 믿음(출 14:31, cf. 요 20:30이하)에서 정점에 이르고 있다.

출애굽기 32-33장과 요한복음 17장은 둘 다 모세와 예수의 중재기도를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은 각각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간구와 지도자와 무리들 사이의 완전일치를 위한 간구,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의 차이(출 33:16; 요 17:5)로 되어 있다.

이 밖에도 떡에 대한 믿음(출 16:4, 15; 요 6:35), 빛에 대한 믿음(출 13:21-22; 14:20; 요 8:12), 선한목자(출 3:1; 요 10:11), 그리고 자기 정체를 밝히시는 말씀(출 3:14; 요 6:35; 8:12; 10:9, 11; 11:25; 14:6; 15:1)에 대해서도 평행구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본문상의 평행은 우연적인 것이기보다는 신앙교육을 위한 의도적인 것으로 생각되며, 그 의도는 모세와 예수를 평행시키기 위한 것이며, 예수를 모세의 패턴

에 따라 이해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12장 51절까지에서 나타난 모세가 이집트에서 행한 기적들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께서 행한 기적들의 모형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란 말이 나오지 않고 표적, 특히 "표적과 기사"라는 말이 나오는데(2:11; 4:48, 54; 6:14; 9:16; 11:47; cf. 2:26; 6:2), 출애굽기에서도 모세의 기적과 관련해서 "표적과 기사"(3:12; 4:8-9; 7:3; 8:23; 10:1-2)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의 표적을 모세가 행했던 표적의 원형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예수의 기적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의 10개의 재앙 가운데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을 제외한 7개의 재앙에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가 가능하다.

첫째, 출애굽기에 나타난 재앙의 순서에 따라 요한에 의해서 예수의 기적들이 선별적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1-15절)와 풍랑진압(16-21절)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뇌성과 우박의 재앙(출 9:13-35)과 메뚜기 재앙(출 10:1-20)의 순서에 맞지 않을 뿐, 그 나머지는 출애굽기의 순서에 따르고 있다고 보아진다.

둘째, 모세의 기적은 재앙을 초래한 부정적인 것인데 반해서, 예수의 기적은 축복을 가져온 긍정적인 것이었다. 여기서 유대교의 창시자 모세와 율법, 그리고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와 은총이 분명하게 비교가 되고 있다.

3) 신명기 유형론(Aelred Lacomara)

라코마라는 출애굽기보다는 신명기에 나타난 고별설교를 중심으로 모세 유형론을 주장한다.

외적 유사성을 보면, 신명기나 요한복음의 마지막 설교가 다 고별설교로 구성되어 있고, 두 지도자가 다 임종직전에 설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예수의 제자들은 교회시대를 눈앞에 둔 계약 공동체들이다. 이 두 공동체가 모두 지도자를 상실했고, 눈앞에 놓인 투쟁의 임박으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다. 이스라엘

모세의 열 가지 재앙과 예수의 기적 대비

	모세	예수	비교
1	피의 재앙 (7:14-24)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 (2:1-11)	모세의 기적은 재앙을 예수의 기적은 은혜를 가져온다. 예수를 완전한 새 모세로 부각시키고 있다.
2	개구리 재앙	생략	열 가지 재앙을 완전수 칠로 맞추기 위해서 생략했을 가능성이 크다. 계시록의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모세의 열 가지 재앙과 비교하라.
3	이 재앙	생략	
4	파리 재앙	생략	
5	생축 재앙 (9:1-7)	백부장의 아들을 살리심(4:46-54)	이집트인이나 백부장 본인이 화를 당하지 않는다
6	독종 재앙 (9:8-12)	38년 된 병자 치유 (5:2-9)	재앙과 치유가 인간에게 있다
7	뇌성과 우박의 재앙(9:13-35)	풍랑진압 (6:16-21)	자연하고 관련성이 있다
8	메뚜기 재앙 (10:1-20)	오병이어의 기적(6:1-15)	음식하고 관련성이 있다
9	흑암 재앙 (10:21-29)	장님 치유 (9:1-41)	볼 수 없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
10	장자 사망 (11:1-12:32)	나사로의 부활 (11:1-44)	죽음과 관련성이 있다

은 열방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과 경고를 필요로 했다.

사상적 유사성을 보면, 두 지도자가 다 중보자로 강조되고 있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다. 두 지도자가 다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고 있고, 기도에 대한 응답(신 4:7; 요 15:9)과 하나님의 임재 하심(신 12:11; 요 14:15-18)에 대한 약속된 보상도 같다. 또한 하나님의 활동

과 말씀을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전달할 것에 대한 관심도 같다.

4) 유월절 유형론

빌헬름 빌켄스(Wilhelm Wilkens)는 요한복음을 세 단계, 즉 기적의 복음서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복음서 단계, 설교 첨가단계(생명의 떡, 심판, 빛, 부활과 생명, 헬라인에 대한 설교, 고별설교, 서론 등), 그리고 유월절 주제 첨가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요한복음을 유월절 복음서라 부른다.

하워드(J. K. Howard)는 예수를 옛 질서의 완전한 모형이신 완전한 유월절 희생으로 제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그 예들로서 '하나님의 어린양'(1:29-34), 유월절이 가까워짐(2:13; 6:4), 성전청결(2:13-25), 유월절 희생(19:14), 피를 쏟으심(19:34), 뼈를 꺾지 아니함(19:33-36; cf. 출 12:46; 민 9:12), 히솝(우슬초, 19:29; cf. 출 12:21-22) 등을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예수께서 운명하신 시간을 유월절 양을 잡는 니산월 14일 오후로 설정하고 있다(13:1; 19:14, 31, 42).

10. 새 시대를 위한 요한복음의 메시지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로 시작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Logos)라고 말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 BC 540?～?)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면서도 스스로는 결코 변치 않는 진리를 '로고스'라고 하였다. 요한복음은 이 변치 않는 진리, '로고스'를 빛과 생명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요 1:18)이라고 불렀다.

빛과 생명에 반대되는 개념은 흑암과 죽음이다. 흑암과 죽음은 세상의 특징이다. 세상은 자연의 법칙이 지배한다. 자연의 법칙은 혼돈의 법칙이요, 죽음의 법칙이요, 엔트로피(entropy)의 법칙이다.

요한복음은 이 마법의 굴레를 벗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 그 길은 빛과 생명 되시며, 변화의 주체이면서도 자신은 변치 않는 '로고스'요,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변화'이다. '변화'는 '회개'와 동의어이다. 예수

께서 공적인 사역에서 던진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다. 여기서 '천국'이란 그리스도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말한다. 이 천국은 또한 '교회'를 뜻하기도 한다. 또 '천국이 가까이 왔다'란 말은 '새 천년시대가 열렸다.' '교회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회개'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 시대에 걸맞은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를 주제로 말하고 있다.

이 '변화'를 강조하는 한 방법이 모형론(typology)이다. 모세와 율법은 예수와 복음의 모형이며, 모세와 율법은 흑암과 죽음을, 예수와 복음은 빛과 생명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것을 숫자로 표시한다면, 빛과 생명을 7이라고 할 때, 모세와 율법은 숫자 6으로, 예수와 복음은 숫자 8로 설명될 수 있다. 숫자 6는 7-1이 되고, 8는 7+1이 된다. 그래서 숫자 6으로 표시되는 모세와 율법은 -1이 되고, 숫자 8로 표시되는 예수와 복음은 +1이 된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더하기가 되는 살림의 일이 되고, 모세의 율법은 빼기가 되는 죽임의 일이 되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도 +표시에 숫자 1이 더해진 표식이 되고 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기적이 표적이란 말로 일곱 개가 나오는데, 그 일곱 개의 표적이 한결같이 빛과 생명으로 상징되는 새 시대를 위한 변화를 강조할 뿐 아니라, 모세의 표적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새 시대를 위한 변화(요 2:1-11)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제는 새 시대를 위한 변화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은 먼 옛날 모세가 물을 피로 변화시킨 것(출 7:14-24)의 원형이다.

모세는 파괴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고, 예수는 건설적이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다. 여기에 모세와 예수의 삶의 방식의 차이, 율법과 복음적인 삶의 방식의 차이가 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옛것의 상징은 '부족함'이다. 요한복음 2장 3절의 "포도주가 모란다"는 말씀에서와 같이 혼인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버렸다. 또 유대인들이 식사전후에

손발을 씻는 종교의식에 필요한 물을 담았던 돌 항아리도 '부족함'을 상징하는 숫자 6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자연의 법칙에 지배되는 옛것과 세상 것에는 인간을 복되게 하거나 참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모세와 율법으로 상징되는 옛것은 인간을 구원하기에는 참으로 역부족이다.

2) 새 시대를 위한 믿음과 중생(요 4:46-54)

요한복음 4장 46-54절은 예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을병에서 고친 표적이다. 이 표적은 출애굽기 9장 1-9절에서 모세가 이집트인들의 모든 가축에게 심한 악질이 돌게 하여 다 죽게 만든 것의 원형이다.

이 두 개의 표적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먼저 공통점은 주인이 직접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소유물인 가축이나 아들에게 재앙이 내린 데 있다. 둘째, 이 두 표적의 차이점은 '죽임'과 '살림'에 있다. 옛 시대의 상징인 모세가 일으킨 기적은 '죽임'이었고, 새 시대의 상징인 예수가 일으킨 기적은 '살림'이었다. 구약시대를 시작한 모세는 살아있던 가축을 죽게 하여 남에게 피해를 끼쳤고, 신약시대를 시작한 예수는 죽어 가던 신하의 아들을 살려내어 남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었다.

이 두 번째 표적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음'과 '회생'이다. '믿었다'는 말과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다. 이 '믿음'과 '회생'의 주제는 이 사건에 앞서 나오는 존경받는 유대인의 관원이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인이자 바닥인생을 살고 있던 한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나타난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변화를 강조하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소개되자마자, 제3장에서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니고데모와 예수와의 만남이 소개되었고, 제4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와의 만남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이방인을 대표하는 헤롯 안디바의 신하와 예수와의 만남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예수와 이들 세 사람과의 만남의 사건에서 발견되는 주제어는 '믿음'과 '거듭난 생명'이다. 예수를 만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듯이, 예수를 만난 니고데모의 율법이 복음으로 거듭난다.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세상에 대한 불신이 믿음으로 거듭난다. 예수를 만난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음이 생명으로 거듭난다.

예수는 이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과의 만남에서 차별 없

이 열려있는 새 시대를 강조하셨다. 남녀노소 민족 신분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새 시대를 강조하셨다. 또한 이 열린 시대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새 시대는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에서 나타났듯이 삶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시대이며, 어둠이 빛이 되고,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없음이 있음이 되고, 쓰러짐이 세워짐이 되고, 병듦이 고침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회생과 생명이 넘치는 시대인 것이다. 이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복음을 유대인인 니고데모에게 선포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인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선포하셨고, 이방인인 왕의 신하에게 선포하셨다.

3) 새 시대를 위한 복음적 사고(요 5:1-18)

옛 시대의 특징인 율법적 사고패턴과 행동패턴 그리고 새 시대의 특징인 예수의 복음적 사고패턴과 행동패턴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곳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행각이 다섯 개가 있었는데, 모세오경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어쩌다 한번 끓어오르는 물에 먼저 뛰어들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주어지는 기회가 적었을 뿐 아니라, 그나마 기회도 먼저 뛰어든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 연못은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는 곳이다.

예수는 안식일 날에 이곳을 찾아오셨다. 바리새인들이 39개 범주의 안식일 금지법을 만들어 일반인들의 손발을 묶어버린, 말 그대로 손가락하나 까닥할 수 없는 그런 날이었다. 이날 예수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 집에 보냄으로써 유대인의 안식일 법(하나님의 안식일 법이 아님)을 어겼을 뿐 아니라, 고침 받은 사람에게도 안식일 법을 어기도록 하였다. 게다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주장으로 신성모독죄까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서는 유대인들이 만든 안식일 법을 도저히 깰 수 없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행한 재앙 가운데 사람의 몸에 독종이 나게 한 표적(출 9:8-12)이 있다. 이 표적은 모세가 사람의 몸에 고통을 준 첫 번째 재앙이었다. 모세의 이 재앙은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의 모형이었다. 38년 된 병자치유가 예수께서 개인의 고통을 직접 고쳐준 첫 번째 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율법적인 사고의

대표인 모세의 경우는 인간의 정상적인 육신을 병들게 만들었지만, 복음적인 사고의 대표인 예수의 경우에는 병든 육신을 고쳤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38년 된 병자는 '당신이 나를 돌봐줘야 한다.'는 의존적 단계를 벗지 못한 사람이었다. 38년 동안 전혀 의식전환 없이 살아왔습니다. 남이 나를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38년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실로 율법적 사고의 희생자였다. 또 유대인들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12절)고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가혹한 인간들이었다. 율법과 전통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옛 시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생명력을 상실한 율법의 형식과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온 그들은 실로 이 환자를 38년 동안이나 질병의 고통에서 살도록 묶어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민중에게 보여주신 사고는 복음적이었다. 이 복음적 사고는 믿음의 사고, 유신론적 사고, 창조적 사고, 하면 된다는 사고, 할 수 있다는 사고, 살림의 사고, 열림의 사고, 영적인 사고였다. 그러나 이런 복음적 사고에 반대되는 사고들도 있다. 그러한 사고들은 자연법칙만 믿고 행동하려는 사고, 무신론적 사고, 파괴적 사고, 해도 안 된다는 사고, 할 수 없다는 사고, 죽임의 사고, 닫힘의 사고, 세상적 사고들이다.

예수께서 민중에게 보여주신 사고는 혁신적이었다. '~하지 말라'보다는 '~하라'의 사고였다. '살인하지 말라.'보다는 '원수를 사랑하라.'(마 5:44)의 사고였다. '원수를 갚으라.'보다는 '네 오른편 빰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마 5:39)의 사고였다. 부정적이고 외적인 율법의 형식에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긍정적이고 내적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생각하시고 행동하셨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나 전통을 지켜가기 보다는 새로운 습관을 키우고 새로운 전통을 새우려고 하셨다.

예수께서 민중에게 보여주신 사고는 살림이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안식일 법을 어기고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따져 물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마 12:10). 그 때 예수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막 3:4)고 되물으셨다. 이렇게 예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귀하게 여기셨다.

4) 새 시대를 위한 생명의 떡(요 6:1-15)

오병이어의 표적은 모세가 메뚜기 재앙(출 10:1-20)을 베풀었던 표

적의 원형이다. 모세는 인간에게 엄청난 기근의 재앙을 내렸지만, 예수는 떡으로 민중을 배불리 먹였다.

이 표적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이나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에서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생명'이 주제어로 등장하고 있다. 예수를 믿으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이 표적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언어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며,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요 6:40)이라고 하셨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요 6:47)고 하셨다.

따라서 예수께서 민중을 먹이신 것은 오로지 자신이 새 시대를 위한 생명의 떡임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예수는 이 기적이 있고 난 직후에 행한 설교에서 분명하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새 시대에 필요한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5) 새 시대를 위한 예수 영접(요 6:16-21)

요한복음에 실린 다섯 번째의 표적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이다. 이 표적 또한 '믿음과 생명'이 주제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접'이다. 예수를 영접하면 폭풍이 몰아치는 죽음의 위기에서라도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예수와 제자들은 배를 이용해서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혹은 저편에서 이편으로 자주 이동을 했기 때문에 돌풍을 종종 만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런 폭풍 중에서 물위를 걸어와 목숨을 건져준 예수의 능력을 경험했을 것이고, 이런 특이한 경험이 후에 신학적으로 이해되어진 사건일 수도 있다.

신학적 설명에서는 호수 이편이 떠나야할 옛 시대가 되고, 호수 저편이 꿈이 있고, 행복이 있는 새 시대가 된다. 이편인 옛 시대를 떠나 저편인 새 시대를 향해 가는 데에는 히브리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것처럼, 혹은 이집트에서 참혹한 노예의 삶을 보냈던 것처럼,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결코 폭풍에 좌절되거나 폭풍에 삼킨바 되지 않고, 오히려 폭풍을 이기고 목표인 저편에 무사히 닿게 된다.

옛 시대의 상징인 모세는 이집트에 뇌성과 우박의 재앙(출 9:13-35)을 내려 파괴를 초래하였지만, 새 시대의 상징인 예수는 폭풍을 진

압하여 고요와 평화를 가져다주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자연재해를 가져다주었지만, 예수는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을 구해주었다. 그러므로 새 시대를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여야 한다.

6) 새 시대를 위한 세상의 빛(요 9:1-7)

요한복음 9장 1-7절에 나오는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른 후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게 하여 고친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기적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맹인의 눈을 고쳐서 빛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눈을 떠서 빛을 볼 수 있게된 맹인은 예수를 "선지자"(9:17),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9:33)과 "주님"(9:38)으로 믿고 고백하였다.

"세상의 빛"에 관한 말씀은 이미 1장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 빛은 생명을 주는 "사람들의 빛"(1:4)인데,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1:5)고 하였다.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빛을 볼 수 없는 소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을 떠 볼 수 있게 되면 맹인처럼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9:33)과 "주님"(9:38)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 맹인이 눈을 뜬 후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예수를 '사람'(9:11)이라고 부르더니, 그 다음에는 '선지자'(9:17), 그 다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9:33),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9:35-38)으로 고백하고 있다. 이는 그의 삶에서 어두움이 걷히고 광명이 찾아왔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눈을 떴다고 생각했던 자들, 즉 바리새인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이야기 마지막에서 눈 먼 자들로 지적당하고 만다. 이는 9장 39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 되게 하려 함이라."한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다.

요한복음 9장의 소경치유이야기를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치유와 비교해보면, 몇 가지 비슷한 점들이 발견된다. 이 두 장애인이 모두 안식일 날에 연못에서 고침을 받고 있고, 이 일로 예수와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다. 또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치유에서는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실로암 연못의 맹인치유에서는 "빛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기적이 모두 세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눈먼 청년이 실로암의 물을 통해 그의 시력을 되찾았듯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의 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도, 즉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를 통해 참 빛을 찾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실로암 물에 눈을 씻음으로 시력을 되찾은 맹인은 세례에 의해서 빛을 찾은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다.

빛 생명 진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흑암재앙(출 10:21-29)과 예수의 맹인치유에 관한 것이다. 출애굽기 10장 22-23절에 보면, "캄캄한 흑암이 삼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 · · 사람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었다."고 했는데, 결국 모세의 기적은 온 땅을 어둡게 만듦으로써 눈을 가지고도 볼 수 없게 만든 재앙이었지만, 예수의 기적은 어두움 속에서 아무 것도 볼 수 없었던 사람을 고쳐서 볼 수 있게 만든 기적이었다.

7)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요 11:17-27; 39-44)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은 믿음과 새 생명에 관한 예수께서 행하신 설교의 총체적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이다. 하나님을 죽은 예수를 살린 분으로, 예수를 죽은 나사로를 살린 분으로 믿는 종교이다. 예수를 우리 부활의 첫 열매로 믿는 종교이다.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죽임으로부터의 살림을 의미한다. 육체적인 죽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죽임과 영혼의 죽임까지도 포함하는 죽임으로부터의 살림을 의미한다. 개인의 죽임뿐만 아니라, 작은 집단과 큰 사회를 망라한 타락과 병듦까지 다 포함하는 죽임으로부터의 살림을 의미한다.

성경에 보면, 이 죽임은 아담의 범죄로 시작되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임의 법칙인 현재의 자연법칙이 시작되었다. 아담의 범죄 이전에는 지금과 같은 죽임의 법칙이 없었다. 아담의 범죄이전에 어떤 자연법칙이 있었다해도 현재의 자연법칙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을 것이다. 지금의 자연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으로써 생명에서 사망으로 가는 법칙이다. 살림에서 죽임에로 가는 법칙이다. 건강에서 병듦에로 가는 법칙이다. 싱싱함에서 시듦에로 가는 법칙이다. 새것에서 헌것에로 가는 법칙이다. 사랑에서 미움에로 가는 법칙이다. 평화에서 전쟁으로 가는 법칙이다.

부활은 이런 자연법칙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생명법칙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활이 예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고 성경이 예수 재림의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그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죽임으로 상징되는 옛 시대의 자연법칙의 사슬을 끊고 생명으로 상징되는 새 시대의 생명법칙에로 점진적으로 이루어가고 맛보고 경험하라고 말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거듭난 새 삶을 주시는 것이다. 이 새 삶은 예수 재림의 때에 완성될 새 생명의 삶에 대한 약속이자,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맛보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새로운 삶이요, 생명으로 가득한 삶이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죄로 죽었던 자신의 영혼이 산 사람들이고, 미래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새로운 육체로 태어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죽임의 일을 하지 말고, 살림의 일을 하라고 한 것이요, 더 이상 죽음의 사슬에 얽매어 있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자유인이 되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큰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요, 자기 주변의 공동체나 사회가 병들지 않도록 힘쓰는 일이요, 혹 병들었다고 하면 고치는 일에 힘쓰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와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죽임의 일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요, 살림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려 있는가? 오늘날 우리 지구가 환경파괴로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려 있는가? 이 중한 병을 고치고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요, 진정한 부활사건이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행한 기적 가운데 열 번째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다(출 11:1-12:30). 이 재앙은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장자로 태어난 것은 다 죽는 무서운 재앙이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과 평행을 이룹니다. 모세의 재앙이 마지막 클라이맥스였듯이

예수의 기적도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기적이었다. 그리고 이 두 경우 모두 '죽음'이 지배적인 사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모세는 생명이 있던 곳에 죽음을 가져왔고, 기쁨이 있던 곳에 통곡을 가져왔지만, 예수는 죽음이 있던 곳에 생명을 가져다주었고, 슬픔이 있던 곳에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이다. 생명을 억압하고 생명을 죽이는 종교는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종교가 참된 종교이다. 예수는 생명을 억압하고 생명을 죽이는 옛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는 새 시대를 시작하셨다.

우리가 바라는 바 새 시대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다. 그것이 천국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한다.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거듭나야 한다.

새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야 한다. 새 시대에 필요한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다. 이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영접하여 마음에 모셔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난과 흑암과 죽음으로부터 구원과 빛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은 자연법칙에 지배받지만, 복음은 생명법칙에 지배받는다. 자연법칙은 죽이는 것이요, 생명법칙은 살리는 것이다. 모세는 사람과 동물을 죽이는 재앙을 베풀었지만, 예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 바리새인들은 민중을 억압하고 무거운 멍에를 메우고 죽이는 일을 했지만, 예수는 민중을 풀어주고 해방하고 살리는 일을 하셨다. 자연법칙만을 믿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죽임의 일을 하지만,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는 분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살림의 일을 해야 한다. 자기를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살림'의 일을 해야 한다. 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핵심내용설교] 빛과 생명의 주(主), 독생하신 하나님(요 1:1-18)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말씀에 권세가 크신 분으로 소개하였

고, 마가가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행동에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소개하였고, 누가가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모범적인 순례자로 소개하려했다면,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첫째, 변화의 주체자로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곧 로고스로; 둘째, 빛과 생명의 주(主)님으로; 셋째,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넷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다섯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여섯째,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일곱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일곱 가지 모두가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한 목적은 요한이 복음서 20장 31절에서 밝힌 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일곱 가지 가운데 변화를 주제로 한 앞의 세 가지 곧 첫째, 변화의 주체 로고스; 둘째, 빛과 생명의 주(主); 셋째, 독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변화의 주체자로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하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다"는 말씀, 이 말씀은 그로 말미암아 무가 변하여 유가 되고, 없음이 변하여 있음이 되고, 부재가 변하여 실재가 되는 긍정의 변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Logos)에서 나온 것입니다. 2,500년 전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 540?~? BC)는 로고스를 "변화의 주체자이면서 스스로는 변치 않는 진리"라고 정의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의 모든 것이 끝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형태만 변하는 물리적인 변화이든 성질까지 변하는 화학적인 변화이든 자연상태에서의 변화는 빛에서 어둠으로, 질서에서 혼란으로, 생명에서 죽음에로 커지는데, 이 법칙을 엔트로피(entropy)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엔트로피는 부정의 변화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버려두면 망가집니다. 사람도 버려두면 망가지고 관계도 버려두면 망가지고 생명이 없는 물건도 버려두면 망가지고 신앙조차도 버려두면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 망가짐이 변하여 고침이 되고 부정이 변하여 긍정이 되는 근원이 로고스 곧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다"는 말씀이 바

로 그런 뜻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빛과 생명의 주(主)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씀, 이 말씀은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며,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며, 혼란이 변하여 질서가 되게 하는 긍정의 변화를 뜻합니다. 이 긍정의 변화가 로고스 하나님의 속성인 생명 곧 살림의 능력이요 살림의 지혜요 살림의 은혜요 살림의 진리인데 이 생명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자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란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란 말씀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의 변화, 곧 하나님이 사람이 된 성육신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은 자리를 탐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쟁자를 비방하고 헐뜯고 끄집어 내리는 정치판이 벌어집니다. 친구가 변하여 원수가 되고, 신뢰가 변하여 불신이 되고,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되고, 살림이 변하여 죽임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높은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심으로써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게 하고, 불신이 변하여 신뢰가 되게 하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게 하고, 죽임이 변하여 살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란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과 동등하게 되신 변화, 곧 하나님이 눈높이를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신 성육신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인간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권력이든 명예든 재물이든 지식이든 다른 사람들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남들과 차별시키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들이 기피하는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과 밥상을 함께 나누셨으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눅 7:34)라는 비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방을 무릅쓰신 것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눅 19:10)시키려는데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추고 낮아지기를 힘써야할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잃어

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켜야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니까 수치의 상징이었던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같은 이들이 변하여 영광이 되는데, 그 영광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이요, 또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불신의 세상, 곧 하나님이 죽고 없는 것 같은 세상, 뒤집어지고 엉망이 된 세상, 어둡고 혼탁한 세상, 죽임의 일이 활개 치는 세상이 변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세상,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세상,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세상, 주의 영광이 나타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긍정의 변화 가운데 한 가지는 외아들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외아들이 변하여 많은 자녀들의 맏아들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독식할 수 있었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많은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나누기를 기꺼이 수용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요 20:17)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변하여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변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는 변화, 예수님의 부활이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의 부활이 되게 한 변화가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많은 변화들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긍정의 변화가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긍정의 변화는 변화의 주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이야말로 변화를 일으키는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인데, 그 믿음이 일으킨 놀라운 변화들, 곧 부정이 변해서 긍정이 된 사건들을 소개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어머니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긍정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표적의 의미는 유익하고 건설적인

변화, 분위기를 살리는 변화, 부족이 넘침이 되는 변화, 없음이 있음이 되는 변화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혼인잔치에서 나타난 키워드는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없다"입니다. 이 부족과 없음을 넘침과 있음으로 바꿔놓게 한 원동력 그리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는 칭찬을 받게 한 원동력,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영접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고 고백한 유대인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중생의 변화,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변화의 능력이란 사실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15-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였습니다. 또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유대인의 피가 절반쯤 섞인 불결의 상징인 사마리아 여성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물이 변하여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고 부정한 여인이 변하여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간 이방인 헤롯 안디바의 신하는 죽어가던 자신의 아이가 소생하는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성 그리고 이방인 왕의 신하의 이야기에서 나타난 변화들은 남녀노소와 민족과 신분의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나타난 변화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그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적 사고(思考)가 병든 자를 살리는 열림의 사고였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언제나 살림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6장 1-15절에서 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광야에서 장정만 오천 명을 먹이신 표적은 모세가 광

야에서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먹게 한 것과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집의 가루통과 기름병의 가루와 기름을 없어지지 않게 하고 다하지 않게 한 표적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하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는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6장 16-21절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표적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들이면 폭풍이 몰아치는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짐을 받는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타고난 맹인을 고치신 표적에서는 예수님을 빛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고,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죽음에 생명을 주시고, 슬픔에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혼돈을 질서로, 흑암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명백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어둠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나갈 능력과 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5장

복음서의 기독론

제1절 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73]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대표하는 말로서 마가가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1:1), 메시아의 위임과 신적 근원을 설명해 주는 칭호로 사용하였다. 마가는 예수의 역사적 생애를 통해서 즉 그의 모든 기적과 권능 행함을 통해서 신적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었다는 점을 증거 하려 하였다. 이는 마귀도 인정한 사실로서(5:7)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는 예수께서 사용하신 칭호이기보다는 복음서 저자들에 의해서 사용된 칭호였으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던 사건은 세례시와 변화산상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발생되고 있다(1:11; 9:7).

마태와 누가는 예수의 탄생 시부터 메시아의 영광을 적용하고 있으며, 마태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해하고 있다(16:16). 만일에 마태가 마가복음을 사용하였다면, 마태는 마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막 8:29), 백부장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막 15:39) 고백한 내용을 한 곳에 묶어 보도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요한은 창조 이전부터 로고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인자란 말을 자주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

73) G. E. Ladd,『신약신학』s.v. "하나님의 아들"; 전경연외 4인,『신약성서신학』s.v. "하나님의 아들"; 샤이먼 키스터메이커,『현대의 복음서 연구』신성종, 최갑종 역, s.v. "하나님의 아들."

표현은 쓰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아들이란 말이 사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공관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27절과 마가복음 13장 32절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불트만과 디벨리우스는 이 두 본문을 역사적 예수의 말로서 보지 않고, 메시아적 예수의 말로서 간주하였다. 즉 아들이란 예수의 표현은 그의 것이 아니고 초기교회 공동체의 신앙고백이라는 것이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있지는 않지만, 하늘의 음성, 사탄, 귀신, 그의 제자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과 같은 주변 인물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많은 구절들이 있고(1:14; 6:40; 17:1), 그리스도의 하늘로부터의 기원을 말해주는 구절들도 많다(16:28; 8:14, 23, 4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구절들은 초대교회가 신앙고백으로 발전시킨 초대 기독교 신학의 흔적이라고 일부 신학자들은 믿고 있다. 특히 불트만은 요한복음의 저자를 공동체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의 선존재 상태와 동정녀 탄생에 관한 계시적 초자연적 기사들을 부정하고 있다.

제2절 인자(THE SON OF MAN)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란 말로써 그리스도의 인성과 겸손을 대표하는 호칭이다. 인자란 호칭은 단 한번 사도행전 7장 56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수께서만 사용하신 호칭이다. 공관복음에서만 사용된 인자의 호칭은 병형구를 빼고도 39회이며, 요한복음에서 13회가 사용되고 있어 총 52회가 사용되고 있다.

인자란 아람어 '발 에나쉬'(בַּר אֱנָשׁ)의 직역이며, 인간이란 의미로 사용되었다(민 23:19; 시 144:3).

인자란 표현이 "나를" 겸손히 지칭하는 일인칭 대명사라는 주장도 있으나(마 5:11; 눅 6:22), 달만(G. Dalman)은 예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이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이 주장을 반대하였다.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다. 이 특별한 용어가 쓰인 곳은 구약성서의 경우 시편과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이고, 신약성서의 경우 공관복음서와 사도행전(7:56) 그리고 계시록이다. 에스겔은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 100회 이상 '인자'란 표현을 사용하였고, 시편에서는 단순히 사람을 호칭하는 말로써(8:4; 80:17), 에녹1서에서는 초인간적 존재로 선택받는 자를 말할 때, 랍비 아키바(Akiba/132-135)는 다윗왕국의 메시아를 말할 때 사용하였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계시록과 동일한 표현을 써서 '인자와 같은 이'(like a son of man)란 말을 두 번(7:13, 10:16) 사용하고 있다. 다니엘서의 '인자와 같은 이'가 계시록의 '인자와 같은 이'하고 연관이 있는 표현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두 묵시록은 모두 종말론적 왕국의 통치자를 '인자'로 표현하였다.

중요한 것은 신약성서에서의 '인자'란 표현이 예수님께만 사용된 표현이란 것이고, 특히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을 때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고, 제3자가 예수님을 일컬어 '인자'란 호칭을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3자가 예수님을 일컬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 '랍비,'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오실 그이' 또는 '선지자'와 같은 호칭들을 사용하였다.

성서에서의 인자호칭은 세 가지 범주에서 사용되었다. 첫째는 지상에서의 예수님을 호칭할 때 사용되었다(막 2:10, 27; 마 11:19; 8:20; 12:32; 16:13; 13:37; 눅 6:22; 19:10; 22:48).

둘째는 '오실 그이' 곧 메시아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었다(막 8:38; 14:26, 62; 마 24:44; 27:37; 10:23; 13:41; 16:28; 19:28; 24:30, 39; 25:31; 눅 12:8; 17:22, 30; 18:8; 21:36). 여기서 '오실 그이'는 유대인들의 희망, 하티크바(Ha-Tikvah)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다. 유대인들에게 '오실 그이'는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은 모쉬아크(Moshiach)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한번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재림주 메시아이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인자'란 바로 이 재림주 메시아를 말한다.

셋째는 마가복음서에 쓰인 수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수난자 인자'이다(막 8:31; 9:9, 12, 31; 10:33, 45; 14:21, 41; 마 12:40). 수난자

인자는 마가 자료에만 나타나 있는 마가 특유의 메시아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인자'가 민중의 슬픔과 수고와 고통에 마침표를 찍고, 그들에게 영광의 나라를 안겨줄 메시아이기 때문에 '수난자 인자'란 개념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 유대인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 인자가 굴욕과 수난과 죽음을 당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그가 세상을 심판해야할 권능과 영광의 메시아 인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심판주 메시아 인자사상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재림주 메시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없는 기독교만의 특징은 수난자 인자 메시아 개념인 셈이다.

'수난자 인자' 사상에서 나온 것이 영혼구원사상이다. 이 영혼구원사상은 현재구원으로써 미래구원을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 이 땅의 삶 속에서 약속받고, 인침(직인)받아, 미리 맛보고, 누리는 축복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사상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영광의 인자' 사상만 있는데, 이것은 육체구원, 이스라엘 민족구원, 이스라엘 나라 회복 사상으로써 아직 이뤄진 일이 없는 미래구원을 말한다. 우리 기독교에서 고대하는 주님의 재림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사상이다.

쿨만에 의하면, 이 수난의 종의 사상은 베드로에게서 유래하였다고 한다(벧전 2:21; 고전 15장; 행 2:14이하). 어떻든 마가는 인자의 수난의 종으로서의 사역과 재림주로서의 역할을 역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보수 경향의 학자들은(Vos, Turner, Mowinckel, Cranfield, Taylor, Cullmann, Madox, Marshall) 이상의 세 가지 범주의 인자라는 말은 예수로부터 온 말이고, 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알버트 슈바이쳐나 예레미아스는 예수의 종말론적 언급 즉 장래의 인자 사상만이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불트만과 디벨리우스, 콘젤만, 보른캄의 입장은 묵시적인 언급만이 확실한 것이며, 예수 자신은 미래의 인자로서 자신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그를 종말의 심판주로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인자의 말씀들은 기독교 공동체의 산물로서 이해한다. 리츠만도 예수께서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후대의 헬레니즘적 교단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구약에서의 인자 사용의 예를 보면, 에스겔에서 자신을 칭호 하는 말로서 100회 이상 사용하였고, 시편에서는 단순한 사람으로서(8:4; 80:17), 다니엘에서는 종말론적 왕국의 지배자 또는 이스라엘로서 표현하고 있으며(7:13-14), 제 1 에녹서에서는 초인간적 존재로 선택받는 자로서, 랍비 아키바(Akiba/132-135)는 다윗 왕국의 메시아로서 보고 있다.

제6장

복음서의 보도내용

제1절 예수의 사역지

공관복음서 기자들과 요한은 예수의 사역지 보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조를 이룬다.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예수의 사역을 갈릴리 지방에 대한 보도에 국한하고 있는 반면, 요한은 초기 유대지방 사역과 예수의 3년간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있는 몇 차례의 예루살렘 방문을 보도하고 있다. 공관복음 기자들은 예수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빼고는 그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다.

아래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마태와 마가는 예수의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누가는 갈릴리 지방에서 베레안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예수의 긴 여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요한은 주로 예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에 그의 보도의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사복음서의 네 저자들은 모두 마지막 주간의 수난기사에 상당한 양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연속적인 단일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으며, 개별 단위로 된 구전의 연결이 아닌 점을 유의해야 한다.

1. 갈릴리지역

마태 14½장(52%)

마가 9장(56%)

누가 6장

요한 3장

2.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행

마태 2장
마가 1장
누가 10장(42%)
요한 1½장

3. 예루살렘

마태 8장
마가 6장
누가 5½장
요한 15½장(74%)

제2절 예수의 청중들

예수의 청중은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다. 사적 담화와 관련된 개인, 제자양육과 관련된 제자들, 예수의 사역을 훼방하려 했던 대적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를 적극적으로 따랐던 민중이 그들이다.

아래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요한은 사적 담화의 사례들을 공관복음서 저자들보다 월등히 많이 다루고 있고, 마가는 제자들을, 누가는 대적들 그리고 마태는 민중에게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보도하고 있다.

복음서 저자들은 말씀에 수반되는 다른 어떤 부수적인 요소보다도 말씀의 청중들을 보다 정확하게 보존하고 있으며, 말씀을 형성함에 있어서 청중들의 상태에 대해 특별한 역점을 두고 있다. 도표에서 '단위'는 예수께서 이들 청중들에게 말씀하신 사례별 단위 숫자를 말한다. 전체 복음서는 89단위로 나눠진다.

1. 개인

마태 6단위
마가 11단위
누가 14단위
요한 20단위

2. 제자들

마태 31단위
마가 43단위
누가 33단위
요한 38단위

3. 대적들

마태 16단위
마가 26단위
누가 28단위
요한 20단위

4. 민중

마태 28단위
마가 20단위
누가 22단위
요한 21단위

제3절 공관복음서의 보도내용

공관복음서의 보도내용을 예수의 설교, 담화, 배경, 그리고 기적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다. 아래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마태복음의 긴 담화문들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보다는(47%) 누가복음이 더 많은 예수의 설교를 담고 있다(50%). 누가복음에 실린 설교자료들은

더 많은 배경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마태복음은 25%의 담화를 통한 예수의 교훈을 싣고 있고, 구약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이 마가나 누가복음보다 더 많은 배경자료들을 갖는다(23%).

마가복음은 예수의 사역에 대한 보도 가운데 25%를 기적 행하심에 할애하고 있으며, 누가의 12%나 마태의 4%보다 월등하게 그 비율이 높다. 그러나 마가의 25% 기적 보도보다는 35%의 예수의 설교 보도가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다른 어떤 기사들보다도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수의 설교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 설교

마태 47%
마가 35%
누가 50%

2. 담화

마태 25%
마가 18%
누가 21%

3. 배경

마태 23%
마가 22%
누가 16%

4. 기적

마태 4%
마가 24%
누가 12%

제4절 단위별 공통자료와 특수자료

전체 복음서를 총 89단위로 나누었을 때, 공관복음서들의 공통내용은 47.19%(42단위)에 해당되며, Q자료가 15.73%, 누가에 나타나지 아니한 마태와 마가의 공통자료는 13.48%, 마태에 나타나지 아니한 마가와 누가의 공통자료는 5.62%에 해당된다.

전체 복음서를 총 89단위로 나누었을 때, 사복음서의 저자별 특수자료는 누가가 9단위에 10.11%, 마태가 5단위에 5.62%, 마가가 2단위에 2.25%에 해당된다[Archbishop Thompson, cited by Henry Thiesse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1950), p. 101].

웨스트코트(Westcott)는 단위들의 길고 짧은 불균형을 고려하여 복음서의 전체내용을 100%로 하여 특수자료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에 의하면, 마태가 42%, 마가가 7%, 누가가 59%, 그리고 요한이 92%의 특수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Gospels*(1895), p. 195].

제5절 공관복음서의 자료비교

분류	마태	마가	누가
총절수	1068절	661절	1149절
마가자료(절)	57%(막 92%=606절)		30%(막 53%=350절)
Q자료	23%		22%
특수자료	20%	5%	48%

공관복음서의 자료 비교표에 나타난 수치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복음서의 총 절수도 사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료 사용에 대한 비율도 학자들에 따라 그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제6절 예수의 기적

시기	이적의 내용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Ⅰ. 초기사역	1. 물로 포도주를 만듦				2:1-11
Ⅱ. 제1차 갈릴리 사역	2. 신하의 아들을 고침				4:46-54
	3. 38년 된 병자를 고침				5:1-9
	4. 첫 번째 고기 잡는 이적			5:1-11	
	5. 귀신을 쫓아냄		1:23-28	4:31-36	
	6. 베드로의 장모를 고침	8:14-15	1:29-31	4:38-39	
	7. 문둥병자를 고침	8:2-4	1:40-45	5:12-16	
	8. 중풍병자를 고침	9:2-8	2:3-12	5:18-26	
	9. 손 마른 자를 고침	12:9-13	3:1-5	6:6-10	
Ⅲ. 제2차 갈릴리 사역	10. 백부장의 종을 고침	8:5-13		7:1-10	
	11. 과부의 아들을 살림			7:11-15	
	12. 귀신들린 자를 고침	12:22		11:14	
	13. 바다를 잔잔케 하심	8:23-27	4:35-41	8:22-25	
	14. 거라사 광인을 고침	8:28-34	5:1-20	8:26-39	
	15. 혈루증 여인을 고침	9:20-22	5:25-34	8:43-48	
	16. 야이로의 딸을 살림	9:23-26	5:35-43	8:49-56	
	17. 두 소경을 고침	9:27-31			
	18. 벙어리 귀신을 쫓아냄	9:32-33			
Ⅳ. 제3차 갈릴리 사역	19. 오병이어	14:14-21	6:34-44	9:12-17	6:5-13
	20. 물위를 걸으심	14:24-33	6:45-52		6:16-21
	21.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침	15:21-28	7:24-30		
	22. 귀머거리를 고침		7:31-37		
	23. 칠병이어	15:32-39	8:1-9		
	24. 벳새다의 소경을 고침		8:22-26		
	25. 사귀들린 아이를 고침	17:14-18	9:14-29	9:38-42	
	26. 물고기에서 동전을 취함	17:24-27			
Ⅴ. 후기 유대 및 베레아 사역	27. 소경을 고침				9:1-7
	28. 귀신들린 여인을 고침			13:10-17	
	29. 수종 병자를 고침			14:1-6	
	30. 나사로를 살림				11:17-44
	31. 열 문둥이를 고침			17:11-19	
	32. 소경 바디매오를 고침	20:29-34	10:46-52	18:35-43	
	33. 무화과 나무 사건	21:18-19	11:12-14		
	34. 말고의 귀를 회복시킴			22:49-51	18:10
Ⅵ.부활 후 승천	35. 두 번째 고기 잡는 이적				21:1-11
		20개	18개	20개	9(7)개

* 요한의 기적은 19, 20번을 제외하고는 공관복음에 없는 것을 보충하고 있다.
* 19번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사복음서가 함께 보도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이다.
* 22번과 24번의 기적은 치유의 과정이 묘사되고 있고 마가만이 보도하고 있는 기적이다(치유자의 믿음이 언급되지 않고 있음).
* 누가만이 보도하고 있는 기적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여인, 과부, 문둥이 등).
* 마태복음 8-9장에 5개씩 10개. 대부분의 기적은 Jr.에 오름 전(전반부)에 소개됨.

제7절 예수의 비유

비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등경아래 있는 등불	5:14-15	4:21-22	8:16; 11:33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7:24-27		6:47-49
낡은 옷에 생베 조각을 붙임	9:16	2:21	5:36
새 술을 새 부대에	9:17	2:22	5:37-38
씨뿌리는 자와 옥토	13:3-8,18-23	4:3-8,14-20	8:5-8,11-15
가라지	13:24-30,36-43		
겨자씨	13:31-32	4:30-32	13:18-19
누룩	13:33		13:20-21
감추인 보화	13:44		
값진 진주	13:45-46		
그물	13:47-50		
집주인	13:52		
잃어버린 양	18:12-14		15:4-7
탕감 받은 종	18:23-34		
포도원의 일군들	20:1-16		
두 아들	21:28-32		
소작인	21:33-40	12:1-11	20:9-18
혼인 잔치	22:2-14		
예복비유	22:11-14		
무화과 나무	24:32-35	13:28-29	21:29-31
노아의 때	24:36-39		
맷돌가는 두 여자	24:40-41		
충실한 집주인	24:41-43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24:45-51		12:42-28
열 처녀	25:1-13		
달란트(므나)	25:14-30		19:12-27
양과 염소	25:31-46		
자라나는 씨		4:26-29	
깨어있는 종		13:35-37	12:35-40
고리대금업자			7:41-43
선한 사마리아인			10:30-37
곤궁한 친구(간청의 기도)			11:5-8
어리석은 부자			12:16-21
열매 없는 무화과			13:6-9
연회의 말석			14:7-14
큰 잔치			14:16-24
제자도의 희생			14:28-33
잃었던 동전			15:8-10
탕자			15:11-32
지혜로운 청지기			16:1-8
부자와 나사로			16:19-31
주인과 종			17:7-10
끈질긴 과부(끈질긴 기도)			18:2-8
바리새인과 세리(겸손한 기도)			18:10-14

제8절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연대개요

글: Rupert C. Foster
역: 조 동 호

그리스도의 사역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사복음서에 실린 이야기들이 모두 독립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각기 다른 저자들이 쓰지 아니한 사건들도 많이 보도하고 있다. 사복음서의 어느 저자도 자신이 쓴 글이 사건 발생을 정확하게 순서대로 보도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차례대로"(in orderly fashion, 눅 1:3)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여기서 "차례대로"란 말이 정확한 연대순서를 의미하지 않는다. 주제별 형태 속에서 전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설교는 설교대로, 기적은 기적대로 함께 모아 꾸미는 것이 연대순으로 모든 사건을 자세하게 제시하는 것만큼이나 전기를 기록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사복음서의 기록들은 자세히 검토해 보면, 마태가 주제별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비록 어느 누구도 엄격하게 연대순서에 입각한 예수의 전기를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요한은 더 많이 연대순으로 그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복음 즉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일찍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경이적이며 슬프고 감동적인 이야기로서 묘사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지루하게 연대나 날짜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마리아의 향유 부음이 언제 발생했는지, 유다가 주의 만찬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유다가 주의 만찬 제정 전에 예수와 제자들과의 관계를 끊었는지에 관한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고는 있지만, 예수의 마지막 주간의 사역에 관한 한 예수의 전체적인 사역에서 발생한 개개의 사건들을 요약하고자 할 때에 때때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추측에 의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노력해 볼 가치가 있는 작업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노력은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한 모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개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이 글 뒤에 개요 차트가 실렸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차트를 참고한다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성서를 연구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공생애 사역을 삼년반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이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것은 확정적인 기간으로서 입증될 수는 없다. 또한 이 문제가 기독교인의 신앙에 치명적인 것도 아니며, 연대나 수치들은 이야기들 속에 충분히 들어 있기도 하다. 차트를 한번 보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요한복음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축제일에 대한 간단한 사건적 개설을 읽게 될 것이다.

네 번의 유월절은 예수의 사역이 삼년 이상인 것을 말해 주며, 첫번 유월절과 마지막 유월절 전후로 얼마간의 사역기간이 첨가되게 된다. 유월절은 사월 경에 있었고, 또한 이들 명절에 대한 언급은 예수의 사역기간을 산정할 수 있게 해주며,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된 연중 시즌을 분명하게 밝혀준다.

예수의 사역기간 산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유월절(요 5:1)에 관한 것으로서 요한은 단순히 그것을 "유대인의 명절"이라고만 적고 있다(많은 사본들이 명절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뜻은 유월절을 말한다).

그러나 기사 내용을 연구해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담화를 하신 때가 12월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장 1절에 기술된 명절 전후에 있었던 사건들의 배경을 보면, 그 명절이 유월절이었을 알 수 있다. 유월절 말고 가장 가능한 명절은 부림절이다. 부림절은 2월에 있었으며, 구약성서가 지키도록 명령한 명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만성제와 같이 유쾌하게 떠들고 노는 날이었다. 그 때문에 예수의 예루살렘에서의 선교를 위한 적절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없는 때였다.[74]

부활과 승천사이의 시간의 길이가 복음서 이야기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저자들이 소소한 날짜와 수치에 얽매기보다는 십자가의 신성한 이야기의 극적 관계에 어떻게 집중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시이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예수께서 부활 후 40일간 그의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우연히 말하고 있다. 여기에 마지막 유월절을 포함하여 43일간의 날짜를 갖게 된다.

성수(聖數)를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40일간의 광야시험과 요단강 가에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타난 3일간(요 2:1)이 43일로서 예수의 마지막 유월절 이후의 날짜와 적중한 평형을 나타내 부여 준다고 강조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첫번 유월절 이전의 시기는 그보다 훨씬 길었으며, 가나의 혼인잔치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의 거주 이동과 첫번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와 함께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는 진술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3년 이상 몇 개월까지 예수의 공적 사역에 포함되는지를 정확히 말하기란 어렵다. 대개는 3년 6개월로 추산하는 것이 보통이다.[75]

단지 한 복음서 저자만이 긴 사건의 연속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18장과 요한의 여러 장에서 주목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들 사건들이 어떻게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되어 졌는가에 대한 문제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건들이 연대적 이야기 틀 속의 어떤 시점에 놓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 누가복음에서의 새로운 자료들은 9-18장까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단지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사건들이 예수의 공적 사역기간의 연대기적 기록 속에 어떻게 배열되어져 있는지

---

74). 역자주: 부림절은 고향의 회당에서 지켰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에스더 9장 22절과 Josephus, Ant. 11.6.13을 참고하시오.

75). 역자주: 삼년 육개월은 성서적으로 고난의 시기를 상징한다. 엘리야 시대와 안디옥쿠스 4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혹독한 박해의 시기를 보내야 했다. 복음서에서 누가는 예수의 공생애 기간이 배척 당하신 기간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를 개요 속에서 주목하라.

때때로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은 예수의 공적 사역이 전혀 다른 시기에 같은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기록한다. 어떤 복음서 저자도 사건 순서대로 배열된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을 향하여 부정확하게 기록하였다고 질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배열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차이점들이 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연대기적 배열순서가 특별히 어떤 특정 기사들에 있어서는 절대적이 아니라는 점을 시인하게 한다.

수세기를 통하여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복음서 이야기들을 종합(Harmonization)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들이 조금씩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타티안(Tatian/160년)은 사복음서 내용을 시리아 방언으로 종합한 디아테싸론(Diatessaron)[76]이란 책을 만들었다. 배치하기 어려운 사건들로 구성된 특정한 배열을 지지하기에는 이 짧은 글로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한 두 가지의 예화로서 어려움의 성격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누가 한 사람만이 소개 글을 쓰고 있다. 이 부분이 제일 첫 부분에 놓여져야 할 것이다. 요한은 상당한 부분을 예수의 선존재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유일한 저자이다. 이 부분이 두 번째 놓여져야 할 것이다. 마태는 그의 책을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한다. 누가는 예수의 공적사역 벽두에 그의 족보를 싣고 있다. 어느 배열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누가의 족보를 앞쪽으로 당겨서 마태의 족보와 평형을 이루든지, 마태의 예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을 앞쪽으로 당겨서 누가의 순서에 맞추든지, 그 순서는 취향의 문제일 뿐이다. 누가가 제시하는 역사적 자료들은 동방박사들의 방문실화의 위치를 정하는 문제에 직면하기까지는 앞서 배치된다. 이집트로의 피신이 동방박사들의 도착 다음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누가에 기록된 아기

76). 역자주: 『디아테싸론』은 '넷에 의해서'란 뜻으로서 사복음서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그리스도의 생애로 종합시킨 시리아로 된 책이다.

예수를 성전의 제사장에게 보이신 것과 같은 사건들은 동방박사들의 도착 앞에 놓여야 한다. 상세한 내용들에 대한 조심스런 연구는 이러한 순서 확정을 전폭 지지한다.

예수의 공적 사역으로 옮겨가면, 요한만이 예수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사건들의 확고한 결과와 함께 유일한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한편 갈릴리 지역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비교해 보면, 마가와 누가의 기록이 자료들을 주제별로 배열한 마태의 것보다는 연대기적 배열에 있어서 앞서 놓인다. 이렇게 되면, 시간의 순서에 있어서 마태의 10장보다 앞서 11장을 배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며, 누가가 제시한 이 지점에서의 사건들의 결과들을 살펴보고 마태복음 11장 1절은 10장 1-42절과 연결된다는 것과 마태복음 11장 2절은 이 특정시기에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기사의 시작이라는 점을 살핌으로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건에 대한 누가의 기록이 반드시 연대순이거나 마태의 것보다는 오히려 항상 누가의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어려운 순서 배치 가운데 하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두 사람과 예수와의 대화 장면이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하셨고, 또 한 사람에게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경고하셨다. 마태와 누가 모두가 이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 마태는 광풍을 잔잔케 하신 기적 바로 직전에 즉 초기 갈릴리 사역 때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도중에서 발생한 일로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의 종합대조는 여기서 누가의 순서에 따랐다. 그러나 이 글에서 제시한 개요에 있어서는 마태의 순서에 따랐다. 배치 순서를 정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누가는 그의 복음서 9-18장까지의 새로운 자료를 이 시점에서 제시하고 있고, 이들 여행에 관한 기록 벽두에 그것을 포함하기 위해서 순서에 관계없이 이 대화를 소개했을지 모른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이다.[77]

---

77). 역자주: 이 점에 있어서는 마태도 마찬가지이다. 김득중, 『복음서

어렵고 유사한 또 다른 유명한 문제가 유다가 유월절 주의 만찬 제정 전에 쫓겨났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을 이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다. 누가는 예수께서 어떻게 유다를 내쫓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다락방에서 배반자에 대한 경고를 하신 것으로서 일반적인 진술을 소개하고 있고, 주의 만찬이 끝날 무렵에서 그것을 소개하고 있다. 누가의 순서가 모든 면에서 연대순이라고 결정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만 유다가 만찬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가 의미한다고 느낄 것이다. 제자들 사이에서의 다툼에 관한 기록은 누가에 의해서 다락방에서 발생한 또 다른 하나의 흥미로운 사건으로서 만찬 다음에 우연히 소개하고 있고, 요한에 의해서는 유다의 반역에 대한 계시가 있기 전에 초저녁에 발생한 이야기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마태나 마가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최상의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질문들은 결정하기 어려우며, 우리의 결정들은 잠정적인 결론으로서 순수히 유지되어져야 한다. 그와 같은 잠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공적 사역에서 이야기들의 그와 같은 사건들의 주요한 흐름은 분명하며, 이야기들의 그와 같은 배열의 연구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많은 빛을 비춘다.

신학』 89-94쪽.

1. 예수의 생애에 대한 연대

몇 개월		출생
	누가복음 2:23	30, 나사렛 청년
		침례
	마태복음 4:42	40일간 금식 및 광야시험
		3일간 첫 제자들을 부르심
	요한복음 2:1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12	가벼나움에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함
첫 해	요한복음 2:13	첫번 유월절
		성전청결
		초기 유대지방 전도
	요한복음 4:35	12월
		수가성 우물가에서의 대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
	마태복음 4:12	갈릴리 지방 사역
		가벼나움에서의 사역
	마태복음 4:23	갈릴리 전역을 통한 첫 전도집회
둘째 해	요한복음 5:1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치유
		산상수훈
	누가복음 8:1-3	두 번째 갈릴리 전역 전도집회
		세 번째 전도집회
	마태복음 9:35-11:1	열두 제자를 전도 보내심
셋째 해	요한복음 6:4	세 번째 유월절
		오 천명을 먹이심
		갈릴리 지방 사역의 절정과 종결
		데가볼리 지방 선교
	요한복음 7:2	초막절
		설교와 논쟁의 증가
		9월
	요한복음 10:22	수전절
		선한 목자에 대한 설교
		12월
		베레아 지역 선교
43일간	마태복음 26:2	네 번째 유월절
		십자가의 수난
		3일만에 부활
		40일간의 사역
		승천

2. 연대개요

	번호	개 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1부		서설			1:1-4	
2부		로고스와 성육신				1:1-18
3부	1	마태에 의한 족보	1:1-17			
	2	누가에 의한 족보			3:23-38	
4부		요한과 예수의 탄생 및 유년시절				
	1	요한의 출생예고			1:5-25	
	2	예수의 출생예고			1:26-38	
	3	마리아와 엘리사벳			1:39-56	
	4	요한의 출생과 명명			1:57-80	
	5	수태고지	1:18-25			
	6	예수의 출생	2:1		2:1-7	
	7	천사와 목자들			2:8-20	
	8	예수의 할례와 명명			2:21	
	9	예수를 성전의 제사장에게 보임			2:22-38	
	10	동방박사들의 예방	2:1-12			
	11	이집트 피신과 유아 살상	2:13-18			
	12	귀향과 나사렛 정착	2:19-23		2:39	
	13	예수의 유년시절			2:40-52	
5부		세례 요한의 사역				
	1	사역의 시작	3:1-6	1:1-6	3:1-6	
	2	요한의 설교	3:7-12	1:7-8	3:7-18	
6부		그리스도의 사역과 시작				
	1	예수의 침례	3:13-17	1:9-11	3:21-22	
	2	예수의 시험	4:1-11	1:12-13	4:1-13	
	3	요한의 변호				1:19-28
	4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요한이 밝힘				1:29-34
	5	예수의 첫 제자들				1:35-51
	6	첫 기적				2:1-11
	7	가버나움으로 이주				2:12
	8	첫번 성전 청결				2:13-22
	9	니고데모와의 담화				2:23-3:21
	10	유대지방 사역				3:22-36
	11	사마리아 사역				4:1-42

	번호	개 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갈릴리 지방 사역						
	1	세례 요한의 체포			3:19-20	
	2	서설	4:12-17	1:14-15	4:14-15	4:43-45
	3	신하의 아들 치유				4:46-54
	4	나사렛에서의 배척			4:16-30	
	5	네 명의 제자선택	4:1-22	1:16-21	5:1-11	
	6	가벼나움 사역	8:14-17	1:21-34	4:31-41	
	7	갈릴리 지역 전도	4:23-25	1:35-39	4:42-44	
	8	문둥병 치유	8:2-4	1:40-45	5:12-16	
	9	중풍병자 치유	9:1-8	2:1-12	5:17-26	
	10	마태를 부르심	9:9-13	2:13-17	5:27-32	
	11	금식에 관한 논쟁	9:14-17	2:17-22	5:33-39	
	12	베데스다 연못에서 의 치유와 논쟁				5:1-47
	13	안식일 논쟁	12:1-8	2:23-28	6:1-5	
	14	손 마른 사람 치유	12:9-14	3:1-6	6:6-11	
	15	예수와 민중	12:15-21	3:7-12		
	16	열두 사도의 부르심		3:13-19	6:12-16	
	17	산상수훈	5:1-8:1		6:17-49	
	18	백부장의 종 치유	8:5-13		7:1-10	
	19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			7:11-17	
	20	요한에 대한 설교	11:2-19		7:18-35	
	21	불신에 대한 저주	11:20-30			
	22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의 설교			7:36-50	
	23	제 2차 갈릴리 전도			8:1-3	
	24	바리새인들의 모독	12:22-37	3:19-30		
	25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함	12:38-45			
	26	예수의 어머니와 친척들의 방해	12:46-50	3:31-35	8:19-21	
	27	비유	13:1-35	4:1-34	8:4-18	
	28	비유를 통한 제자 훈련	13:36-53			
	29	제자직에 관한 담화	8:18-22		9:57-62	
	30	광풍진압	8:23-27	4:35-41	8:22-25	

	번호	개 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7부		갈릴리 지방 사역				
	31	가다라 지방 여행	8:28-34	5:1-20	8:26-39	
	32	혈루증 여인 치유, 야이로의 딸 치유	9:18-26	5:21-43	8:40-56	
	33	소경과 벙어리 치유	9:27-34			
	34	마지막 나사렛 방문	13:54-58	6:1-6		
	35	제자들의 전도훈련, 3 차 갈릴리 전도	9:35-11:1	6:7-13	9:1-6	
	36	헤롯의 양심의 가책	14:1-12	6:14-29	9:7-9	
	37	오병이어의 기적	14:13-21	6:30-44	9:10-17	6:1-14
	38	물위를 걸으심	12:22-23	6:45-52		6:15-21
	39	게네사렛의 기적들	14:34-36	6:53-56		
	40	갈릴리 사역의 붕괴				6:22-71
	41	유전에 대한 논쟁	15:1-20	7:1-23		7:1
	42	가나안여인 딸 치유	15:21-28	7:24-30		
	43	데가볼리 지방 사역	15:29-38	7:31-8:9		
	44	마가단 방문	15:39-16:4	8:10-12		
	45	제자들에게 경고	16:5-12	8:13-26		
	46	베드로의 신앙고백	16:13-20	8:27-30	9:18-21	
	47	첫번 수난 예고	16:21-28	8:31-9:1	9:22-27	
	48	변화산 기적	17:1-8	9:2-8	9:28-36	
	49	변화산에 관한 담화	17:9-13	9:9-13	9:36	
	50	귀신들린 소년 치유	17:14-20	9:14-29	9:37-43	
	51	세 번째 수난 예고	17:22-23	9:30-32	9:43-45	
	52	예수와 성전세	17:24-27			
	53	큰 자에 대한 논란	18:1-5	9:33-37	9:46-48	
	54	무명의 기적 행위자		9:38-41	9:49-50	
	55	실족에 대한 질문	18:6-14	9:42-50		
	56	교회치리	18:15-35			
	57	예수 형제들의 불신				7:2-9
	58	예루살렘 향한 여정			9:51-56	7:10
8부		후기 유대지방 사역				
	1	장막절 중의 예수				7:11-52
	2	간음하다 잡힌 여인				7:53-8:11
	3	빛에 대한 설교				8:12-59
	4	소경 치유				9:1-41
	5	선한 목자 설교				10:1-21

	번호	개 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8부		후기 유대지방 사역				
	6	70인의 전도사역			10:1-24	
	7	선한 사마리아인			10:25-37	
	8	예수와 마리아와 마르다			10:38-42	
	9	기도에 관한 말씀			11:1-13	
	10	벙어리 귀신축출			11:14-36	
	11	바리새인의 배척			11:37-54	
	12	위선에 관한 교훈			12:1-12	
	13	탐심에 관한 교훈			12:13-21	
	14	신앙에 관한 교훈			12:22-34	
	15	충성과 분쟁과 표적			12:35-59	
	16	회개에 관한 교훈			13:1-9	
	17	안식일에 병고치는 문제와 하나님 나라			13:10-21	
	18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계심				10:22-39
9부		후기 베레아 사역				
	1	베레아로 옮기심				10:40-42
	2	베레아에서의 담화			13:22-35	
	3	안식일에 치유하심			14:1-24	
	4	제자직에 관한 설교			14:25-35	
	5	잃은 양, 동전, 아들 에 관한 비유			15:1-32	
	6	부정한 청지기 비유			16:1-13	
	7	부자와 나사로 비유			16:14-31	
	8	무익한 종의 비유			17:1-10	
	9	나사로의 부활				11:1-44
	10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				11:45-54
	11	열 문둥병자 치유			17:11-19	
	12	왕국이 임하는 시기			17:20-37	
	13	재판장에 관한 비유			18:1-8	
	14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18:9-14	
	15	이혼에 관한 교훈	19:1-12	10:1-12		
	16	어린이에 관한 교훈	19:13-15	10:13-16	18:15-17	

	번호	개 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9부		후기 베레아 사역				
	17	부자 청년과 교훈	19:16-22	10:17-22	18:18-23	
	18	부자들의 망함	19:23-30	10:23-31	18:24-30	
	19	포도원 일군 비유	20:1-16			
	20	수난 예고	20:17-19	10:32-34	18:31-34	
	21	야고보와 요한 책망	20:20-28	10:35-45		
	22	여리고성 소경치유	20:29-34	10:46-52	18:35-43	
	23	삭개오			19:1-10	
	24	므나에 관한 비유			19:11-28	
10부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공적 사역				
	1	베다니 도착				11:55이하
	2	마리아의 향유부음	26:6-13	14:3-9		12:2-8
	3	승리의 입성	21:1-11	11:1-11	19:29-44	12:12-19
	4	무화과 나무 저주	21:12-19	11:12-18	19:45-48	
	5	무화과 나무 고사에 대한 담화	21:20-22	11:19-25	21:37-38	
	6	도전 받는 예수의 권위	21:23-27	11:27-33	20:1-8	
	7	두 아들의 비유	21:28-32			
	8	포도원의 비유	21:33-46	12:1-12	20:9-19	
	9	혼인 예복 비유	22:1-14			
	10	세금 바치는 문제	22:15-22	12:13-17	20:20-26	
	11	부활에 관한 질문	22:23-33	12:18-27	20:27-40	
	12	큰 계명에 관한 질문	22:34-40	12:28-34		
	13	다윗의 아들에 관한 질문	22:41-46	12:35-37	20:41-44	
	14	서기관과 바리새인 에 관한 저주	23:1-39	12:38-40	20:45-47	
	15	과부의 엽전		12:41-44	21:1-4	
	16	생명과 사망 중요성				12:20-50
	17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 예고	24:1-51	13:1-37	21:5-36	
	18	열 처녀 비유	25:1-13			
	19	달란트 비유	25:14-30			
	20	최후심판에 관한 교훈	25:31-46			

	번호	개 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공적 사역				
	21	다섯 번째 수난예고	26:1-5	14:1-2	22:1-2	
	22	유다의 배반 음모	26:14-16	14:10-11	22:3-6	
	23	유월절 준비	26:17-19	14:12-16	22:7-13	
	24	유월절 식사	26:20	14:7	22:14-30	
	25	제자들의 발을 씻음				13:1-20
	26	유다가 배반자로 지목됨	26:21-25	14:18-21	22:21-23	13:21-30
	27	제자들에 관한 교훈	26:31-35	14:27-31	22:31-38	13:31-38
	28	주의 만찬 제정	26:26-29	14:22-25	22:17-20	
	29	고별 연설				14:1-31
	30	포도의 비유				15:1-27
	31	엄숙한 지시				16:1-33
	32	예수의 기도				17:1-26
	33	겟세마네 동산 기도	26:30-46	14:26-34	22:39-46	18:1
	34	체포	26:47-56	14:43-52	22:47-53	18:2-12
	35	안나스의 심문				18:12-23
	36	가야바의 심문	26:57-68	14:53-65	22:54-65	18:24
10부	37	베드로의 부인	26:58-75	14:54-72	22:54-62	18:15-27
	38	공회의 저주	27:1	15:1	22:66-71	
	39	유다의 최후	27:3-10			
	40	빌라도의 심문	27:11-14	15:2-5	23:1-5	18:28-38
	41	헤롯의 심문			23:6-12	
	42	빌라도의 2차 심문	27:15-26	15:6-15	23:13-25	18:39이하
	43	고문	27:27-30	15:16-19		
	44	골고다의 길	27:31-34	15:20-23	23:26-33	19:16-17
	45	그리스도의 최후	27:35-50	15:24-37	23:33-46	19:18-30
	46	그리스도의 사망에 따른 기적들	27:51-56	15:38-41	23:45-59	
	47	장사	27:57-60	15:42-46	23:50-54	19:31-42
	48	무덤 경비	27:61-66	15:47	23:55-56	
	49	부활	28:1-8	16:1-8	24:1-8	20:1
	50	부활에 대한 여인들의 보도			24:8-12	20:2-10
	51	마리아에게 출현		16:9-11		20:11-18
	52	다른 여인에게 출현	28:9-10			

	번호	개 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10부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공적 사역				
	53	로마 경비원들의 보고	28:11-15			
	54	두 제자에게 보이심		16:12-13	24:13-32	
	55	베드로에게 보이심			24:33-35	
	56	열 제자들에게 보이심		16:14	24:36-43	20:19-25
	57	열한 제자들에게 보이심				20:26-31
	58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심				21:1-23
	59	대 위임	28:16-20			
	60	예루살렘에 나타 나심		16:15-18		
	61	제자들에게 보이심			24:44-49	
	62	승천		16:19-20	24:50-53	
11부		결어				21:24-25

제9절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사건들

1) 금요일 오후 베다니에 도착(요 11:55-12:11; 마 26:6-13; 막 14:3-9) 하셨고,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 하셨다. 이 때에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어 경배하였다.

2) 일요일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셨다(마 21:1-11; 막 11:1-11; 눅 19:29-44; 요 12:12-19). 이 때에 민중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였다. 말은 전쟁을, 나귀는 평화를 상징한다. 그리고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의 뜻이다(시 118:25).

3) 월요일에 두 번째로 성전을 청소하셨다(마 21:12-22; 막 11:12-25; 눅 19:45-48; 21:37-38). 이 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

4) 화요일은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던 날이다(마 21-25장; 막 11:27-13장; 눅 20-21장; 요 12:20-50). 이 날 무화과나무가 고사하였고,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밖에도 문지기 비유, 무화과나무 비유, 노아의 때, 두 사람, 지혜로운

종의 비유,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방인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이 날에 예수께 주어진 다섯 가지 질문도 있었다. 제자들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질문하였고,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이 세금납부에 관한 정치적인 질문을 던졌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교리적인 질문을 던졌다. 바리새인들은 또 가장 큰 계명에 관한 윤리적인 질문을 던졌고, 다윗의 자손 즉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가 예수 자신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이 밖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 과부의 두렙돈 헌금에 관한 말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고, 재림에 대한 예언, 종말에 대한 대 강연이 있었다. 그러나 이 많은 말씀들과 질문들이 이 한 날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태는 복음서를 주제별로 구성하였고, 이 날에 있었던 대부분의 내용들은 마태복음에만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5) 수요일에 예수를 잡을 음모가 있었을 것이다(마 26:14-16; 막 14-10-11; 눅 22:3-6).

6) 목요일에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였다(마 26:17-29; 막 14:12-25; 눅 22:7-38; 요 13:1-17:26). 이 날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셨다. 이 날에 예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고, 고별의 말씀을 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의 기도를 하신 후에 체포되셨다. 그러나 유대인의 날짜 개념으로 볼 때, 유월절 식사준비 이외에는 모두 금요일에 이루어진 일들이다.

7) 금요일에 체포되셨고, 재판을 받으시고 수난 당하셨다(마 26:47-27:56; 막 14:26-15:41; 눅 22:39-23:49; 요 18:1-19:30). 이 날 예수께서는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서 12시에서 3시경에, 공회원 앞에서 3시에서 4시 사이에, 빌라도 앞에서 4시경에, 헤롯 앞에서 5시경에, 다시 빌라도 총독과 군중 앞에서 7시에서 8시 사이에 심문과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선고를 받으셨다. 그리고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12시 정오에 해가 빛을 잃었다. 그리고 오후 3시경 유대인들이 저녁 희생을 드리는 그 시간에 만 인류의 화목제물로서 운명하셨다.

본래 총독은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에 머물렀으며,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방 디벨료에 머물렀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안토니우스

성곽에 주둔하는 로마군과 함께 총독관저가 있었으며, 헤롯궁전이 있었다. 이들은 유월절 큰 민족의 행사에 정치적 책임자로서 혹은 행사 참여를 목적으로 이 때 만큼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이다.

8) 토요일 예수께서는 삼년 육개월의 짧은 고난과 배척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금요일 오후 3시경부터 주일 이른 아침까지 약 40 시간 동안 무덤에서 안식하셨다(마 27:57-66; 막 15:38-47; 눅 23:45-56; 요 19:31-42).

9) 주일아침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마 28:1-8; 막 16:1-8; 눅 24:1-8; 요 20:1). 부활 후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제10절 죄목

예수의 죄목은 십자가형은 다음과 같은 죄목으로 언도되었다.

첫째,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부정 또는 적대하였으며, 하나님의 신성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하였고, 성전을 파괴한 후 삼일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둘째, 민중의 선동이다. 로마를 대항하여 민란을 기도했다는 주장이다.

셋째,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였다.

넷째, 세금납부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다섯째,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들 주장들은 오해에 기인된 것이며, 거짓증인들의 거짓주장에 의한 것이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께 호의적인 의사를 표명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로마에 보고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실제로 빌라도 총독은 36년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유배당하고 말았다.

예수 재판…체포~선고까지 위법투성

▼체포영장-미란다원칙 무시▼

예수 탄생 2000년. 그의 탄생은 인간 역사의 새로운 시발점이 됐지만 그는 법정에서의 유죄판결에 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숨졌다. 그의 말대로 당시의 법률가들은 '예언자의 무덤을 파는 족속'이 되어버렸다. 예수에 대한 재판을 오늘날의 형법체계로 보면 어떻게 될까.

▽예수에 대한 재판=서기 33년 12월 어느 날.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었다.

먼저 '피고인 예수'에 대한 인정신문이 진행됐다. 베들레헴 마굿간에서 갈릴리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33세의 젊은이. 그는 가롯 유다의 고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영장 제시도, 진술거부권 등을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다.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는 성전모독과 조세(租稅)거부, 메시아 참칭(僭稱) 등. 검찰석에는 70여명의 유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줄지어 앉았다. 변호인석은 비어 있었다. 국선 변호인도 선임되지 않은 것.

빌라도 재판장은 고민에 빠졌다. 예수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증인 몇 사람이 법정에 섰다. 이들은 "예수가 가이사(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했다"고 거짓 증언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예수의 혐의는 종교 국가가 아닌 로마에서는 중죄(重罪)에 해당하지 않았다. 빌라도는 "채찍 몇 대의 형을 선고하겠다"며 일어섰다.

제사장들이 발끈하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왕의 이름을 사칭한 혐의를 추가하겠다는 것이었다. 로마에서 '왕명(王名) 사칭'은 '국가원수 모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된 것이다.

재판장이 선고를 망설이자 유대 방청객들이 난폭해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며 아우성쳤다. 이성을 잃은 방청객들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던 빌라도는 결국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

했다. 사형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박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변호인도 없이 사형선고▼

▽예수는 유죄였을까=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게 된 데는 종교적인 여러 이유가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은 잘못된 재판에서 찾을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재판'은 억지 혐의 적용,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판 진행, '마녀사냥'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휘둘린 재판부의 무리한 판결로 점철돼 있다.

뒤늦게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한 차례 시도됐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대법원에 예수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것. 그들은 "유대민족이 그동안 주권적인 사법기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재판을 따져볼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잘못된 재판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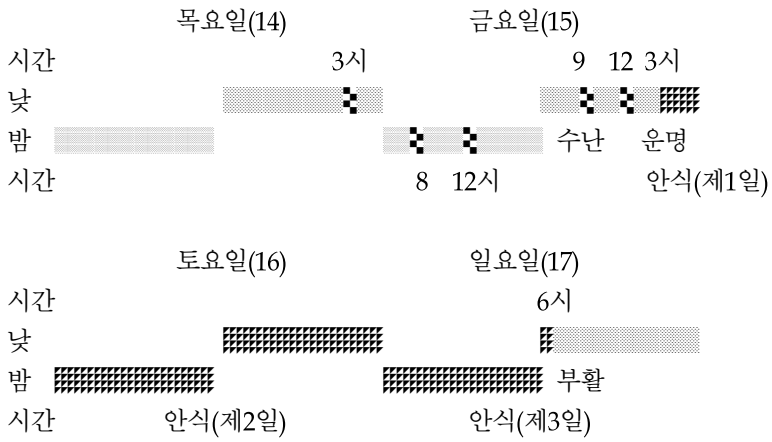
그러나 이스라엘 대법원은 "소송기록이 없고 신약에 단편적인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각하했다.

▼'법'이용한 기득권층 횡포▼

▽잘못된 법적용의 결과=예수를 사형에 처함으로써 위협이 되는 존재를 제거하기 위한 기득권층의 계획은 성공했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법'을 이용했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정성을 잃은 법적용이나 잘못된 판결은 한 사람의 인생 뿐 아니라 국가나 역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예수에 대한 재판은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2000/12/1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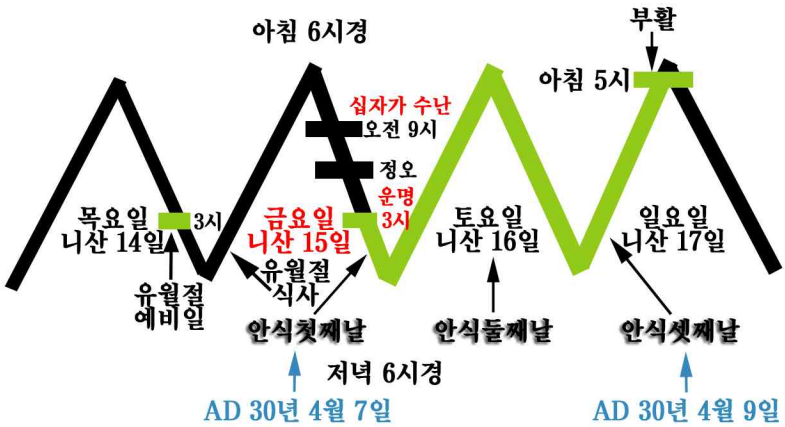
제11절 예수의 재판과 그 장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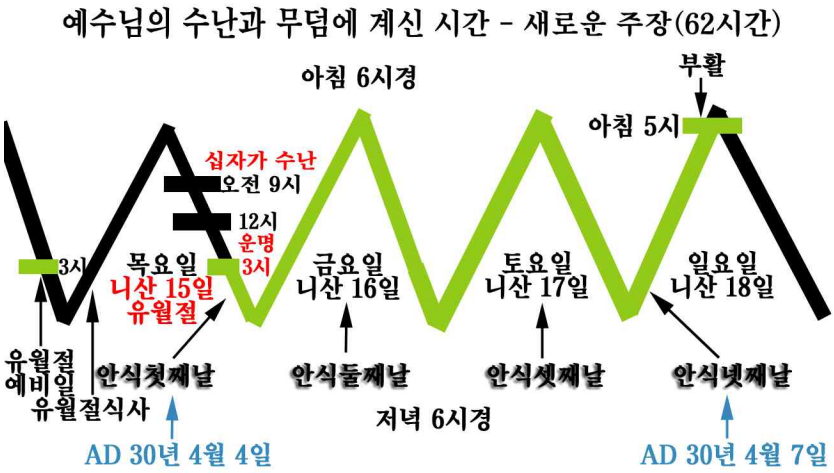
제12절 십자가 수난의 시각



1) 목요일(니산월 14일) 오후 3시경에 유월절 양을 준비함.
2) 금요일(니산월 15일) 밤 8시경에 유월절 식사함.
3) 금요일 자정 경에 잡히심.
4) 금요일 자정 경부터 아침까지 심문과 재판을 받으심.
5)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
6) 금요일 정오 경부터 해가 빛을 잃음.
7)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심.
8) 금요일 오후 짧은 시간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밤을 안식하심.
9) 일요일(니산월 17일) 아침 일찍 부활하심.
10)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의 운명시간을 목요일 오후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맞추고 있다. 이는 예수의 십가가에서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양의 죽음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았고, 예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도 2박 3일로 늘어나게 된다.

예수님의 수난과 무덤에 계신 시간 - 기존의 주장(38시간)





제13절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들

복음서 저자들이 보도하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말씀은 일곱 마디 말씀이다. 마태와 마가는 각각 예수의 절망적인 외침 한 마디를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누가와 요한이 각각 세 마디 말씀들을 보도하고 있다. 누가는 예수의 기도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시며 운명하시는 예수의 삶을 당시의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모범적인 신앙인의 삶으로 제시하고 있다. 요한은 영지주의 이단을 물리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인성에 관련된 말씀들을 수집하여 보도하였다.

마태와 마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마 27:46; 막 15:34).

누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

요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요 19:26).

"내가 목마르다"(요 19:28).

"다 이루었다"(요 19:30; cf. 롬 8:4,10:4). *대속의 죽음으로써 이뤄야할 인류 구속의 목표.